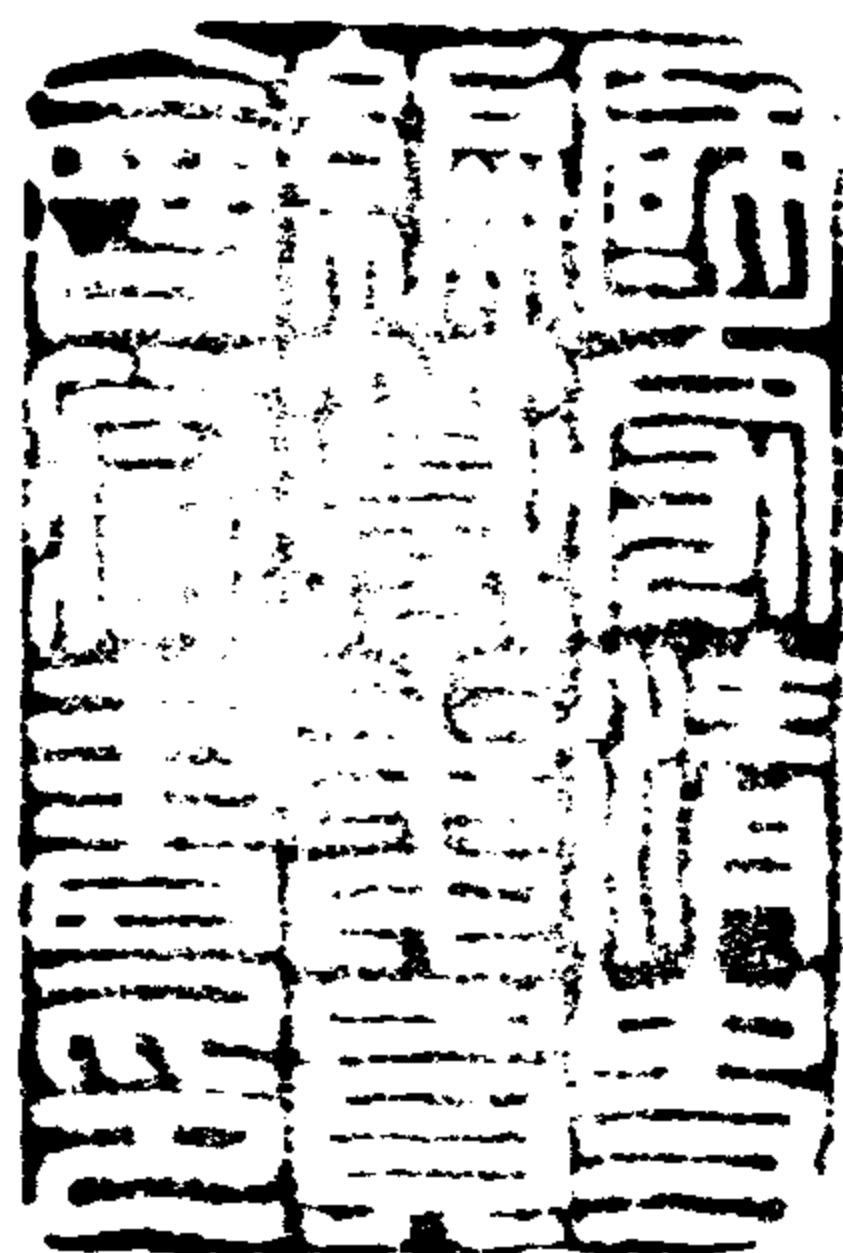


003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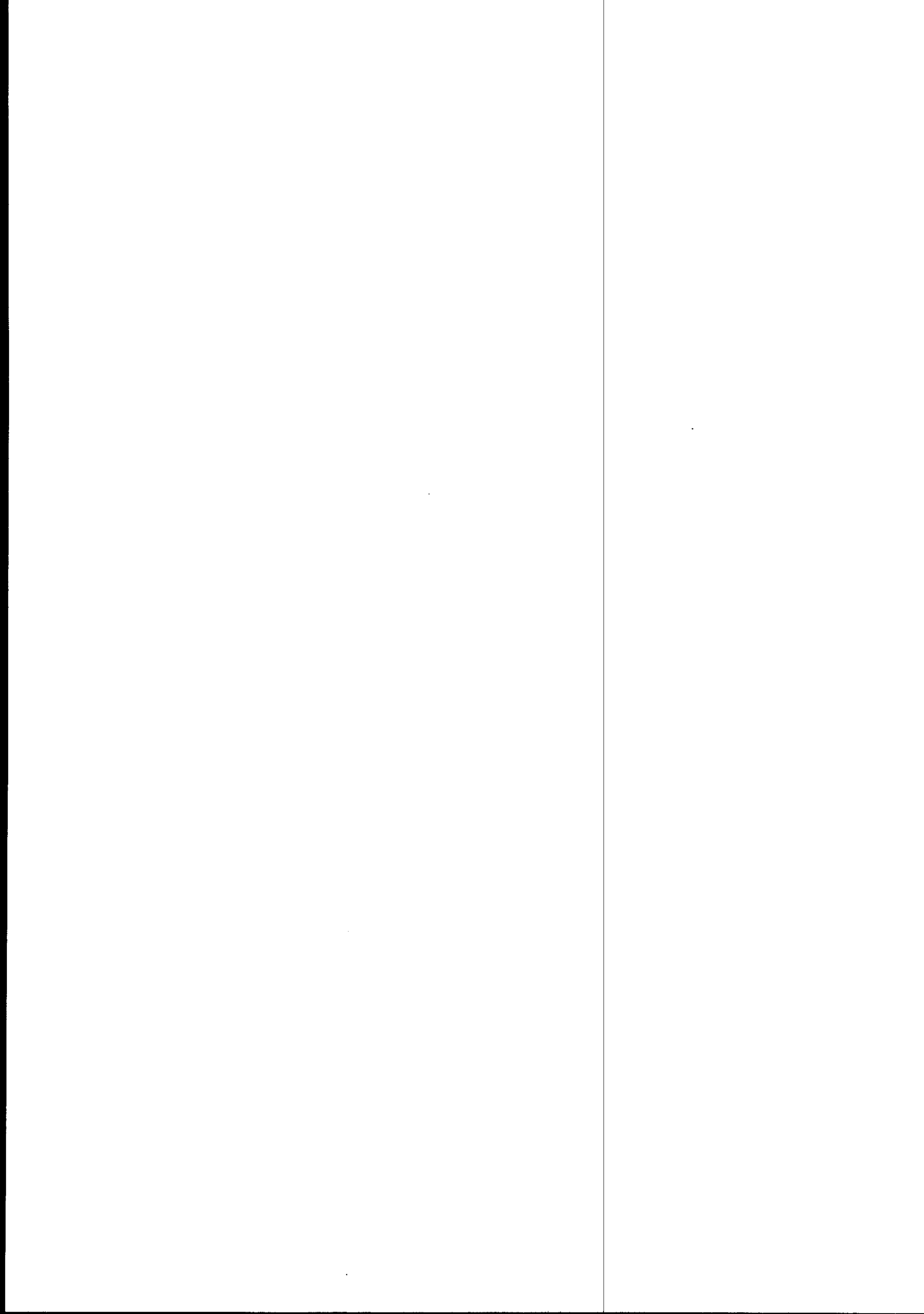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5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인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の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인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樣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밝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尙大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시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 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근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 워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和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한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날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隔絶 없이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아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中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文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접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甞 대신 답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 동안 枝葉的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 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 년 전에 民族文化推進黨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黨를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 大學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黨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가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教授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教授, 朴泰根 教授의 激勵가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教授, 浙江大學의 金健人 教授,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教授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的인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적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的確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完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레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 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 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한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엔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鍾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일러두기

- 이 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燕行錄類、瀋陽日記類、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 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燕行別章帖、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한 燕行詩、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 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 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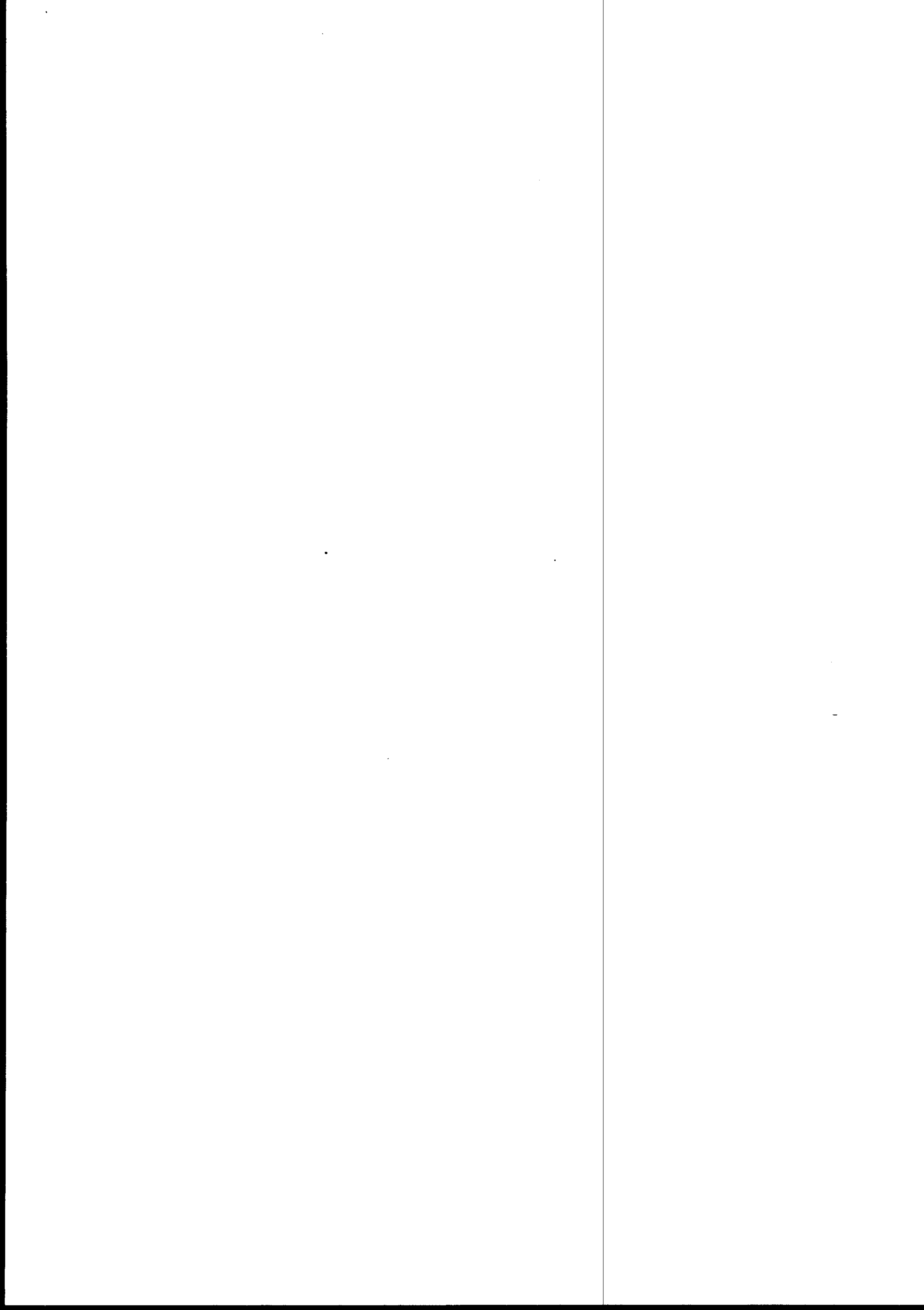
(57)라차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imkz@dongguk.edu

- 갑寅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游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游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輓錄), 이삼봉(李商鳳?~?), 북원록(北輓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삼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사양재외집삼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삼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 삼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敎,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溚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溚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 연사일기(燕棧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棧日記) 1册, 哲宗14同治2癸亥 1863
- 연사필기(燕棧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棧筆記) 2册
-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8乾隆49甲辰 1784
-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현유고(樗軒遺稿), 世祖5天順3己卯 1459
-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1, 景宗2康熙61壬寅 1722
-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재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11咸豐1庚申 1860
-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42乾隆31丙戌 1766
- 연행능,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46康熙59庚子 1720
-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3, 孝宗8順治14丁酉 1657
-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40萬曆35丁未 1607
-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鎭,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20萬曆15丁亥 1587
-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溍,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천행능, 坤, 이덕형(李德溍, 1566·1645), 천행능, 坤,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4嘉慶9甲子 1804
-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견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14天啓2壬戌 1622(9·37)

차례

• 연중문견(燕中聞見)	미상(未詳?)	95	111
• 연원일록(燕輶日錄)	一·二·三)	미상(未詳?)	95	117



燕中關見

北地甲... 凡... 之一

正德... 福昌君... 使尹深書... 官洪萬鍾

... 載大魚數十車

... 阿真魚膏腴

... 黑龍江... 貢于皇帝云

... 路下有吳襄掘塚... 塚即之桂之

... 其棺磨碎其骨... 又有誌曰

... 刻其履歷... 破碎守墓人家六七戶... 並為焚燒

... 入小城門有五間... 祠宇... 齊

... 清河自北... 發源屈曲南流... 遠于

縹緲深景致菁酒埽有山洲立孤竹君石飲淡蕪紗過野
坵夕正宿于沙河驛間家有秀才姜伯興者夜深後乘見
頗能文多慷慨以筆名問其事情則答曰皇帝遊覽言常
多臨政之日甚少而兵部尚書明殊以清人方執國政有紅旗
一者年二十餘皇帝泛九今年二三月間全軍敗沒于岳陽
一相四星者信言皇帝赫祖今方提督江西湖廣諸軍陝西又有
一守府遷兵畿甸而漢人則言曾調用出師清兵敗傷殆盡生
一謂多而回還者少且南方海邊人傳之言時有巨艘出沒海
一而不知是吳寧鄭旺公矣

正月初二日留玉河館聞出兵五千分送陝西湖廣等地
一起領兵廂黃旗夸蘭大烏式每牛錄披甲二人共有二千
五百人送于陝西又一起領兵正黃旗夸蘭大麟突把都魯
每牛錄披甲二人共有二千五百人送于湖廣云前後出兵
皆以清人抄送而漢人則免不調用清人之編于軍簿者漸
少故我國被擄人之子交通謂之滿洲人而多入於抄送中云
陝西地方最近於京師而與吳三桂兵相距防戍之重比他
尤緊故軍務糧餉等事專委於經略洛莫洛莫而清人而
歷高宗累朝年高望者也吳兵之尚未度關言賴此人之力

朝廷僑以為重矣一自被殺於三輔之後上下憂迫若斯若
肩提督王輔臣即大同人也亦以重臣鎮守陝西前月及三
桂侯西形勢十去七八云

于五昭皇帝始受朝參使臣率負綬進參躬三拜九叩頭禮
蒙古回回國使臣亦同參而坐於我國使臣之下回回乃西北
邊國其人面目似南蠻衣服似蒙古而足穿木屨之後
有蹄准有職者方穿此屨云

正宿于三河縣城內閭家有秀才孫有世者素見探問
自事情則以為自吐京徵兵將防守山東兗州地方蓋

瀋關後鄭錦之乘車未攻故也

三月初八日止宿于寧遠衛城內清人家即皇帝之庄頭也
我國平山女人被擄於丙子方為王家之農丁年可七十許為
人類信實識事理其三寸舌以驛卒帶紙偶然逢看於此
接待一紙類為款厚未傳其以聞事情曰自南方叛亂之後
關外空虛無備此中言最大畏者我國也上年秋間傳言我國
以舟師渡海未罷不騷肩極多至今乃止外雖隱諱內實親
懼云

十五日止宿于遼陽舊城內胡姓人家乃遼陽巨富也待之甚

為字有江夏人李之匯一名際盛字浦耒者乘夜乘見自言其
祖與父母兄弟皆沒於清人為少共戴天之讐言禍屢云此已
有年以筆舌酬酢說話為人輕躁言多憤慨有少息取信
者且言有朱神仙者號二眉湖廣人也善於術數康熙
感信之有罪特免死南歸逢董提督國衛于荊州董
問天下事朱示一帖曰問天天自曉問湖湖自清終有下
四字不能記得云報天地之昧龍虎老翁拾得孩兒只有佛一尊
焉能者也乎四牡駢一雌是誰緣何山中返二看云云而
人不能解見云探問南方事情則所傳大略相同而別無

燕聞矣

癸巳十一月正使沈之源副使洪命夏書狀金壽恒
十二月十六日夕宿沙河驛里中有秀才姜姓人使譯官密
問中原消息則荅曰永曆皇帝方在湖廣所屬五省而
搃兵張一得用兵有法士馬精強向者北京之兵大衄而還
今雖再和以性心未易擊破云又言洪承疇之子方仕於
永曆故清國遣承疇使之招誘其子云
正月三十日朝飯別山店約數里許道逢檻車四十輛皆載生
虜虜虜使譯官問之則皇帝送人關外捕得以素將放於後苑

云

臣等在東京使譯官李震男回漢人出入館中者密問事情
則答曰永曆皇帝乃天啓之孫也方在湖廣去北京三千里
湖北屬清國湖南屬永曆洞庭間之去年清國送敬景王
繼收永曆之軍皆著綿心甲持丈餘長劍以戰而勇敢之可
當敬景王大敗而死士卒十止八九多於身輪之且南方地氣
炎瘴壯軍之習水土病死者亦多去十二月壬子一人又領七萬兵
出然而所謂敬景王即孔有德也孔志稱善戰而今忽敗死清
國軍情大槩再滋生戰之兵多有逗留之志云 崇禎自皇帝

有之子一子死於流賊之亂一子逃躲或言稱帝某地而不能的
稱帝在云有明朝皇親一人變姓為牛稱帝於山西而其勢
甚弱隆武皇帝立國於西云而江西已屬清國未知其的否云
李自成死後其子仍據西蜀并號稱以永昌而蜀地險阻清
國不能進及使吳三桂留鎮陝西遮截其生來之路云 鄭芝
龍者方在社京封為國公而其子變姓名自稱郭信在福建海
島中生出陸地清國亦不敢生擊云
戊申六月長使福昌君賴副使閔熙書狀鄭樸
六月三十日回衙驛得聞前送漂漢人等編配于寧古塔而以

西省地方官則無論高下盡皆趨之云

亦有初官曉頭藝約由口遼城東門而入城內外皆有關帝
者太率額落址有廣祐寺之前塔即所謂白塔者也蓋漢代
際初建而唐尉遲敬德重修云雖未知真否真天下之壯觀
也率表柱必在問於寺僧則指一片石於廢寺之前而屢經
兵燹之餘只有其址而未能的知

寺之西曰歷鎮遠堡南及西里堡數里餘有望夫臺大野中
高自平斗起石巉然以東西北邊十里外萬里長城屈
曲在山阿繞之慘築新山色異黑白相間勢甚宏壯矣

山海關門樓上大書其額曰天下第一關又以西瞻萬國東顧重
關懸板于左右雉堞堡樓衙門廟刹市肆物貨宏麗殷
富以之關外之營懸殊入察院樓其至房屋頗似精麗廣潤
而持廉乘台四字以金書揭額蓋明時都察院主事衙門也
二十四日過萬柳庄鄉人指點基址無一株柳樹路傍川邊有石
如席罽形乃李廣射席石云
二十六日到豐潤宿問家主人曹姓人者云幸忝初科當於月
赴會試云問即今科第之難易與明朝何如開場次日試取
何文荅云三場設紙初場則八股文七篇中場則論表各一篇

判五度終場則策問五篇間一日連設三場考試官五員其餘各五備亦多得告之難易無異明朝而但今則赴孔錄名數不如明時之多也云此縣以汶為名者事何答云云下五六百云民戶之多推此可知

八月初五日鷄鳴起具冠帶陛闕下由太和門入序立於西序以謂諸王軍先躬三跪九叩頭之禮百官次之我國使臣又次躬禮畢進至皇極殿簷階上正使則使入於殿內坐於諸王之宗班躬駱茶一巡後皇帝即起入去諸王以下次之罷出皇帝曰：躬神祀於闕門諸王輪回入去親自擊手云云

漸譯一人密言於首譯曰山東一郡有天將天神相戰於半空
神兵性未多鋒之狀歷々可見間有神兵以騎馬下之地上之
時其馬跡之大如圓盤云又有一處以龍相鬪於雲間四則真
龍四則蛟龍相戰之時或晴或雨故其近處水災尤為慘酷云
初六日宿沙河驛借宿士人姜君佐家以手畫地相問則云得
聞朱氏後裔在西戎地國猶仍稱大明年號稱平康者已四
年蒙古歸順北京者只一種其餘則皆屬西戎云
癸酉六月正使臨陽君桓副使申厚命書狀崔恒齊
七月初五日渡三流河踰王祥石門兩嶺路中遙望西邊

白勢凌空譯單言此乃曰遼東白塔寺前塔也其杰然
竒勢滅天下之一壯觀而距路傍七十里而近云遂送言
于護紂麻且綺譯等處請暫之性見則許之遂偕正
副使往訪焉果見塔形巍々秀生半空高可三四十餘
丈而未易測量其後有一寺新創佛事煥儼即所謂白
塔寺也招居僧詢以華表在所在處則答以未能詳知
仍指西南一小峯曰彼即唐太宗伐高麗時駐驛峯云
自覽已畢即回轡復路夕陽渡太子河々即古燕太子
丹為秦將李信所逐而伏匿之處故河之名以此云

初九日出瀋陽西門外約數里遙望迤邐北綠樹圍繞盡閣批空
譯軍言是汗塚所在處云稍西路傍有一巨剝繚以周墻樹林
陰翳譯軍言是汗之願堂云

二十日到寧遠衛聞南門內有祖大壽貝樓偕正副使往觀
大壽即皇明時守鎮之將其父承勲昔在壬辰以征倭業
我國者宗禎末大壽為清人所圍力屈而降貝樓即誇其
父祖三世誥贈爵秩及伊之勲貴而創立者以其制度即
一石門而奇巧無比跨在通衢大道中而左右對立棟樑
椽莖瓦覆蓋之屬無一木片瓦石勢差戾離琢極妙上

層刻王晉二字中層刻四世元戎少傅六字又刻厥曾祖鎮
祖父仁父承勳誥封官名及渠之勳爵而兩邊石柱前後
又刻桓桓興歌國倚干城之重絲綸錫寵朝隆銘鼎之
慶松檟如新慶善培于四世琳琅有赫竟永言于千秋
等字其餘則多不能盡記樓前東西躡以双石獸如獅虎
之形而猛勢凜然如有生氣測其旁力之費之翅萬金想
其鐫刻之工可以儼雋據此可見其浮誇太甚奢侈而極
不滿一晒而若其晚節投降清國遺臭千秋者宜無以由
而然哉畢竟是貪心所使其人固于道也

山海關門樓扁以天下亭一関五大字傳言秦丞相李斯筆
云而未知其然否

月初四日到通州江，即古之潞河而南流十餘里入于海時值江
南漕舡齊到青雀黃龍之軸批列江心如雲大帆望若錦障凌
空危樯森似林立平日四顧令人應接不暇有一舡主要請登
舡遂踴雲梯而上入坐舡房則儼然一巨室也鋪陳甚盛器
物精潔進茶勸飲遂吃半鍾日問其姓名居住則答以姓沈
名駮云伊之家眷老幼及鷄犬鵝鴨之類盡載而來自淮杭
州已至八関月云又問如此許多舡中頗有識字及曉解卜相

技藝之類召荅曰無有又問汝輩則盡為剃髮頭戴紅纓
無乃嗟余之冠服否荅曰何為嗟之吾土之人曰皆服此今雖異
制而山林間隱逸之士則亦剃頭而著冠也者問或有之否
九月初六日以領賞將詣五鳳門到東長安門外下馬而入步
行移時折而稍北行到禁川橋之制度亦極宏壯橋之
制度亦極宏壯橋底江流即鑿潞河自玉河而引入考也
舟舫往來於其下蘆葦叢茂於兩邊渡橋乃天安門又
行移時入端門望見五鳳門突兀於空中覆以黃瓦金
瓦照耀東西廊廡之弘敞左右城牆之高深誠難形容於

筆端移時到五鳳門即午門而其內有皇極殿一自宏治尚
未重建只有前門一座故朝參時設御坐於門中云

廿日抵白旗堡止宿路上遇看社京差人問其姓子何處則彼
答以馭送鳥銃一千五百柄予瀋陽使之力送艾湖教習教士之
法艾湖即寧古塔近處地方云彼又曰汝國前日以送之銃則於
火之際藏以三多某故某於折裂者至於八百柄之多初今為
無用之物皆置瀋陽云

己巳九月正使東平君杭副使申厚載書狀官權持

十月初旬夕到豐潤縣止宿秀才曹重家重亦宦家子年

三年為人沈重且通文辭可與語考也乃夜相對略以文字酬
酢先問縣中各應奉存否答云應奉在集寧曹庶在揭陽
以考明朝紀事守宗獲罪事死年今七十有子十餘而家
多具無以改易全又曰自皇帝政事文字以前代尚如答云自皇帝
藉明而好小利矣試以一事言之則義氣滿洲石家古及魚皮
糲子之來投者而養之甚厚以樵石以回山石乃甲根本之人
而之加撫恤然皇帝出獵則唯以樵石紆或牲口吐或牲寒外
一年之間無有數月存家之時雖有月給之金而不足以充
其道路之費以故皆懷怨毒矣可塞外遊脈而其遠出也

答曰名為生脈而實為俄羅斯預曰可俄羅斯是何種類
乃以謂大鼻獐子者取答曰尤大鼻獐子亦別有一種在西
絕域兵強馬盛數未侵伐清人不能抗禦僅得講和已遣
曷之索額圖刺地定界而未矣問俄羅斯強盛比古志如何
亦與之結連否答曰結連與否不可知但強盛則台吉亦不如也
仍問台志消息答曰台吉且待言也雄據西方養兵畜糧將
觀中國有變而和耳况台吉乃天順皇帝之後大明中興可
指日待矣問清國賦役視明時甚輕云然否答曰一徵明朝
矣回還時副使又寄宥重家探問事情則其言與臣記

聞無差副使又言朝臣庶貧則答曰朝廷大臣之貧者唯伊
素阿其次徐元文亦稍廉徐乾學雖有文字而直其始無
論矣問文字之士則答曰今王熙徐乾學有文名而皆不
及徐笑之文當爲今世第一矣官知如罷歸家居又有
成德者滿人閣光明珠之子自幼有文字生羣年僅二十
擢高等入翰苑爲庶吉士皇帝忌其才而殺之明珠曰臣
致仕而去矣又曰中國禮制則重指其以看帽子曰此帽爲
何且論禮法哉仍戲款之已其意可見也

十一月三日留館以聞皇帝是日自獵還蓋皇帝喜遊獵

遊獵雖是本色而豈可以遊獵治天之哉然遊獵之餘亦能留
意文詞得見其咏闕里古檜賦乃康熙二十三年性魯時作也
其序有云孔子手植檜在杏壇之側金貞祐間無復存矣
元至元三十四年再茁故處明和治間又燬於火今以遺者不
枯而葉屹立霜露而秀色獨異撫摩久之乃以賦曰維槎枿
之靈質實自化之以鍾標扶輿之奇特峙先聖之故宮涵
元氣以之朽與至道而俱深爾其黛幹蒼蒼孤柯濯濯鶴
骨初扶霜鱗未化巖茁軋以舒類鴻荒之忽鑿謝縹緲
於豪華完厚屈於大樛天矯拂勃星臨露滴枝無取乎

橙之葉全稀於撼之夕。麤度方之驚朝旭。焜兮如滌伊間。
氣之潛滋。惟神爽之咸集。紉細延却。宛轉斷連。蟠屈兮。
若侑羽之在列。濇耳削兮。若若無心。之待懸。則有築以崇封。
法以膏壤。方以周闔。角以文磔。且縮心。獻目。給神。賞羅。焜奪。
翠。私。穎。告。響。於是。楷。目。之。以。擢。穎。著。感。之。以。抽。莖。爭。歲。競。
於。海。涌。之。里。齊。扶。疎。於。禮。樂。之。庭。朝。菌。慙。兮。一朝。大。椿。衰。
兮。千。嶺。上。泝。真。宰。之。功。遠。契。無。為。之。代。均。雲。私。兮。兩。極。等。
乾。始。兮。坤。載。疇。則。出。混。茫。之。中。而。居。耳。目。之。外。興。三。才。以。垂。植。
綿。歷。禮。其。長。在。亦。有。扶。桑。海。表。若。木。山。巔。東。瀛。西。極。揭。日。

摩天迹雖誇於神異植於土於文又宣宜睦予其後矣邈無
得而稱焉又有謁夫子廟詩曰鑿輅來東魯先登夫子堂
兩楹陳俎豆數仞見宮牆道統唐虞接文宗洙泗長入
門極松栢瞻拜肅冠裳詩賦並勒石云其他經筵講義則
親製序文又令詞臣撰幸魯盛典政治典刑孝經綱義大清
一統志大清會典大清律等書其以責飾夸張者畢竟是美
具已而

十二月初六日到中右所朝飯有禹丁奉者來謁問之及我國
永柔人被俘而來為貝勒庄頭年今七十六其子山三尚在

本縣為吏云仍問彼中事情則答云自皇帝前年南狩時
時獨止憂心甲軍擄掠望朱丁巨室輒投乃見其義女仍
載而歸一婦掠得之七女子云又問大曼捷子消息則答云
大曼捷子乃倭之別種在東北海中時或出陸侵掠魚
皮捷子地方清人患之歲遣三回山兵樹柵黑龍江邊以防之
漢之養女婚亦後性成而歸故詳聞之云仍言大曼捷兵
器俱備鳥銃尤是長技然有如此而無馬安能遠置也又黃
台言俄羅斯消息則其言似有不能詳知者蓋清人患其
黃台言俄羅斯而防大曼捷子者為之寧固塔故也今云

方雖已得講和而終有以不可恃者焉且中國自吳三桂以後
恥精忠尚可喜鄭克塽及四川湖廣等地兵相繼而起東西
戰鬪殆無虛歲今雖就勅餘警言未已得見今年九月朔撫
密題則有曰金泊先等噫逆犯嚴紀常煽誘謀叛徑石首
縣覓覓獲偽劄篆文印信旗幟解審供有偽總統兵馬
朱元帥在岳州府天台山聚眾千餘宣期私事除檄文武
各官加迎外會同督提將軍密題云：

辛酉十一月正使東原君灑副使南二星書牘申院
廿八日夕宿通遠堡蓋州人任命吉者以雇車事素在鳳城自

言其父母我國宣州人而子之乳被擄而未渠則生於潘陽今廢
蓋州而父母常自教習故能通我國言語我國前後傳人之在
蓋州城內者丁壯多至五百餘名自相婚娶又為結契凡諸
言山之禮皆用朝鮮之制相與會集則不用清漢語且其言
辭動止無異我國人且自稱任生多亦可見其以我國稱號自稱
也仍言蓋州遠距我國之遠與義州隣山相對故登山見之則
字為皆可辨識中間只隔鴨綠一水而已云仍問事情則南方
既已年宦尚可言身故之後其子之信與吳世播同事為
其母所告後已決法可喜家屬今皆移置於海州亦可喜

之子三子七人妻孥子僅指步至數萬口家財亦據移故陸運者數千乘水運者數百艘且可喜已於二十三埋葬以用之棺產於廣東而遍身皆有孔雀文故謂之孔雀木價直千金云

十二月十四日朝飯於東關驛路左山阿舊有吳三桂父墳自三桂起兵之後清人掘去其墓碎破碑石守塚人家只餘墟址且聞三桂入陞雲南之日載父屍而納此乃虛塚云

二十日宿於豐潤察院有自北京來者言清兵自六月圍住吳世璠於雲南八月世璠窮蹙自縊死今已傳首報捷南方盡為平定云且言吳三桂之子為順治妹夫曾在癸丑年款於

身化夏菽覺被戮之後其妻及幼子函鎮宮中矣南方乎
之後而已益殺其子將於二千鎮教於天云云

世言所過彩亭橋枯樹店遙望西南有若雲霓三狀若
有若無乍明乍滅蒼茫雜此石以謂薊門烟樹也前此
以徑野無一樹而到此則雜樹杏羅望中野濶天低故其
狀如此又過螺山店朝飯於鱉山店道逢清人駟車者無至
千餘乘橫亘道路或載妻孥或載財產而車轂相接使
譯官問之則乃是南征戰戍之卒也今日南方平宜撤罷還
歸而前后戰戍至於六七年之久故買妻畜產仍為居屋

而今始撤還云矣

廿三日到三河縣宿問舍主人即甲軍南正者也使譯官問之則
兵興之後即赴南正留住雲南八年矣去八月吳世璠竊虜
自縊之後南方已定故今始還家而赴戰之時尤及子與之
同姓矣並陣亡渠獨生還云且云雲南之人善放火炮故清
人多死而蓋其炮以紙造成體小小猛而能多殺人故吾軍
多生還若如朝鮮以敏之炮則吾軍必不生還云頃年地震
尤甚於此處及通州故城郭人家盡為甬頽云
清人之調用為兵者只是清人及我國前被擄人之子支而

通謂之滿州人戊午所得遼民于支則殺其壯丁別為一軍
謂之烏金超哈翻以我國音則鳴作字真稍虛烏金者
長養也超哈考軍兵之言長養遼民以為軍兵也甲申
以後所得漢人謂之蠻子之屬軍兵自大明永泰三百
年之後清人入中國時亦無屠戮之事而既之屬軍兵各
自安居自生自育漸至蕃盛間闐操地市肆接連車轂
相擊人肩相磨不謂既庶矣

正月初日詣太和門百官參謁訖始引我國使臣及琉球使臣
躬禮於殿中罷後皇帝即為還宮朝參之時外國則家

古諸王二千三人及琉球使臣二人而蒙古則狀白之獐悍尤甚於清人與清人相雜而紉禮琉球使臣則班於我國使臣之下觀其狀白及衣冠制度則一如倭人但不剃髮以黃綾帕裹首矣使譯官書問其官爵姓名則正使毛見龍官居耳目官副使果邦翰官居正議大夫云問其土俗則為與中國一秉而國王常服紅衣著紗帽云矣琉球通官福建人謝宣為名者隨使臣同坐觀其為人頗似伶俐使譯官探問則以為琉球使臣之入來今已數月而清人索賂之已故歸期尚未有定未知貴國亦然否且曰耽精也在福建時甚得

民心故精忠被執之後至今追思不已清人之侵虐日甚故人皆有救散之心且鄭錦擁累萬之衆入據台灣島今刁蓄銳俟時之久女為動兵而福建為其初程此甚可慮云矣

二月初四留玉河館移球使臣未接於提督館通官謝宣無隨使臣未寓相距只隔一牆欲探賊精由及鄭錦事情而彼此以寓之所盡為堅鎖使甲軍把守不得接面故使譯官密為通書問閩越事情則其答書曰康熙十三年三月十五日耿精忠起兵於閩中殺總督知府等官使其

將曾江二人為將出兵浙江江西二路與清兵相持之際鄭
錦襲其後興章泉三府盡為其所奪矣十六年和碩康親
王帥師至閩精土復為投降仍為以執和碩親王與鄭賊戰
於烏龍江鄭賊敗歸台灣故福建之省盡為平定乃今總
督姚啓番撫院吳興祚乃社稷臣也撫摩得宜而但少幸
處變亂之後風俗小變云々又書曰鄭錦事情則答曰鄭錦
以據台灣島地可甚大而土瘠人稀油麻棕鐵木料全無
正在福建之東相距五千餘里島內兩山相對山頂有兩城
內有石橋一座過此約十八日無人之境乃是鄭賊以居自烏龍

江戰敗之後擁衆三出而與日本相距一萬二千餘里云此則
不侵得之通譯者之言也知其信也而但不侵以琉球地方并
之則其言亦然矣又曰台灣於色悉臣明制前日福建總
督姚啓番送書招款則其答書畧曰曩者祖王教以禮
又遣貴使列馬二君臨達委曲幸甚……然不侵竊怪魔
下未諒不侵之心而猶泥俗俗之末議也頃者思明之役自
以報盡而還北戰之告沈舟帆以指北極高遠東至東瀛所
地之可以開老所處之可以聚兵云云且曰自先王以玉不侵只歸爭
比削髮二字而貴介以傳又述前日之套後削髮之空談

尚可謂智者之論乎惟我東寧別名臺灣遠在海中不在版圖之內商賈輻輳人民滋通王侯因吾以有衣冠之盛工輪于宋去未敢遽比於太王之遷邠而生聚教訓亦可以樹千萬世不磨之基業此皆貴介以目覩者之倭向慕于爵號而貪于疆土為此削髮之舉哉貴朝猶未深察遠遷海濱之民使男女老幼共其生業此何意哉倘麾以以蒼蒼生為念俾遠故地使男女老少得遂其生而貴朝亦可需數萬之金錢以實仁人之心之倭亦同此懷也縷、賜言惟麾下諒之之閩中先人皆言台灣中有大明君子之避地在彼者故每次檄

文書信皆彬之可觀之讀此數語信乎其有文人在也云之又
書曰琉球地方及凡俗官制土產進貢之物則答書曰琉球國
王所居之地為中山故自大明時封為中山王外有三千島屬
其管轄內有南山北山麻姑馬齒等諸山而七能盡記官制
則國王以下有三十六法司三十六紫金大夫三千六長史又有耳
目官正議大夫通議大夫都通事等官而亦七能盡記法司長
史紫金則執政之官而其餘則皆牧民者也地方則比福建
一省之大而土瘠人稀惟事五穀凡俗則類好讀書而尤長於
詩經且奉佛法尚玄教土產進貢之物則硫黃一萬五

手斤馬十匹海螺鈿三千紅銅五百斤金罐一介銀罐一箇烟一
百匣金靶鞘腰刀二銀靶鞘腰刀二蘇木一百擔螺鈿茶鍾一
百箇而礪黃及蘇木留在福建庫其餘則皆解進京矣自
福建明州梅花以開順乞之七日不到與福建相距八千餘里而
去用東南乞未用西北乞云

十五日朝飯榛子店聞有自北京來者言陝西提督趙棟棟
及馬保之子今乃起兵故清人將於晦間調兵往討云蓋趙棟
棟則原係吳三桂部下之將降於清人，用為陝西提督
矣雲南既平使人招之則棟棟殺其使者據陝西起兵馬

保之子則留在貴州聞其父為清人所殺據貴州起兵云
二月三日夕宿遼東。人魏世隆方為奴酋墓守直官以事
來其家使譯官問白皇帝性兀刺地方之事則答云白皇帝
祖先之墓在殷登城此與兀刺地方相之故拜墓於殷登
仍為射獵於兀刺地方云仍問殷登城在之處及性來
道里且問距我國多日程則答云自鳳城歷銜佛寺矮功
簡場到葦子谷五十里此處有人家自此抵家吟十五里
而有人家又過栗家拘可抵殷登城此乃奴酋祖先自靈古
塔移居者也今則改名老城有民家二百餘戶甲冑百餘名

領將三人而十里許有崇德祖先之墓有守護甲軍二百餘戶
過此則家兒庫飛牛陵三家日地共計百里自此厯麻八家子
抵趙稽力共計五十里昔有我國人趙稽力者居此故曰以名村
云過此二十里則為鷹窩谷設柵老守且有守直甲軍自此陞瓦
刺地方矣過此厯清河耿家庄方抵開元寺共計百餘里此
處有民戶二百餘家甲軍百名領將三人此地是在瀋陽西北故
瓦刺及吳古塔蒙古等地皆自此陞來云々
三月初一日陞見遼東及白塔寺塔在寺前高可四五十
丈上生雲霄以軌魔築成八面刻畫八卦及佛像寺僧云

此乃漢時所建今幾數千年而明朝嘉靖間更為重修之
見永昭寺此乃耿仲明願堂而其子精忠等所修也精忠雖被
戮其弟昭忠聚忠兩人皆為駙馬故寺亦賴此而不廢云矣
去正月二十日在玉河館時聞閣部大臣及都察院科道等
官會坐議劾耿精忠夏國相等二十九人與吳世璠同謀之罪
精忠等二十五人皆置極刑其餘李學詩陳起蛟等系是
文官手無兵權情有可恕並減死給蒙古及八旗為奴云
丙午十月正使許積副使南龍翼書狀孟胄瑞
十月十日朝飯于耿家庄有數十漢子及衣羊裘簇擁而來

其後有一女人車載自言以慶昌君旁婢子年二十二被擄而
來為耿仲明庄頭之妻以事往返北京云而仲明之子為駙
馬於北京遼東乃其食邑故多買藏獲生送在土其衣羊
裘盡是福建人云

其五朝飯于連山驛主人之妻生拜叩頭自言以昌原產首金
姓人之女庚寅錦林女入耒時以侍女隨耒而留落之後嫁與
漢人居在該地云而語音未莖亦忘本國之言矣

其到中前所止宿間家未至中前以五里牛馬被野間之則
吳三桂之旁三鳳之以蓄田云

十月初一日到永平府止宿察院釣魚其臺在城南數十里許以
勝地見稱有秀才韓孟培自稱釣魚其臺主人韓御史應慶
孫而頗解文字畧言彼中事情以為十三省則混一已久而
關外則視同本土歛民之過二錢銀關口則至徵二兩人之聊生
且四輔政廢設庄頭自通州至撫寧多至四百餘處占奪民
田周有紀極西捷甚強威名雖未真其度索貨也一日給銀萬
百一年以給之數直計三百二十萬兩云
初有朝飯于野鷄坨主人趙妍即以飯為業考問彼中事答云
南方則以是二柱留鎮之故無兵革之事而但滿人必畏考西

獲日多憂愁食不下咽云問西獫狁家志乎大明子孫尚
有餘存者乎衣冠而思田時乎谷云西獫狁即蒙古明孫如落
花漢儀長思想何時變中華頗有悽感之色

初七過漁陽驛崆峒山朝飯于邾均店路逢載十於橐橐者
間有女人或駝數駝俄有羊數百頭先導而騎駭馬挿羽者
分四隊而來後有金轎擔以金矢轎中之人寒帷露面泣者有
百餘騎女之乘馬者亦十數臂鷹者甚多而輿幕之載駝
馬者又不知其幾許巨若呵辟謂使紆卸轎使譯官問之順治
之妹為蒙王婦者淫返北京云

初嘗朝餽于夏店路逢四輪鐵車其制甚大以載之名高而數
丈微成獅象樣子望之若丘陵然即輸送于順治墓墓者以曳
以八索六索而在一索用驢子十頭駝人倍之有衣錦請人駟駝
馬領去其餘空車載絨索者相望於道矣

十三日四輔政五倍以上里欲問之病於金萬直求見甚急乃直
與李一善偕往則輔政頗有致款之色說話甚多先言上
後平召次問三使臣爵秩姓名仍謂西子年近太宗帝性未
爾國風土甚美恰似荊州但幅圓之及於荊州之且曰荊州是南
方要衝之地曾於經營南方時渠為元帥累年鎮守之

曰徐江都乃天險非告守之地其時告律之人何以處之云而至以甲子廷造之事有以探問云々

世七五更具冠帶詣闕威儀序班一如朝參蒙古十五人又參而班坐於臣等之下而前者已去此是繼來其為首者服席皮衣以錦繡飾緣矣其中有稍解華語者使譯官金興翠問之與前者各在異方前者即大朶顏以屬而此乃頂朶顏以使也使譯官金興翠更加探問答云蒙古今為三國一曰頂朶顏一曰大朶顏一曰山朶顏其餘近塞底部部落盡屬於清國云問三朶顏今皆臣服於大國乎答曰吾頂朶顏即大元之

之後也雖附於六國猶有帝號六奈顏服於六國甚是見親
而山奈顏自恃兵強元無服臣之事矣問徐頂奈顏既三帝
其國何以臣事於六國乎荅曰北京亦吾國以有而見生老舍
五百年六國既有天下何不一服乎問然則山奈顏何以不
乎荅曰山奈顏一名双環獐子據險自守雖以上國之威不敢加兵
矣問奈顏中亦相戰鬪乎荅曰吾國與六奈顏亦相輯睦惟
山奈顏每相侵伐矣曰三奈顏如何荅曰吾頃奈顏在而
六奈顏在東山奈顏在西矣問徐國與山奈顏道里多乎荅
云本國以都在烏龍江之北與山奈顏境界多至四千里程語未

竟季一善准生於禮而得畢說焉

十二月初五日夕到三河佛寺止宿有儒生孫偉世者略言時事曰即今天之一統永曆亡於緬甸之後明朝子孫無復類且順治初猶有嘯聚之盜之日法制嚴酷更無竊葬之事唯是四輔政貪黷食日甚廣設庄土民不聊生為政如此何可久也縣犍日益強盛故清國歲給至於三百六十萬兩之多雖以天下之富其能支吾乎

庚申六月正使青平尉沈益顯副使申最書狀睦林後七月初八留宿藩陽聞清漢以傳之言成都勝捷之後赴戰之

孝翁有還歸者而死。上過平戰死者各給銀一百五十兩。或死者給二千兩以旌恤典云。

其日宿永平府首譯安日新等苗得自二月至六月五朔密執事南親王生擒祖澤清父子縛送京師伏誅澤清亦壽之子也將軍吳之茂押解未京云。南方捷報連續入未保密階州成都四川夔州辰州銅山厦門全川貴州洎為等處皆已克復。或多兵而勝捷。或一戰而投降。云。清將之戰亡者清兵之淪死。或中砲而死亡者亦無數云。福晉密題朱天貴劉國軒雄長海上遣朱克祖等招誘天貴。將滅天貴。

之得大有關係云將軍蔡密題吳三桂之孫世璠今已病故
其衆又推吳應期繼任云，四月廣撫密題領卒滿漢兵進
勦太平府至陀陵縣城賊將大開城門蛇蝎蚰蜒蜈蚣大蟻異
虫泛泛出湧出俱有氣翅上有十數條競撲我官兵咬傷二
千有餘馮永乃城內事閑好異云，京城通州地震殆無虛
月一朔之內至於三四次而亦之區於倒塌家舍三四月間多城火
災亦慘瘟疫大熾每日人死之計其數云，湖督將軍獲故
明朱三太子護送京城進見皇帝，問何如早未接見曰所
在外造謀妄紉太子答曰我與皇上無仇我們天公告之偽寇

聞賊皇上得子闖賊我本念止要修好皇帝親領太子周覽
宮殿處之可爾不知太子之說明又曰明季宮院事精而
一、說明皇帝甚喜欲封王太子亦受又要朝曰造庵觀
與太子之家修好太子又二月在朝曰言我無顏在御內願
處於外居之或三日一次或四五日一次召見賜宴問答皇
城後門外土城關地方修建自是卷與太子修好其居太子言
予皇帝赴昌平州拜謁故明陵寢祭畢大哭即回卷開
之令人見之令明朝內官十餘人侍左右日給米糴油塩菜蔬
炭房賜道衣道冠之令剃髮太子周娘之生年今四十七歲云

清皇召欽天監進內庭夜觀氣三日奏山西氣旺又設香案
禱于天地書陝西山西河南北京四處今北京地震不止若或
遷都某省為可禱畢清皇親自拈究亦在山西故有遷
都之意召諸王自勅都統固山大臣等進內密議數日中
止云

其云渡通州江術艦迷津間有彩舟之上心板屋載婦女兒
童而設菜田於其中來自南京云

其云王河館首譯等言李一善謂渠等曰意謂女多亡八月
間當為不素何如是冒熟急未也渠等答曰陳尉謝恩固

之所稽後且我國有送愛兼有陳夢之事故比速登程秀
一善巨昆曰嘗以苦熱急速乃素心甚多將乃有是事而然
也聞素極為驚駭比達者誰某渠等歷數言之一善巨昆
曰柵之凡中前後未比之時多有棍肆之良之多尤但備寺以
知下誣之時柵憤其工如意至於比賜宴宣工勉受且於紛
路辟人筆亦放恣無忌比處方臣莫工為駭矣大憲曰向年
慕華館餞宴時柵倍巨 國王之後出入行步少無如謹氣
色騎昂倜若無人備等其時工慙痛惋如比之人豈無如
比之度乎

以明初二百餘年三善之末館以傳其學官安日新等四人
以庚戌年轉收於中書館以庚戌年所書之書以爲其
時其地其用傳其學三帝謂耕者用國其書於遠應於虛假因
百姓薄之得野望之精其爲耕者遠應強之耕而於虛假
其稱云矣使甚等必爲面而刺其書也但於期已迫之暇遂
留五物未初之書而見其書長及爲生去終上得相見親曰
初三日首傳等未言口全友國志之言耕以使其臣之未嘗歸於見
於乾清宮後侍從於外俄而罷出耕者後謂之曰臣強之
說之得傳播於館以備以未聞之事如是言說殊甚不可怪云

西使首譯安日新等四人請表張孝禮表館中官與司
德同坐譯官安日新韓錫祚全時徵李慶和亦在傍心
授手持政院日記騰書者於孝禮曰乙卯表甲申祭勅使三
時遠接度以司龍中表禮曰其致祭二度三出於汝則汝
表與今番三國使數祭三度事三序以爲勸解以先國王有種
等跪酒三詣禮畢各表誠以吾國有受制於強且事有以得
自由者及此三表禮三表誠以賜祭二度及持用異典
云云表禮之言樂如也望守禮禮表誠以所祭祭安事禮節亦如之
際固已知之祭文中人以無以言滿尚方說通表又曰汝若無

所言則遠接使泛向得聞而陳達於。榻前乎孝禮自
呼其名曰張孝禮雖甚無此性未彼比之間曾無一言虛妄
如此者千之言豈生於口乎中間傳說者或托吾言而傳之
耶此則吾所以知也又問曰然則受制強臣之後有不生諸口
乎孝禮曰不記何年皇帝召見使臣於乾清宮時有兩
班強百姓怨之說雖或聞之吾既不忝亦不尤吾所以知也朝鮮而
班本未昇強吾輩生去之時凡事輒與相抗故曼強之後
如飲冷水到處言之而受制等說曾不生于吾口吾若生去
本國則更當教說此言矣又問曰其時自。上特遣許積

於館以以遠接使以達之問之於汝積之以問如何而汝何
以為答耶孝禮曰許積只言彼中以吾軍稱強百姓愁怨云
吾軍言且不究痛乎此外他無以言矣又問曰遠接使以達之
言於不教問乎孝禮曰終始之矣

世二聞閩先索額番思寵漸疎之自安一路即通宦軍相謂
曰自此國家太平云云

閩有月初四朝飯齊廟遇王姓人自稱明朝武進士年前差
雷州守備為吳三桂以屬漢著冠帶考其日清人剋漢
其地故去年八月得還云問南方今已平定與否則答以雖

云平定其其實未盡鎮定尚今相持吳三桂去年八月身死丁
寧云之宿永平府察院首譯軍又得七八月兩期密報平南
王尚之信自縛其首願未京候審云之廣撫題中順德縣
耳村有賊取四十餘隻擄去百餘人南海縣三山村被賊擄
去五百四十餘人浙督題中劉天福率眾招賊云之將軍
趙題中思南有越邊流龍江有賊馬定等領兵五萬密列
火砲山險水深不能進攻云之簡親王題中恢漢柳州招撫
馬承蔭云之陳奏謝恩云之精南王耿精忠陳良顏得傑見
自益藩茅精忠屍首收累未京云之兩廣全題中恢漢

象州云：

丙寅二月陳奏無謝恩正使鄭載高副使崔錫鼎言狀李整
其布論會寧嶺山勢峻險路通山腰回折內外重複
渡江以故初見之險嶺如下嶺至平如泛水上望見有石塔
屹立山頭問之則名喚盡蘇文塔云唐太宗之東征也為
蘇文所敗馬陷泥淖中僅而獲免蘇文欲誇示其功建
塔于此至今此地人常指塔而語我台高麗伊時極可怕云
三月初一日至瀋陽城外改服入察院首譯張焄未言到此
聞絡車群息則上年六月水陸並進圍住艾湖七月生擒

貉車七百名皇帝命詢其情願只留願附者九十人置之瀋陽餘皆遣還以其言語互相通擇其獫狁中稍解彼語者如直官之例以為傳直語言之如安將軍珠湖為名考專管貉車匠討之事而曾已革職匠軍矣以今此生擒貉車之秀渡封貉車平定將軍云方曼捷子乃中國人稱辨貉車之語而貉車是其本辨也曾聞江西人郭朝瑞配在周沔河來此聞之則移來此城南門外設館教授云使人招來願識字可與語書問瀋將所領地方界限及軍兵多少則書書答曰自山海關起東至鳳皇城南至開元其兵數止有二千武

官之過百負云又問大鼻地方遠近歸順與否則曰大鼻去年正服者之過近邊游卒耳其種類甚衆地方甚遠今渡大鼻入寇已修城三座又將清人邊內地方侵去百里云初四渡周流河譯軍言頃年白皇帝性寧固塔時由此河渡欲試其強令于自麾旗泛舟將卒一齊投入水中死者無算云昨今途中多見車載男婦器皿或三四車或六七車陸續之絕問之則是吳三桂部以人民配遣艾湖者云郭朝瑞之子名垣者居在此地自來請見其為人頗似精敏曰康熙動靜則曰近來康熙色荒金甚遊獵無常其志氣亦甚驕凌

每輒擢大臣問獫狁子葬息則其言與其父朝瑞所言略同曰即
今所討之將姓名及防戍地方在於何處則曰去歲所討方島之
將軍林興珠係平西水營將軍向曰有主投清後以有勞委
任今職去年所服獫狁子已召進京止有滿兵數千在汗邊外住
防如故今獫狁子漫熾聞京中又欲遣興珠禦之未知名否
問蒙古葬息則曰清人已將女許配黃台吉之子其子去年至京
康熙待之不止金帛兼大為揚兵以壯其觀又聞黃台吉前在黃
草坪名為牧馬宴欲揚兵西寧提督孫里克聞之大懼清人亦
待之甚勤黃台吉即蒙主名云問平西部下人民配遣艾湖事

則曰投誠家眷在京住者甚多清人無糧供給量給守糧房
價田具等物接此丁六百名千總二十人隨帶家口往艾湖安站
云問鄭錦子孫有無則曰鄭克塽業已歸順其子孫兵馬
在島中者甚多之聞清人欲開海汛邊奪市利是以浙東
沿江一帶地方重修堤堰以費工下數百萬但派之民間云
十一日仍留小凌河在崇禎末祖大壽鎮錦州其尾書大身
守松山大弼守杏山大成守塔山為犄角之勢與清人歷年
相持松杏塔三堡卒為其陷三人俱死之清人憤其堅守
皆烹其城郭至今破壁殘堊有之忍見者

十三日至寧遠南止舍于間家城門外人戶之區一千四百餘戶云
袁宗煥來鎮時清兵圍陣於十里外數月之敢之宗煥得示
會盡收清兵分入四野斂陷城之際十里內以設地雷砲每俱
發清兵全軍燒燼其後太監高起潛與祖大壽同鎮自本率
至山海關各堡城郭與其炮臺皆以細鍊石先築七八層又以軌
磨充築之壯固堅緻迄今間有完全者伊時本率留鎮之軍騎
兵十六万步兵十二萬而騎兵八萬而騎兵則出城野戰步兵則
賊至守城故終明朝之世得以保全至甲申北京陷沒之後大
監高起潛軍門方一藻去城去仍致自潰高起潛性廉潔

一芥不以取諸人雖常俸不入于家盡歸於軍需烟燭等
後我國使紆陛來時例贈禮單人冬亦皆不受明已汲寄
寓於豐見華寺清人高其廉節而招之去赴買舟潛往南
京不知所以終云有雲南人劉君德以吳三桂部下官配在城
招素相見略與酬酢問及時事則只言清之刻毒云真正滿
人之所覺難以度日云而至於大島健子正討葬息亦後之
詳聞仍與之論文與副使論雜易義數三處應口即之初
若子與而運筆若飛文理可觀但其為人雖有文彩似多真
字為可惜也

十六日留在東關驛清譯金澤與護行錦州表甲軍中
自寧固塔新耒者問答之際渠言有別種尤漢尤滿者居
在朝鮮北道境外近海之地其制髮衣服略與朝鮮同樣但
著短袴僅止被膝常騎有角獸似鹿者云到關後譯官李
芬適逢秀才問及此事則答云只聞北邊近處有騎狗別種
未聞有騎鹿者可見北邊荒絕之地有許多種落如朝鮮
廿五平明發紆由西門出自內城至外城後過五里明驛中為塞路
輪蹄如束緦尋隙路辛苦出門臨淄轆擊有角獸云其者由城
外有倉舍不知其多少間繚以周垣勢甚高此其下層通以管輸

乃其倉百官廩祿並自此予給故給祿之時則實惠之
例如此云至八里店朝飯平野左右十餘里以間塚墓相繼
區分築牆以圍塔砌俱極侈麗而至於墳塋則或以土築或
以灰塗並以月沙草蓋其俗大都然也乃東嶽在陝服之域
例以而人馬雜出填咽街衢勢雜喧嘩廟門之得已入越邊寺
門則內外人衆簇立亦甚紛鬧蓋此地民俗例以三月初一至
晦日燒香祈福於此廟男女果集故如此云其冠如入朝陽
門之冠皇城東門也由大街而西渡折為南渡王河橋河是通
州所墜金上通大液池者也到館之宇以新修之甚陋西既亦以以經

一路所聞見者言之。如堡則關內漸盛而越加稠密。烟甚則
關外甚密而俱為廢壞。過通州以後則四十餘里之間閭閻不
絕。烟火相接。民俗則男女俱穿黑衣而制度甚殊。女亦穿
黑色唐袴。但上剃髮束之為椎髻。男下上用負荷而口長
木懸物於兩頭而肩擔之。至於樵汲男皆任勞而女亦與焉。
馬牛驢騾俱善耕田。皮穀磨碾亦不用人力而駕驢回轉。短
人駝策而終日少傳真畜物中別種也。喪服則新造之人著
白衣白巾。或有穿黑衣而白巾者。或有終二十四月而口穿黑
衣者。元無定制。任其自便。運喪則安棺於板上。口長杠以楮

縛結棺腰用人夫肩荷表者持白色如旗形者前導以深堀
埋葬而安於地上積土而覆之其或有方者用石以塗之棺形
如舟上高下銳雉落道路之間矣置者居多以謂穴多矣者
則置棺於野中不用許多薪木只束火燒棺一頭及至熾發
須臾灰燼極可駭恠祭祀只清明冬至二節掃墓云村落之
中必設廟堂雖數家之村亦皆有之或塑像或畫真其并
皆像閔將軍其堂宇之侈儉雖殊崇奉則一樣

四月初五日詣東長安門外有下馬碑碑在于北門外碑在應天安門端
午門由右掖而入門內有禁川橋橋在山有方和門是清皇御座之

其儀仗鹵簿鼓吹皆設于橋北百官分東西序坐于橋南通官
列良等坐于西邊亭二紉之志即二品班之儀而有拜如擊手鞭狀
連有響者云是警蹕也清皇出御于門中江稱御座狀如黃屋坐
見時有動搖狀而遠之有下禮畢清皇乃內百官並罷坐道官
引良等由禁川橋上坐午夕之外有別象八頭分左右滿身無
毛身多垂地而坐唇邊長可三四尺極大而末銳目甚小跡蹄禿
尾高過鬣丈許三三動直數中絕大之物也
初六譯官金揚立言大鼻地方出軍事問于甲軍則兵二
千四百名而皆以前日做官被罪革職者勒送帶去馬七

百匹橐駝五十頭云又言有馬回子者原住江西地方先
死其姪代領其衆所領皆是步軍今已移了作梗且言
三桂外甥逃在雲南山上募兵二歸順才議一併征討而
時未得當兩處軍兵皆是步軍而並持弓箭砲銃鎗
劍等物器械故最難抵當云

十日金揚三覓來正三月通抄正月二十三日兵部
題二度一呈為提兵黃符興等係鄭克塽下人自率領
為官七十五員為兵五百二十名駕舡十隻並繳到偽銅
關防為札器械前來投誠事也一呈進賢縣令潘州城

守備努溫太帶領滿漢兵丁看守有偽摠兵黃浩領三千
賊兵豎掃松城乃射箭放銃滾石擊殺事也此等題本
觀之可見江南地方之尚未寧靜矣

世止宿廣寧有雲南人田生琦者配在此召教授童兒招見
酬酢之際問及級中事則書答曰目今西胡出境林之地秦地
亦有兵動摠不知的確云又問西胡種類秦林之兵動事狀
則答曰以謂西胡者即與今之小虜一類也但有西山之異耳其
實西胡人類衆多兵勢強大較小虜為猶甚耳至於秦林
兵動亦聞有未浸之乳今燕京已出兵禦之未知將來此

河形勢耳云々其以謂西胡者即指太極獫狁子云
步五止宿瀋陽郭朝瑞來見問及近事則言答曰蒙古黃
台吉近在山西邊口牧馬耀兵有窺犯燕京之意清人屢
領恩賞雖受其賜仍出之邊之言至今尚未退去又雲南
土司已叛有鎮守雲南蔡拯督素提督不能取勝已數次
告急於燕京請兵援勅云劉君德自寧遠移館于此城亦未
見言滇秦蠢動京中發兵云問滇秦之為何地則曰在滇
自係苗獠在秦自係西獫云

庚午六月謝恩兼進賀陳奏使全城君濬副使權愈書狀金元燮

十六日朝裝鳳城見城底人家設瓶花帳幕有新禱此問之
則曰為久日祈禱雨云

廿五到瀋陽城觀市中指擲之制亦甚詭恠或灑金銀或以
真彩畫龍獅禽鳥尤可駭也

廿六仍留瀋館中康熙畫憚台告糴子月賂銀兩者三萬以羈
縻者殆七旬許於四月台告糴與前以中明一年甲月裝
兵之說相符康熙遣將軍率兵以禦之前後調裝殆五六
万昨日又徵瀋陽盛易海等州兵三千而令瀋陽者統將軍綽
爾托素初台起程領來今日晡時又徵安甯宮甲卒一千人

而今曰官人有器配其地者為將自效云羽書續至傳
說涵之有禮部主事考有以求而未得者以而言台言兵
象如河海之無言無限量也且其狀貌猙壯砲藝絕人
其百戰也須歲為三桂據有天心之年其兵力固強矣康
熙連年生師挫之亦敗劍而清人益益夸張未嘗示人以弱
今若台言獨有湖之怖之色

其不渡巨流河留宿日晡時路有走馬過者使台官可也
則曰為喇嘛漢軍等地徵兵急書兵部即帶來未到十三
二疾兒不能約備以本站千揔受其書督未云台官中只

三種旧僚郭朝瑞遭譴屬此玷使人要之則其子垣先至臣
以數句謾語以筆墨酬酢知其意無他乃書示曰台吉地
方與清都相去多里聞台吉發兵攻蒙吉別種喀爾喀
爾喀不能當請援於清故清今發兵遣救云然老書答
曰台吉久已開科取士志在中原去京止得數千餘里今攻
喀爾喀無如借清人之救援以圖起師有名耳臣又書示曰
台吉設科亦有業詩書而應其科者乎答曰台吉取士中
原有才莫展之士性情希晉臣又書示曰中原有之士性情
希晉果若爾言台吉明是不歸之者安知天之心於不歸

此人且聞台吉係是明朝遺裔此說果否答曰人心惟不歸
此人奈烈日熏蒸何大明遺裔久聞此說不知果係的教
吾後又書示曰然則今台吉果不終為天之憂乎答曰聞台
吉聲勢甚大清人畏之也將來為天下憂且又書示曰
不知中夏果無真正英雄而以服一世之人而執大義於天
者乎答曰氣龍現長安識語久有斯言英雄伏草莽性
之有之但時未至臨期自當應運而興耳於是其父朝瑞
至且書問曰前聞吳王仗義起兵卒不幸去捷先死寧不
痛傷其興止始卒願聞之朝瑞乃書答曰三王曰清人之據

中國殘暴人民又待諸侯刻薄寘息以此忿怒不平遂於癸丑興起義兵伐罪救民之意天奪其壽以致壯志未遂比

乃劫運未除中原蒼生無福使然奈何乙丑王爾登其

屬以官兵冰消瓦解戰亡者被獲者下海者逃亡者遣戍者

王而勝記云臣在是始問康熙發兵狀朝瑞書答曰今康熙

發兵始末曰去歲哈喇谷西捷子九中入京聞之哈喇與阿喇

捕西捷子起讐指即阿魯德云殺阿魯德老王子老王子有兒子

在謂喇嘛即喇嘛為達賴喇嘛謂神僧也哈喇謂余父被人殺死當領兵

為爾父報讐言其出師言期在我擇取大勝無敗是以去年何

魯德親領軍屬官兵殺喀爾九軍中人其兵敗績虜有
牙遺目而投奔庸人救命兼請兵伐彼漢雙言故今此康熙
數十萬兵蒙古兵十萬以救之且親征擇七月至間起兵
其意一則與彼之家講和如二聽和便協由喀爾喀與阿
魯德構殺二則因黃台吉久有窺視燕京之意且揚兵與彼
觀者使彼不得輕視清兵耳云以歸而以聞額詳臣文書示曰
今中道亦有道學直友步谷曰向無人有入之敢輕出以臣妾
清朝今四川着山湖廣縉山有道學子先生隱居老人有玄玄老
少移居別以德云向人露姓名耳臣文書示曰然則其姓名為

誰亦雞頭髮如胡製手答曰四口喙山林士壽湖廣蕪山王金確
俱皆黃冠道人粧束云

廿九曆新民老道傍立長竿懸斷頭各一蓋竊攘人財貨而
被誅者如懸之大道傍既無人防守者而其家人不敢私自收
去亦可見之民之畏國法也

七月初冒朝炊于松山堡，即洪承疇敗師之地也城郭為
墟至今有戰敗餘痕令人慘目承疇身都上將既不能沫
血力戰軍敗又不能死率投降賊虜直云之罪也暇勝誅
而具勅南之日忍以內院淫坐視知光隆武西復滅屢戮

之憐而決死明虜之王之仁還替薙髮十日絕粒之黃道
周反令屈膝俯仰天地寧不覩面目耶數千古人臣之負國
忘君者亦疇當比首惡歷杏山堡之即明朝提督盧象昇
戰死之山如二堡相去之遠城地大小亦相等而一為偷虜一
為忠臣兩人芳臭可謂天淵矣

初六日朝炊于中右以有永柔人被虜居者來見且為言丙丁
事甚悉且言傳聞台言是明帝遺裔而又有神僧喇嘛
之聘神術畫奇策實難抵敵云

十二日抵豐潤縣止宿于秀才王治熙之家首澤于甬遇

曰有以知漢人於此縣矣欲知小京消息委叩其家則其人
以試官性貴州其子獨在附身言皇帝好樂甚索閱先
得善琴者高士竒以進皇帝大幸之日置坐側以言皆
涉高士壽貴侍傾朝賂遺雲委云

十三日抵玉田入縣城東門、揭種玉名邦四字扁縣本表秋時
無終國也止宿于秀才江象乾之家象乾之父山秀以稱鄉
賢而後享年於縣學者亦觀其狀又觀諸人所美之文若詩其
興學之志治民之績可謂空谷之音然只此小善一藝云而
可躋祀於夫子之廟則亦無辱先聖而累斯文乎象乾自稱

簪纓之族詩禮之家則視以秀才亦不得然善於此而以無頭
短衫對衣冠之人肆氣放言略無忌禮教之攝蕩俗習之
污染良且慨惋但以謂秀才之家以外截然以婦女名者
之出又與外人相見是則可貴也

昔曰留館竊推我國家事 大明近三百年况在壬辰之亂
我 宣廟文王特蒙 神宗皇帝極小救難之息則
我國之得有今日秋毫皆帝力也今來故都去亡年纔
四十七歲左右市肆之惟之改至如會同館字亦舊構宛
然令人目之無顧瞻之但寤歎之慄耳仍念 崇禎皇

帝蓋無甚共德而只緣權權用事威福下移其以謂腹心
耳目者無尤食肉之統禱斃棟之犬豚至於利歸威仰生
君之膏血盡竭賄通公府朝廷之刑政日紊而天下之心惟
矣閭賊久窺畿輔未嘗方長駐雄城巨鎮望風糜潰及至
宣府大監杜勳以帝以寵信之臣至郊五十里尼賊為逆
而皇城之守彰義自啓文武廷臣拱手無策區區之意只
在於巷戰而已於是帝乃知大事已去遂以太子二王分送
外戚家召台主至年十五帝歎曰爾所生我家左手掩面
右手揮刃斷左臂竟自縊於万岁山之壽皇亭自有天心

以來無國不亡而曷嘗有慘烈若此者哉追憶當昔不覺西
返向使帝初不為官寺以詔使用舍得其宜私措得其
而又不使置獄遺戍之罰以及於台忠懇直之士慈詳惻
之政常祐於窮閭單赤之民則雖一朝之幸賊勢甚急亦
何遽民盡難心逐敵正後兵皆解體輒起渡卧終至於手
刃至愛自縊披髮之恠刻亦前所手書今列於版屍勿傷百姓
之語可謂痛切悲傷而亦能補過矣十七年三月告此正書以謂
追之悔詩以謂顛倒之思而亦能補過矣武侯所以能痛思於桓
者以係是明朝故事故敢其附陳焉

世一留館得見搢紳便覽門閣兼尚書者五人兼侍郎者六人侍讀學士二十五人撰文中書舍人五十四人辦事中書舍人五十八人而漢人僅廿餘人經筵講官翰林侍讀侍講等七典簿侍詔脩撰編脩起居註檢討庶吉士並一百二十餘人而滿州僅十餘人五經博士則孔毓孔胤身顏懋德曾身豫孟身仁仲秉身朱仲程佳璠程廷祀東野而然周嘉耀十一人孝魯盛典纂修則亦曲阜人孔毓所為綴裁而毓所兼太子少師龍衣封紉聖台官則崇矣

二十三日留館之外遠近有鼓樂拜司之皆有喪家也私寇之

地極北極去之區禮身之鄉變為悖亂之場下駭之俗可
愕之事已之可駭數而以言四方之本則宜饗食成風賄賂之
物聞遠人之然得郵官者賂五百金於鈐官而已過十年尚
未見差是蓋賂千金者先之以民以目見言之玉書以內閣
大臣同郎中黃茂頭繳賂金於外國使開市揭榜之後以
謂提督考監館門輕重探弄必捧三金於買頭然後始
許入門去今天之安有彌為天子之朝廷而如此而上及於若
以言一人之尊則荒止無道繼然無厭中其生瞬之時率
得一人突入民家恣行淫褻然其猶細故耳朝臣之有

美少妻者輒以事遣去于外即躬就而淫之此皆彼人之
所傳說者也

九月十二日夕抵涼水河祐止宿列台華未見臣問邊報台華
書答曰遙聞敵人殺一國男虜四侍書而回天寒草枯遂收
兵回以聞若十邊此身云仍又書示曰昔年今上中道人朱二
梅有仙名召至都中曰我有心事二爾能知之否若知則已
吾必誅爾朱道人曰太皇太后聖壽無疆陛下國祚綿長上
大喜後辭去留詩曰龍蛇亦復如是馬首動靜莫由之好借
瓦鼓棹好攀明月高樓波遠去多改伐羊猴放之閑然枝

頭少有家色金風西北雜雞絲
臣書問曰此詩意多不曉顧
聞之曰華書答曰少子寧有意見
以謂之好借風二句以指
吳王因慎風而得岳州之岳陽樓也
至庚申而吳王已故曰
羊猴殺之閑然至今十一年矣
所以披頭少有采色觀今歲
之事宜北西北雞絲取以解之
說之未也
是十七日抵廣寧路有羣胡駝以
大車自皇城而來問之即載八
萬之金去向寧宮塔者
也一日秣馬于巨流河郭朝瑞父
子來見臣書問曰蔡懿榮曾
是吳王僚屬云然名朝瑞書答曰
蔡懿係關東漢

人也清人授以雲貴提督克平西有功而竟無升賞及親
其得志勢振惹生事端故調回京坐他事遠配烏喇湏
聞將兵令其立功自效云臣又書問塞外勝敗消息朝
瑞之子垣書答曰彼火藥殆盡欲更治理設虛營暗退清
人之覺及持久之聞群息始知某盡退兵追之及此
係實信也傳聞如云臣書問曰然則台吉終上為清國憂
乎垣書答曰視僚而面中石九一朝一夕恐終為清國之憂
又書問曰孔兵攻喀爾喀與康熙為讐言者乃是台吉而人之
傳說者云曰台吉而乃曰阿魯德何也垣書答曰阿魯德若

言言之種類而曰外追邊戍故別其名曰阿魯魯德且又言曰
曰外追邊戍者謂何垣又書答曰令守邊之邊城窺中原
之動靜以恃以出入者云

等未十月冬至正使李守昌以副使尹以道書狀成傷

十二月初三日留瀋館清人數十軍入館中邀見且等其中薩
達頌色為名者頗解文字勸令作詩則即書示五言律
其詩云鴨綠寒江遠年久使者過物華堪採覽枵腹莫
興歌日月客中老冰霜馬上多但蒙哀痛意小國且息
波觀此述凡句法類佳午間禮部侍郎考送言于使臣要

見醫官使副使軍官以重高性見而漢譯金萬喜亦隨
性矣待郎言于萬喜曰吾之同生兄方為刑部尚書明年
為書畫長白山生性爾國云萬喜曰畫此何為答云此漏於一
統誌故方欲畫生添載一統誌云

初一日渡周添河宿村舍有郭曹瑞者以吳三桂曰福禪禡
居者如前日使公性素之時多有問答說話臣等之幼亦為
來見臣等問即今北京形勢何如何魯德消息亦何如
答云自今海宇寧靜未聞有兵戈之亂海島中雖有吳平
西日水師總兵謝昌及平西之孫而勢力弱不敢出頭所

魯德雖有十數萬兵而不敢與清人抗。德問黃台吉兵
勢強弱與阿魯德何如耶。答云：台吉為西狄之首，其兵
百萬有餘。阿魯德烏敢當乎。清人畏其兵勢如畏狼虎。
每年賞賚銀兩綉段俱以百萬計。名曰勞邊，其家咸直
如問文曼捷子青台吉兵勢強弱。答云：青台吉兵勢亞
於黃台吉，而文曼捷子特小。既耳，何能為也。謝昌及三
桂之孫方在海中，何島而將來，皆懷有為之志。耶答云：
謝昌及年西之孫勢孤力窮，海中島嶼甚多，或東或西，
無一定之居，不可詳其時在何島也。皆懷有為之志，而待中

國有事欲藉人逞志身且云清人兵精勢大而皇帝內好色
荒外好禽獸荒兵民多怨人和以固黃台吉窺覲燕京匪
朝伊夕彼若待時一私事有不可測者此清人之深慮也
城皇陵以清人太祖陵之前歲其宮殿四地肺忽然突起樓
亭俱各傾倒所立碑石亦有墜者今冬十月盛京黃殿口忽然
起水而或如宮殿樓閣之形或如花卉鳥獸之狀鄙人家亦
見子皆已目擊云

十九日過蘆家峯口聞家十餘戶有女人於路上遮挽馬首欲送
馬上以手兩紅色忽急不許呈戲以女人而習此丈夫之技要得

糊口之資甚可異也

廿五日相郊鋪督馬時曰牛家庄廣任漢人丁時標得中則
吳三桂之孫與白帽賊合勢而反故世有犯境之患今至月
送兵數萬以為防守之計云

甲子三月告 計使李濡書牘李著晚

廿五日抵瀋陽城外東北江岸有我 孝廟駐駕時亭基

云吳三桂曰燎郭朝瑞宮屬在此指之即來以文字略為酬
酢問鄭錦所居則乃是台灣地門云

廿三日抵小凌河即錦州前後水合流而下者以浙江來人謝相

信者在此以文字問答而其文之能通暢多者晚可郊錦事
情則答云台灣有龍妻甚好人官法不許殺牛及擄南
朝之人查出處斬之然則火燒殺雞者凡事但聽之龍妻命
以敢擅專云且問人冬慶民俗則以福建之遠但明衣如長
頭髮及女浴手膺上用針刺及女彩花草子又云鄭齊台灣
出屬清朝之知其真寔而去年年間諸京都云
四月初四日朝炊子螺山者之西南一里祿有城焉 朐東富民
味姓人所自築而居者私家而至於築高外之城則其富滑
不知後降云清歲貢白金今其人已沒而四業亦衰云

初七日抵玉河館聞清皇初三日與太子出獵于西山時未還未
西山去以四十里而若然增宮室大苑囿則分撥富民刻期
以成之如不稱意則輒令毀而敗盡民以此益苦取口三獻寺而
姬嫔百人貯置其中歷歲迄連殆無虛月而志士輟食三
百餘人尼姑等悉親糜費其自多之故不以法為怨云
十一日留館聞清皇還自西山永壽言今日自禮部點考
暹羅國形球國安南國與西陽中西陽太西天北西天土而番所
蘭國等及我國官生各十名其所謂官生及直事如博字生尼
公類而在朔三日點考云

十四日留館千永善言通官以為飢饉如此而上下只事也獯
朔月銀兩至三千万而戶部以儲只九千万而每朔
有稅乃之銀而至於正陽門外舖子一朔以收身至万云

十六日留館千永善言聞于大司則茅鹿山賊皆是只云
餘象其將有曰王國先曰黑虎曰郝老秀一則名子記而王
與之已病死郝獨生存山在泗川廣東之間極其深險彼
不生柔此亦不能乃今姑置之云以謂大司及王所館以知三官
而乃漢人云

十七日留館自今日始祈雨祭云大司又言慎汝禱雨于

天壇時自太和殿前跪起而躬直至祭壇百官亦跪起而隨
故多三壇之節而今則皇帝以下騎馬入壇門禱而無忌
則勿令及禱如此而其能得雨乎已壇在正陽門外五里許云
世曰留館闔目早審高官草政考只數人見叙其餘則輕因
得釋云

五月二十一日朝於黃樞堡遙望主人考之天子來寓於諸年
考之餘考也觀其姓似真度故呼使之前語及大鼻捷子則答
云頃年以伐之時染毒嘗性染故審知其形勢云大鼻捷
子居在寧國塔數千里之地亦有皇帝亦有云部地可廣

潤而人衆之處中國之一省人有重鼎而一殺戰卒以三千而一取各
載戰士一百七十餘名全放方砲一發數九如制而用金木不用
寸鐵穀產稷錢用銀幣產猩、狸及金綿蟒龍繡段無產
皮物而貂為家佳產馬而體小谷上好驕人身長方目環而深
鼻大如拳食牛與魚而土得猪上下峭壁如飛言謠則漢
清蒙人皆不解亦有文字若虫篆而漢清蒙亦不曉自前未
嘗服從北京而時、生掠於烏臘江近處如自北京新築城
如曼形前年調送瀋陽甲軍三百五十名以禦之死者五十餘皆
生還而一將亦死其後又送卒四百及糧二万石以為耕沈防守之

地而安殊湖方在新城未知其成否也清人之曾深入心感而
彼或生掠則備禦而已頃者以擒七人則自北京亦不敢戮給
其衣食而得妻而舍之江謂烏臘江有三與黑龍江俱會
于大島之樞子地方大江而新築之城距此江四百餘里云云
南方正伐言渠則年老上得越而其子曾赴於伐鄭錦之後
今則鄭錦已死其孫已降云

戊辰三月陳尉兼進香正使塔方鍾副使徑知聖壽山李万岭
十七日到閭陽驛云云林慶云于慶泰各若編配此地中其以
言則自歎身世恨不如死指點我 國衣冠類有欽羨云云

乃問朱氏子孫有無則以為後裔數人苟全性命流落遠地云
而蒙此漢比雜本土已多年以未知其言之信然也

廿四日發自山海關出城西門路邊左右種柳成行高低如一小
無參差問之則以爲白皇帝有命今喜栽植而自此至皇城
相續不絕云

甲月初七日今日乃太皇太后發薊也清皇與白皇太后妃嬪諸
王五人隨陛而太子及諸王七人留都云聞蒙古部落四十八種
內一種乃太皇太后族屬而今當殞多有來參者且巴陵公主
太皇太后之女也嫁於阿哈捷子在於兀良地方而自太皇太后

高重時素着乃留隨新而台三之子尚七素昂云

初日留館中厄羅思乃大曼捷子部落而韓君東北之隅據險僂強邊上作樓櫓有年比屢被征討二月得順矣及至勢窮遣使請和故曰大臣索額苗及曰曼丹終永年寺今以訓諭之意亦命生疆而亦慮意外之患領兵五千人偕陞云

初九留館中請皇室通幸宮姬子女姓之將之數十而太子今年年十三而性英敏自究音善射且好讀史云

十八留館燕都形勢參以聞見則西峙太行南連中原東有

山海以枕居庸可謂金湯之地而但蒙古地方相距不過數百里在明朝數被邊患者正以此也至于今日蒙古諸王以外藩待之皆領重祿而巴侯台王雖在遠地亦俸台王之子樂驚無以清白皇志甚畏揮將以台王之孫為其女婿云此可見拘牽縻係之意也

北一日留館聞黃台吉乃太極健子而僻在西北之陲距燕京三千餘里也建其國號曰大興子孫相承改元者三曾以和通示此稱之到今稱謂文治去年立政達官欲遵明朝購求漢人登庸崇班人皆爭趨惟此或後以謂文治自稱大明英宗之

後裔而為清皇志以畏憚待之以九事之義我歲贈皮幣
珠玉矣及至今日又治哥落中滾占為號者稱以吊孝
多率管下五千餘人素抵甘肅地方將有進京之意不
得已聽許而只使滾占并其頭目進來以帶人馬仍留邊
上使之守候云等念台言之彌部部落寔繁此如吐虜諸
部之通稱為蒙古而謂之大明後裔者未可曉也西寧提
兵密題及皇帝詔旨令首譯卡爾邁購得且太皇太后奉
養喪之前已倭台王先洩外藩皇帝恭養怒令宗人府擬罪
祿俸減半云

廿五日留館聞台吉部落中庫古諾爾及巴圖魯等以居之地距寧夏地方之遠而越界搶掠無以之至故皇帝令寧夏提督率管之總兵移鎮西寧使之防守邊界以杜後事云
廿七日留館中清皇昨已還都而蒙其出入之際儀制未設警蹕王張以謂鰲數十隨紉云鰲云我 國宣傳官之類也
五月初二日臣等奉明詣闕拜受例賞中達賴喇嘛國乃是僧人為蒙方酋長而距北京道里遼遠陛返之際費了數年故五載一入直矣今以朝貢來到而參領賞之亦坐次居臣等之先而服色與蒙古未仕者相類矣

戊辰十月告 計正使尹世紀書收金洪福

十月初二日留館目譯軍聞之清皇甚喜後當往南京觀會太
湖等處云且聞西小捷子阿羅斯與東小捷子喀爾凱相戰
蓋阿羅斯兵馬極強且多美女喀爾凱則地產良馬故互
相奪掠以至用兵不解七月間清皇北巡其地遣和碩康親
王領兵救喀爾凱阿羅斯自恃兵強七月退兵彼此相持原
親王問其士馬疲勞無勇以聞諭兩國休息軍兵之意題
本得請使多國講和後回軍而阿羅斯亦令其當入朝云
初六日留館目譯軍密聞西小形勢則大興國主名亦法圖國

師名特布大都督名右忒巴陵台王長孫巴右巴龍衣王爵台王
為四十八蒙王領首居在瀋陽西小五百餘里甚為諸部所畏
服其兩子亦在罕王之列清國以之王為諸部所效且以太
皇太后之故優待備至且許其孫與公主結婚矣上年表
清皇以太皇太后之表台王徑先通計於諸部之故將款罪
之台王詣闕待罪皇帝督令還歸於未葬之前台王以此
心懷怨憾上奏辭婚清皇姑賜旨准而太皇太后尊崇
後頒詔於四十八部且以白金四十餘萬分給諸部則多有
順之言台王密奏此狀外示誠信之意云且台王言獐子一種

在甘肅地方立國建邦將有難制之勢故清人君子賂金帛
以為羈縻之計其稱皇者是 天順皇帝後孫云而
英宗皇帝亦將時以先歿其妹 帝終以法推之為
以是斥詆之說矣且西寧提督李方述奉旨以金帛賂遣
台吉之人心有不滿去而多受穢氣甚寤方述多毆開誘亦
不聽尼故將斂治軍陷龍峽之際台吉知身先遁方述擬
回奏以時當未秋天旨向塞軍馬凍死者甚衆請姑罷還
清皇諭以待善合兵進討云

二十日自通州發杉檣車七十餘輛絡繹得於道而皆貶熊虎獐

鹿等數使譯軍問其去處則皆自關外進貢京城者直
逢胡將一人威儀向東而去使人問之則以汗墓焚香題名
奉勅出去云夕抵三河縣城郭間舍甚凋弊知縣姓名彭
鵬是南方人曾為鄭克塽所劫而終守志上降故冬間皇
帝留宿三河時召見問其所居始末後賜金勉勵鵬揭布
其說話於境內以為誇息云
廿九日抵小凌河見牛車載男女絡繹向東而去使譯軍問之
則皆是吳三桂部之移屬關外各站者命總於愛河時存
各站之數之處什一冒寒冰結怨舞載路緊愛河乃東北

絕遠之地距瀋陽三千餘里與大曼犍子接境少主甚惡起
戰及遷諂之人之區數年死者什七八民絕人則皆給官料而
主人飲燒酒以御瘴氣故酒價倍重云鎮守將官及赴戰
軍卒視如死地安珠湖時為愛河守將而珠湖曾為瀋陽
城將甚有威惠瀋漢人至今思之珠湖於年前被讒遷居
是地云

己巳十月冬至正使俞夏孟副使姜世龜書狀題混
十二日夕到白旗堡清人以大車載竹索桐油者多百餘輛以謂
此索劈竹織成桐油盛以柳筒運之交湖用於戰船云矣

庚午正月十七日留館是日清皇幸長善院，在城外十里許
選美女貯之舞樂玩好窮極其多時，出幸或十餘日乃還
云清皇頗事遊宴科道有諫者則輒逐之于艾湖云

甲寅八月陳慰使靈慎君澄進香使閔點副使睦耒善書狀
官姜碩耆

予日宿通遠堡吳三桂病死之說每令張炫等問於漢人輩則
皆以為未聞三桂之死但聞三桂妻自當初勿令起兵及其舉事
之後謂三桂曰君專制一方富貴已極更何所望而敢舉大事
致令子孫一時就戮父母丘壠掘出殆盡於汝心當如何耶三

桂叢怒拔劍欲斫賴左右救解僅得免焉是夕三桂妻自縊而
死人稱賢婦云三桂身死之說似或因此而訛傳也

予曾止宿遼東察院聞漢人李素為名者居在此地而頗解文
字從前使行時多所款接招致其人饋以酒饌半夜談話書紙
問答而語及三桂事則答以未聞吳妻之死但聞三桂之死而未詳
虛宗云更以示之曰三桂以首事之人遽有身死則軍情必沮喪矣
李曰三桂雖死既有姁姁輩又有他將不患無將云槩吳妻之
死沿路多傳而渠獨不聞三桂之子尚有二人而只言其姁姁殊
甚恠訝又問南方事則下筆不休而或疑其有狗且涉浮虛而觀

其為人輕佻無定婦為夸大雖有倭語不足信也

九月初七日夕宿撫寧縣譯官金起門檢護行甲軍中有相知者
一入而相對寒暄之後語及山東事則答以四月間發一千兵馬
送于山東以為防守之地屢後將有添兵之舉故兵部侍郎親
率大軍令于十日將發行云又言八月初三日發十萬兵送福建
等地而大將則年少王爺又言順成王率重兵屯荊州令副
將致取大江以南若干等地而所謂順成王貴及盈哥之孫云其
人勇力過人射無不中及其出去謂人曰不斬三桂之首則誓
不去還云

深目望咨文於禮部時有田一國人亦會禮部而深目望面
形容詭恠衣壯衣藍綾醜不可近所呈方物則貂皮及馬匹云
十六日留館張炫等來言通官申金之奴揚姓者其人極為伶俐
其言有足可信故曾前隨勅東往時與之深結他日赴京約與相
面矣即以此深望自生庄入來聞說之後因密問事情則以為渠
之小上典時以軍使赴戰南方不通音耗會至累朝略聞傳言則
即今形勢時或有戰互相勝負而南方且氣尚熱時未大戰兩
軍相持不決其言與之構方在雲南貴州今鄭耿兩將水陸
相抗且南方三都既已得之其餘五都財清國與吳谷有其

半而南方處起兵應吳故八月初三日自北京大發兵三萬以
送南方防守要害處云。又問蒙古事則以為山東作亂蒙人
非蒙古正兵乃正兵之後人也頃自京中調發蒙兵一萬七千
為援南方敵每名給資只給十兩銀子其中後人三千則不
給一兩敵及至山東其後人等不遵禁令剽掠無忌山東直路
各民醜被其害奔避山谷吳保胤告皇帝聞之大怒後人三
千并皆徵還其中尤甚者三十名已為誅殺其餘二千九百餘
名不可勝誅撤還本穴其正兵一萬四千則因往南方赴戰
云。又問青山賊事則以為此賊據險守要害自稱皇帝師其數

多寡未能的知而重兵已出圍住山下必糧盡力竭其勢不久
此則無足可畏云又問西捷事則近來寂然未有起動而即今
用兵南方師旅累其若在此除乘豐勢而起則京城無足
可恃勢必用解濟人之大憂亦在此云此外說話與鄭國卿
所言大略相同

庚申留館夫鄭國卿言本月二十三日將散甲軍千餘名送于
山東自其處分兵繼援南方等語云通官金德之言青山
賊二十五人又為捕捉則都是黥面之類前去刑部左侍郎
將此事狀以為題本云館夫漢人曲科年老有信譽其張

炫相親故張炫因密間遞且事情則答以南方形勢未盡詳知而敗報絡繹捷音稀少屢慮難言云且曰皇帝嘗有東西兩皇后其一蒙王之女其一漢人之女厥後沉惑黑舍里氏諫棄蒙王女今正月間廢黜送之其女有娠而歸國及其生子之後皇帝專不顧見視若他兒蒙王既以此舍慍且前蒙人之就戮雖緣渠之作詭誅殺太多南征蒙兵一萬四千不服水土死亡居半梁當初蒙王遣兵為援重違大國之請不得不尾剋送之而及其末終多損軍兵至於如此蒙王以此以彼多懷不平蓄留憤度日前頗此事亦不無可慮云且言皇帝近日心

氣大發嘔血時多出八無常舉措顛倒頻往海子亦是心
恙所致云且言頃聞貴國海邊紛亂頗甚云今則無事耶
張譯答以我國海邊本來晏然有何向日紛亂今日無事之
理乎曲科再三審問似有不信辭色云

十九日留館日昏時張炫等與通官張孝禮等相對閑說孝禮
等問曰爾國公邊之地或有兵之事乎炫等答曰別無是事
即今晏然矣孝禮等曰爾國與福建相鄰幾許里耶炫等答
曰海路遠遠素不相通何由知其遠近乎孝禮等曰福建與爾
國相鄰密通即今兵禍不無緣及之懼防海荒械亦嘗修治否

手張譯荅以海防器械別無修治之事設欲修治奈無上國命
令何孝禮等荅以若然則何不奏請於上國而為之乎炫等荅
以自我國先請有所不敢自上國若有修治之令方可為之云
則孝禮等又荅以此言誠是矣而若福建兵禍猝然緣及使
臣往復之間遲延時日大國恐未及救之殊甚可慮云申金
之奴楊哥者適往申金上與王子家潛聽之則江西提督王
姓人領兵一萬叛附吳兵之報適自海子來到其王子拊解
驚歎云

二十四日留館申奴又自王子家來密言于炫等曰自王可臣叛

後江西十三府七十縣太宰難教以應吳兵自三申日內危急
密報連絡入來耳又言吳三桂及鄭耿三將專力於江西而
九處分路進兵清兵相抗故清兵不能防遏連續請援北京
之累次出兵宗曰江西之危急也炫等答以江西一省太宰難
叛賊勢如此出兵頻數京城空虛豈非可憂哉申奴曰南征之
師取數雖多精兵三萬長留京城坊曲把守戒嚴其鎮將則
在於字閣未嘗暫離云際際十字閣如我國之鐘樓而在於中樞矣
乙卯六月謝恩使昌城君佖副使李之翼異書狀官閔黠
七月初四日宿遼東察院秀才李素者來訪其人稍解文且母

見我國使臣必慷慨論天下事置紙筆相與問荅李曰天下
軍務皇帝一委於兵部尚書朔珠而朔珠甚貪云又曰蒙
古欲棄瀋陽無備掩奪其父於拘囚不料清公主嫁蒙古
者先已潛報故北京靈古塔諸軍一特俱會來攻蒙古
四十人部大人初約同叛見勢力中變反附清人且蒙古素無戰
具以生牛皮為甲以鹿角為箭鏃連值凶歟馬且甚疲以致
敗死而其中虜二王子布兒呢其宗不克走投其妹夫云
十八日抵撫寧縣止宿遇秀才陳維舜者略與問荅陳曰耿
精忠初攻浙江今則退去與清控兵山海關人李陞者相距

吳三桂已有四川三輔臣盡有陝西而只未得西安府兵至平
梁府與清兵交戰偽敗而走清人追之至一山下造飯忽見
扁豹滿山而來清人驚起射之而扁豹入營大殺王兵外襲
全軍覆沒其智謀神異如此且勇猛絕人稱曰馬錫子大抵
南軍猶緩而寧其甚急云又問曰王輔臣係何地人年歲幾何答
曰本是我撫寧縣趙河管人年五十餘問張勇消息則答曰
今在汾州府而非察心為清不過支吾而已又問鄭錦消息
則答曰察聞與吳連兵不知信與否云
二十四日抵三河縣留宿海州衛人崔光遠本是我國平壤村人

自鳳城雇車隨來日日來見禮貌甚恭是夜來言曰自順治時選我國被擄人五百名教以大砲常令侍衛每朔給三兩料銀或值行幸時則賞賜優厚今皇則巡遊不撤賞給不行軍士多怨自今春加抄我國人使之日夜習砲且選我國人子弟貌美者使之學習呈才入宮中侍女亦教以我國歌舞琴瑟作樂設戲皇帝甚樂云

二十六日抵東岳廟換着朝服廟有三重殿設置東岳帝君后土玉皇三像殿宇宏深白晝沉沉三殿月廊楹千餘間每一間谷有列仙諸神像前置爐懸燈大明時一年香火之費至

累巨萬云所經一路毋論城府村閭佛宇仙宮十居中五天下財力之虛耗未必不由於此也行數里入皇城朝陽門西行又轉而南十餘里抵玉河館在南城內曾聞一入都門別車馬塞路步難行今番則路中往來之人僅如我國都城內大路問之則曰自昨年續出兵有去無收清國出兵之法甲軍等各有挾去之人惟力所及不限多寡一人所率或至八九出兵數千則其宗過萬城中人物之稀鍊其勢則然云

八月二十七日留館首譯徐孝男等以運餉所匱求銀子購得文書七十餘本槩以文書所付叅以沿路所聞則王輔臣據陝西而

叛唯西安府屬於清國蘭州秦州鞏昌等地初屬於王輔臣而甘肅總督張勇屢遣兵敗之至於圍城中力屈剃髮出降七月王兵復來攻秦州清人大敗城守羽書請援八月王輔臣攻商州清兵亦敗飛檄告急而其中以為商州密通潼關不可不守云按蘭州臨洮之外秦州鞏昌平近長城西安府即長安故地商州即商洛之商秦州與商州相距二千餘里而王兵一攻秦州一攻商州其形勢方張推此可知聞於一路則皆以為吳三桂不打緊馬錫子最利害云而臣等入館之初通官等每誇於譯官等曰王輔臣形勢窮蹙不久當

縛致云其後通官等多附耳語見譯官等則便止蓋誇張
之時得蘭州秦州鞏昌勝報而言也其隱諱之者聞秦州蘭州
敗報而然也十五日朝叅時聞清兵分往河南陝西云蓋秦州屬
陝西蘭州屬河南而皆敗請援則其軍想赴兩州之戰也張勇
本是吳三桂養子不隨吳反故清人封為靖逆侯其子曇拜太
僕少卿然其家眷移置都城內云似非待純臣之道也吳三桂
方在澧州八月攻武昌且送將吳之禧攻先化縣送吳之茂攻
夷陵州清人皆敗按澧州岳州屬也武昌先化在江南夷陵在
江北耿精忠之將陳奇彪攻建昌府秦橫猷率舟師攻九江府

皆勝按建昌屬江西省九江屬楚之省鄭錦之將馬寶以舟
師攻温州台州等地高州提兵祖澤附於鄭耿兩將引鄭兵
入城按溫台在東南海上高州在正南海上江南提督阿帝
巡題內江南一省燕京咽喉羣寇迭起請設徑略專管軍務
云：各省題本中泛稱逆賊而不言吳耿王鄭所屬或言入保
山寨似是群盜崛起而然也戶部題內各省軍需浩繁于官
俸祿皆令減半外廷內府所費亦皆減省罷散人負等納銀
復官儒生胥吏納銀而許除守宰輕重有差內閣覆議定
式頒行其中輕者亦至千金皇后葬地下於薊州遵化縣烏

龍橋而羹需應入二百萬金今因用兵財竭未免遷就云徑
賞之匱竭可謂息矣

十月初日到王田縣借宿秀才王公鐸家公鐸出接進茶上燈
設酒果待之臣問曰上年冬家仲先奉使過此向足下則是下
往蘇州不還云未知因何幹往彼地還家亦在何時耶公鐸曰
適有親戚任本州者隨往遊覽今四月始還矣曰聞南方叛亂
之下新自南來可以詳細吳三桂消息何如王曰吳三桂在澧州一
年無動靜今聞來攻夷陵云矣曰在北京仄聞吳兵攻武昌云
尊未之聞耶答曰未聞又曰王輔臣方在那地方消息亦何如

荅曰今聞來攻秦州云矣又曰王兵已入商州云此言信否荅曰纔聞戰秦州商州距秦州甚遠此言恐非宗信也又曰朝廷政令何如荅曰君非甚暗臣皆貪饕養無厭且皇帝出入頻數內外疲於供頓恐不能長久也復問耿鄭消息則荅以未有聞又問曰君自蘇州還兩浙山水想探討盡也鏡湖西湖畢竟孰勝荅曰千巖競秀萬壑爭流固非虛語然終不若西湖特地別媚也曰杭州城池人家比通州何如荅曰通州安得比杭州曰然則比皇城何如荅曰皇城一面十里杭州一面二十里又曰紹興不及蘇州可埒杭州耶荅曰紹興不及蘇州蘇州不及杭州云

初四日抵永平府止宿首諱等又買臣等入去後日記冊子于房焚
其中所載與北京所得文書多相符合亦有北京文書所無之事
蓋七月吳三桂遣將胡國柱從荊州府西北方四千里地鴨子嘴沿
師渡江攻荊州清兵雖敗而吳軍死者亦多還渡江南歸八月
又遣將李本深率數萬師從鴨子嘴渡江攻之清兵大敗請援
順治王將大兵方住寨荊州城東燒酒窩教場云而吳兵再渡江
攻之兵力強盛可以推知也廣西全省官負兵民全包網巾俱
屬於孫運岭八月遣兵攻梧州云潮州將劉進忠亦據城歿清
尚可喜送兵攻之其將王松兵及二萬師俱被砲殺死進忠會

合海寇鄭較搆擊敗尚可喜將尚之孝殺朱世貴掠奪船隻
尚可喜軍拜大潰進忠出令清滿軍兵俱各不留綠旗人馬俱
各招安蓋清人以五方神旗為官名而綠旗則漢兵云戶部滿
侍郎介山同清郎中恩吉圖漢郎中吳什八兵部郎中達漢太
及理藩院內務府等官出往山海關察看邊牆墩臺并兵馬
器械強弱情形云云

丁酉十月冬至正使尹絳副使李哲書伙官郭齊年

十二月初九日暮宿前屯衛譯官金俊吉途中逢着自北京來人因
問京裏消息則筭言近日無他事而右真王之子秋間將兵向

南方討鄭之龍之子前月中戰勝而歸云而語涉不的
十五日暮宿豐潤縣是處適逢曹姓士人泛容接談問因問江
南事則渠亦不知而但聞朱永曆尚保一方而孫可望今為總
兵云且問關內外民情便否則答云別無公家大段應役之
事處民似或使之而清人革志奪掠居民之稍有田財者鮮
能自保幾至赤室以是愁念日深苟有志氣者則每當長髮
大削之時無不流血云此言則關外亦有云者

十五日暮宿薊州譯官李葵香白下忠一輩途逢一漢人適為廣
東人試問南方消息則言永曆尚保雲南貴州江西泗川等地

而以孫可望為將據塞險陞以固其封疆隆武則特都福建奉金山下以曹大高張子星輩為將專用步卒亦有練畏防禦之道而鄭之龍之子方為故附云之龍之子自島中出陸兵方稍盛而日本則為渠祖母所生之廢故自前已有相通之跡且金甌琉球國有結婚之事故清人甚悉趙魏出兵攻之而無一番得捷之時今番右真王之子亦為見賤而故云此兩所聞不同鄭之龍則今方拘囚於北京之龍之子初名曰一但而以華父為質於北京故今則變名姓以示絕父子之義無金甌之意也云又言洪承疇專任南事時在南方五千里之外而其妻子則置之北京云。

二十五日留館譯官卞忠二聞諸館夫言以皇太后上尊御事今日有頒赦之舉云而董家女冊封貴妃在於是二月初六日皇太后新加尊號在今日而董氏即內天臣鄂碩之女初為皇太后之妾而皇帝聞其絕美殺其夫奪入宮中今乃封為貴妃年今二十三云所謂鄂碩乃真獲麟身以貴妃冊封之故有太后尊號之舉而因此兩慶今者董氏冊封太后徽號則既稱昭聖慈壽恭簡安懿而今以章慶二字尊號身之自皇帝及寵尚可喜之孫女今方貯之西宮內翰林陳由是女亦在是中以此西女冊封有封貴妃之舉云蒙古女皇太后則其父有反詭之罪今則廢處

冷宮云、

正月十二日留館譯官李馨蒼白因一我國被擄人詳聞南征軍士
昨日果為入來而今番大敗於鄭之龍之子將士之有去無歸者
十居八九棲乙於前高山僅得生還渠亦以火兵在行間萬死一
生而歸云清人方以是失意而恐此言洩漏於我國譏察無所不
至云鄭之龍之子軍獅四十萬據長江天塹之險久在島中今已
出陸勢甚熾張清人之見敗既非一再故今則欲以戰艦決戰
方始造舡之役於南海之濱云、之龍之子依附隆武者第欲
假名其宗則自樹立云、

九月謝恩正使申景禎副使許啓書狀官趙錫胤

十八日兩宰臣講官一負入來館中日暮出去聞頃日白皇帝族屬
為將領者教人犯死罪亡走使人追之及於河上逝者脫衣
亂流而走追者以不及還報白皇帝責以彼所能渡汝獨不
能是不畏法也即縊殺之被殺者乃馬將之同生也近日有
典中朝諱好之議已令濟南王作書差人以送而要割寧錦
等地且諸王以下多與蒙古結婚而卒是嫁女粧送甚盛而
彼亦厚遺羊馬等物為禮云是日皇帝帶鷹犬出獵近地云
二十日通事河士男招徃關外仍陪從世子入門即引進

世子展讀誥命仍為降授副以彩段從官傳受後復位少頃帝始出坐又引世子行禮訖繼引使臣行辭退禮遂令陪從上殿坐定皇帝飲茶分酌諸王以下侍坐殿上者數十人也帝特與左右笑語仍命厨三鷹立於傍顧問使臣曰東國之鷹鳥亦有能捕鳧鴈等禽者耶上使答以無有則又曰此必不教之故耳我國則如此之鷹鳥亦能捕之云俄而粹然撒素而起由殿後乘輜去遂皆罷出

十月謝恩正使崔鳴吉副使金南重書狀官李時樸

十月十六日皇帝又賞使臣以下午後沙皮河祀青古及蒙古將

一負素于使臣所在館所設上馬宴沙皮河曰今者行次出去則
可及於大祥之日乎使臣曰趁今散行則可以及之矣且奏文兩
件事尚令窳。准許與否想必知之願詳示如何云則曰皇帝當
散落吾則不得預知云。觀其辭色則似有世子東還之望一行
不勝嘿禱疑信之心矣沙將曰皇帝常特則雖微末之人必為
接見而今則以廢疾禁忌至今未得接見深以為恨矣今日當
乘夜招見。世子大君亦當相見。須預往禮部待候云。而去夕
後使臣往禮部。世子大君亦往乘昏進到皇帝所在處。世子
大君坐西邊使臣等坐東邊坐定進飯床食畢進茶。罷皇帝

謂使臣曰聞東方有海東青云使臣知之乎答曰不曾聞見矣曰前
有朝貢之時未知的在何代而此鷹才甚奇特遇飛禽不用奉瓜
而只以翮羽擊斫其頸云滿州衛亦產此鷹云今為我地而此鷹
捕獲極難將捕之時蒙牛皮捕之云矣答曰我國北方出鷹而乃
是尋常之鷹也至於海東青則不曾聞見矣曰獅子有之乎曰無
曰豕有之乎曰無曰鳳凰有之乎曰鳳凰非但我國無之此鳥乃天下
希見之瑞鳥也皇帝曰近者西遊國人來言其國有異鳥翼長十
餘丈足亦大如黑角云矣坐中又有蒙古將教人侍坐碩謂蒙將
曰汝等今番出獵時冒寒奔走必為勞苦矣曰碩侍人曰床中

完四勿使闕失為可且曰退床餘餽出給使臣下人勿使中間攘
奪為可云。坐中蒙古一人鼓琴唱歌俄而進宴床行酒侍坐諸
將皆伽趺而坐或戲笑或唾涕畧無畏憚有巨大六七在坐中
行走吠吼皇帝時投肉饋之白皇帝項掛念珠以手數珠而坐
所言皆是浮誕之言矣漢人范文程若稱以承旨傳通言語頗
為親近矣請還徵兵兩件事終始秘密無探知之者臨罷特使
臣欲前進懇請而左右揮却使不敢發言懋時而退

壬辰十一月冬至平使李澥副使鄭攸素怯官流僑行

癸巳二月十六日止宿鞍山有一過去之人遍見於臣等所寓處曰

言我是本國倉洞河生負景漢之子名濟民丁丑年被虜者也
為穹崇王孔有德家奴數年前隨往南方攻戰之地見其處
小城堡並八處盡為清人之攻取而至於一城則盛壯無比
聞有崇禎皇帝之姪在於其中將帥軍兵極其衆盛云
我則先為出來之後孔王死於兵故身無主管之人任自居
生於遼東地云

癸巳八月謝恩止使洪柱元副使尹絳書狀官林葵

九月初二日留宿牛庄適逢自北京出來者乃我國被擄之人而
平昔居在京中貞陵洞者也一行軍官中有知面之人共語

之間問北京事情則無他說話但皇帝酷好優倡之戲我國被擄呈才人十許名逐日引入宮庭使之各呈其才偏愛此類優給賞物云矣

初十日止宿中後所舍館主人乃丙子被擄之人平昔舍在開城府而田義生稱名人也與語之間訪問北京事情則答以不知但南方之事專委於漢降將吳三桂方為封王于中土其妻子則留置北京去八月晦間皇帝以其妹妻三桂之子蓋其意欲為固結三桂者云爾

十八日入宿玉田察院士族漢人李連城稱名者居在城中譯官

趙東立往見其家言語之際密問南京事情則初不肯言懇
問然後乃言崇禎皇帝之兄魯王之子建都于廣西年御永
曆軍額多至百萬而以白布裹頭號白頭兵云矣

十月初二日留館聞皇帝曾以漢降將吳三桂封為平西王屬
以大兵而慮有異志其妻孥則拘留北京者有年矣當日始
送其妻於三桂之所而使將士等護送城中大小官亦且祖送
于都門外云皇帝之待三桂可謂厚矣而三桂之見信於皇帝
者亦可見矣

十三日留館夕時守門清將一人適獨在求飲烟草譯官趙東

立遺以枝三與之私語仍問使行久留不送之意則門將曰皇帝從
兄廂紅旗王以大將領兵出南方者久矣近有病死之報上下
憂慮不遑他事以此使行之回還遲延云彼人雖不測言而槩
聞清國二王戰敗死餘軍輿尸撤歸云矣

戊子四月謝恩副使林壇書狀官李惕然

五月二十日朝前表咨送于禮部詳官玄頊等領去有假捷一石
來謂稱以尹判書暉妻子江都陷沒時被擄云問之渠為甲
軍數年前往南京今年三月始還清兵萬餘出征南京中
年後始還生還者僅四五百名大將虎口王縉死獄中虎口

軍馬分隸諸將虎口之子兒童二人攝政王率養又散兵萬餘
出送南京留都清兵皆是老弱故今方十五歲以上抄出鍊習
云城中所居軍民自瀋陽移來漢人外盡是真獫而朋將所
居民人盡為黥處城外一谿所經處及都中漢人與我人相對
或撫其髡首而似有慚慨之色人心之大崩專在於剝頭之舉
云且聞南京人聞剝頭之令痛飲痛哭或剝或不剝人心靡
定從以殺戮云。

丙子七月副使金堉

八月十六日臣等往謁陳都督於舟上令譯官言曰職等到此始

聞捷兵西犯畿甸不勝驚慮都督曰此賊不足數官兵近當駐
逐我亦欲前往三大河勦擊云仍設茶湯坐而語都督曰我欲
駐劄義州未知義州形勢如何臣等未曾往見為答都督曰我
本遼東人壬辰之後押領舡糧往還貴國黃州海邊云臣等略
備禮單呈之都督峻拒不受且曰中朝好官人絕少不庶之風盛
行仍嘖不已臣等曰小邦聞老爺出來已差接伴使迎候已久
未知何時當到小邦等都督曰今方有事當以明年三月間出去
矣臣等以硝黃請貿易呈文則都督曰當追後題請云仍辭退
聞有前往東江之舡付送狀 啓

九月初五日城中戰砲之聲達夜不絕朝南岸人未言去夜捷兵攻打寧遠城外曹家庄八里堡等處烟焰漲天既暮火光滿城乃城上戒嚴之炬也

二十日捷兵拜息稍緩臣將欲入城獨共負後中五人前往南岸未及下陸之際岸上舖舍之人一時被奔投入洋中諸船數十隻亦各送小艇接濟乘人俄而有馬兵數十人馳突於浦邊蓋聞外之賊今始撤回而零賊來掠舖舍矣

十月二十九日到荊州宿西門外店家上通事崔元之等入城中適見丈老輩五六人會話於舖舍見元之呼與言曰吾輩居

在兵備衙門近處每得見通報汝國其東捷構和陰順陽義
云云元立答以夏初聞其僭號已與斥絕之由老人等曰甯捷
兵來搶之時祖大壽等三十提兵天下兵二十餘萬跟隨賊後
一不交鋒此無非祖大壽所為也其子方在胡中故以不戢市
恩云

十月初五日鼓通州到北京朝陽門外而為守門宦官所拘未即
入城用賂銀十餘兩而後始得入城曰例入京之時守門宦官
或給刀扇所謂面皮也今則宦官輩不論是非親自持杖
歐打陵辱使不得進去不得已譯官等出給銀子到玉河館寓

西館

初十日禮部尚書姜逢元與提督何三省同入館中招臣等使之前
曰皇朝恩典甚隆禮制亦嚴陪臣當一遵憲度慎自飭勵
臣等答曰敢不唯命尚書與提督遂出去尚書來館前所未
有去壬寅年間李廷樸為尚書時自會同館宴所未見使
臣金信元於館門外今之來見未知其意
十四日冬至謝恩并三起表箋呈於儀制司、郎中見物目報
單曰白苧布白字書在物目之首有違中朝之規後日則
當沒書他物一應白字名物末端書之云暹羅貢使等入未

住東館其國在廣東南海中而其人皆剃髮不冠巾黑面而左衽不識文字進獻之物皆香材象牙無表箋文云

二十六日臣等進午門外叅賀禮是日皇上免朝百官叅賀班者未滿三百人臣等見朝之時每有光祿寺酒飯之賜而主掌官或只以一杯水與之或拂盤未盡還即爭相奪去本寺之官見而不禁臣等雖依例進去未及定坐食素空倒矣乃退謝息還

二十七日小甲一人褰衣露瘡脚時哭乞象於譯官曰以汝國事屢被重杖於大堂久在囚禁請於使臣急速呈文活我命脉云言

甚矜惻問其所以則乃前日咨文事也小甲曰尚書以此事啟罪
於我必欲窮治使臣呈文尚不批出此不過要索參賂尚書
前亦不可無禮單云臣等不得已更具呈文呈於提督譯官
等亦以人參十斤約為行賂小甲叩謝而去大梁尚書姜逢元
素有不廉之名而我國使臣本無禮單贈給之規故執此無據
之事百般操縱以小甲乃館中使喚之令行威於彼要索賂物
奸貪無恥甚矣及得十斤參小甲方始得釋

十二月十五日臣等進參賀禮是日皇上免朝館夫一人來言曰頃
見塘報捷兵東搶云臣等聞來不勝驚慮使通事問於提督

曰今日路上傳聞捷兵東搶云未知東江有何馳報乎提督曰是何言也汝國平安勿以道路之妄傳為驚焉疑之慮云連日更問終始牢諱

丁丑正月初四日提督以大堂意見鼓票帖要買紅白厚紙二百張狀紙二百張仍送價錢八百文搜出一行中僅得各色紙三百餘張並其價錢而出送提督受之頗有不滿之色云

二月五日序班毛寅來言前年十二月間捷子東搶貴國大敗而還今有誣犯宣大之形故邊城戒嚴云臣等一入館中之後重門牢鎖開閉不類一切外人不許出入凡于消息漠然不聞

而自聞捷兵東寇之後一行之人驚為懼憂慮將信將疑百般聞見竟未得的報大槩事係邊情故中朝上下之人諱之尤密矣十三日以事完呈狀奉送譯官崔君知之相通政司而正堂新為上任今日始與諸僚圍棋而宴故我深憂怖而還中朝各衙門閉坐各有定日而通政司則三九七日閉坐之日亦有不受公事之特故今日未得呈之

十五日竣事之後已過十日而事完通狀未得呈之不待已臣親見提督以問迫之意懇陳於前而使臣金墉自入北京病患彌留及聞捷兵東搶之言疑信之中日用憂慮病已危劇今日亦昇

出見提督叩乞坐還提督為之惻然出諭帖示之曰來使屢以
故情陳息詎不深諒但事體有閑各衙門者俱有節次即移
文往來亦必費數多移覆未有立刻取辦者也來使在此鄉思
與艱本部已切在念即見病體消增本部如負刺于心雖司
典屬能忍然予甚為諒非奈部所得主也即以通狀事言之
通政司上七日始收通狀至九日收奏本此田例也又以題敘實
事言之本司具呈矣題奏之後五日方命下越二日始繕抄至
部又送司又二日司始具閣領呈堂又司呈堂始用印往內庫
閱領越數日內存乃轉奏請旨下越數日始為行文內存各衙

門攢備訖然後請車部至內庫搬出外庫方能知會未
使領給此一定不容攙越者也即之時立應坐必至其期限况
各衙別有公務未能即應者乎本司則唯有速催以無負未
使之倦而已尚宜知悉云

三月初七日禮部尚書出票帖徵索方物輸納人情油蕊二千部臣
等行中所持未油蕊元數甚多已及於各處禮單無一張餘
存以無答之館夫等恐被尚書重罰乞救連日不止不得已
收合各人等裹下破件及臣等所席並千餘部出給
十五日聞皇上御五鳳樓親策會試入格人以劉同升為壯元

云陳都督已往東江云

十六日往國子監謁聖而還自千秋罷賀後至今罕餘日鎖
在孤館今得出門則陽氣浮空花柳滿城始知天地之春天
十七日曾以作速頌賞事呈文矣今日得見尚書批下則提
督轉報稱貢使久居館中鄉思殊切而叅判金堦又以斑
白之人卧病呻吟誠有所不忍見聞者除一面差官施彰催賞
外為此具呈堂批云來使既有微恙慮因寇警言情迫其
見忠義該司作速催賞毋誤行期云

十六日詣闕謝恩而還譯官尹慶龍李春輝軍官李大仁金

崇等同謀乘夜潛入暹羅使所館潛買錦段而未館夫等知之告于提督。遣序班毛寅等先搜暹人什物則果有人參四十六兩而其欵賞內。庫段十四疋欠於元數推向暹使則一直告提督送諭帖於臣等曰暹人賞賜段出於內庫不宜越法潛買急速搜還云即搜館中盡為出給事係重大故提督自恐生事坐罰即為掩覆云臣等在館嚴飭一行使不得潛相賣買而殉貨之徒冒夜越屋如是作奸幾至生事此乃宿弊痛惡。領賞之後當即起程而又拘開市事未得奉教送之旨故仍留

四月初六日提督諭帖云來使禮義自持本部諗之熟矣泛事人等想已約束如法通來功令嚴密誠恐有一二未諳者狃於旧習各名下包相來使先為曉諭仍不妨親自簡照稍涉嫌疑亟行毀棄云

初七日提督及兵部主事吳昂同入館中打包而東廠人六七名亦未同叅東廠乃宦寺衙門之稱如唐朝社寺之類皇上欲知各官員所為使東廠定送一二使令令松各衙門伺察不法故百司皆有東廠廳臣等所住之館有守无甚每有六七人適來窺伺以此外人如小甲館夫輩隨例出入館中者莫不畏

恐不敢與我國人對面立話紫新鍍物自外入納者提督一
打驗入遠出入人懷袖盡為探見臣等見朝注表時廠衛人亦
潛為跟隨故序班等使不得徐行視望禁止住立有如驅羊
行而事勢若此凡于外面事情未由聞知矣

十五日小甲未言聖旨有使臣加賞之事云向之則館副使趙光
孝等皆曰兵部主事吳昂言于兵部尚書表奏請加賞已奉聖
旨云不復詳言館夫一人潛曰言聖旨中有朝鮮力屈降虜
情殊可憫云臣等已有傳聞方在疑信及聞此言尤為驚慮
即使譯官問於提督則又如前固諱夕館夫以一張通報來

示而字頑紙破不可解見細考文字則乃高太監據走回遼陽人李國詳言馳報邊情事也有云馬兵捷子駭高麗物件到瀋陽而捷子言高麗城池已得了來調木工往高麗造舡云無暇月可考臣等仍此知我國被兵而邊情泄漏之罪極重故小甲等不得傳布尤極鬱悶

二十日賞賜之物自該司送來提督坐於後堂招臣等受賞臣等率一行負役往後堂領賞提督手持兵禮部上題後題本聖旨回下令臣等跪受臣等看得到兵部題本及取玉上日中有朝鮮力屈降奴等語前日小甲之言果不虛傳也臣等始知我

國被禍慘酷即率負役退出中外東向痛哭入見提督問
被兵由月及兵鋒所到處答曰正月間獫狁東寇直搗王京
國王避亂於南漢城三月始有東江馳報云臣等涕泣曰小國
被禍之言今雖聞知豈所料度知其必然者也前日呈文請質
硝黃蓋為此禍也今無可奈何且降奴之說決非可信之言未知
此言誰所摺報乎提督曰偵探之率傳聞於逃回之人有此摺報此
宗不足信之言也又曰天朝兵馬早晚恢復屬國毋為慮慮
安心自寬云兵部奏本云臣回本部車駕司主事吳昂告殿
詣四夷館監督房人開市得知朝鮮貢使將此起程竊念彼

國降奴至今已踰一月音聞寂然不知竟作何狀使臣之去止
好乘便偵探臣愚欲請天恩比常倍加賞賚特賜勅使伴
送其行誠恐前經海島將吏兵民不知天朝字小之義維繫
屬國之心或稱鉄山既我撤我今亦當殺之又或利其所有
明欺暗害便指使舡為賊搶報捏功乃令使臣氣不得伸從此
其心永絕失者不少殊可惻念臣謹謀陳愚見可否如臣所請伏
候聖裁聖上旨曰下云屬國世祿忠義力屈降奴情殊可惻據奏
加賞俾送用昭朝廷字小之仁又禮部覆奏曰下聖旨云這加
賞屬國使臣着照進貢方物一起給發仍加路費銀一百兩併

着兵部透委廉能武官一員同原差官毛寅等護送前達務
令得所改撥朝廷系遠德意及將先令惻恤應接事宜備錄
宣諭之夫繫兵部主事吳昂奏館之特議官等懇乞及聞我
國音聞言懇切至故着高內惻憐臣等尚書聞兵禍之慘又念
任職錯甚故因繫以此等情狀言于兵部尚書在此題奏云
至一日臣等詣閣謝加蓋恩恩恩將以明日起程未時尚書督令
日內發行而今出急進故車驟未及整齊臣等僅得顛倒出館
而負役則太丰浴後在館日暮不得行宿東便門內朝以降奴
拜羽及請赦事具呈文臨教始得呈於提督而來兵部護

送官傳姓人率千兵將護送海路云而洛後不來

閏四月初五日今日當見太監而使臣金瑄病不能往臣獨與譯
官往謂仍言曰小邦不奉命使無補未知近來拜息如何太監曰
此處只憑錦州馳報海路消息則皮島見陷故無路聞知捷子則
已而撤回而貴國世子被執云外墜淚臣答曰世子被執之言卑
職在東京時已傳聞但寡君得入南漢則世子亦當遠
避似無被執之理亦知果有的報于太監曰原來馳報亦因
道德云被執橫江乘云矣又曰倭國請倭破獲殺其頭目云此種
臣答曰倭國海路萬里豈可一二月間請兵而至况小邦與倭昔

日仇怨甚於東獫萬無清兵之理但小邦之兵火砲精妙無乃
以烏銃破獫而傳之者訛說耶仍以請糧事呈文則太監曰吾
為使臣當親往寧遠分付云批呈文曰俟會都院行云
初七日叢山海関到前屯衛宿店家山海軍門前回咨未及受
出故留上通事崔元之使之受來譯官全有後潛買摺報
一張而來乃初四月十六日錦州總兵祖大樂馳報邊情事也有云
擒獫子招辭稱東搶諸獫言高麗四布政已皆潰殺國王
剗了頭出城迎之留二箇王子撫順餘皆陸續回來而四王子姐
夫羊姑大娥夫被高麗殺死云

初十日使臣金堉病不得見官臣獨往見兵備道向我國消息
兵備道荅曰獫狁尚未撤回而椹島已被獫狁兵及汝國提兵林
慶業所陷故近來絕無馳報云臣問曰慶業乃義州守將
何故攻椹島乎兵備道曰已為叛降於獫狁云臣等曾在北
京時已聞林慶業叛降於獫狁殺椹島提兵百餘人云今又如
是言之未知此說從何出也兵備道仍言曰汝國忠順天朝所
知當益勵素鄙以朋大義云臣對曰小邦之忠順何必再言為
天朝至誠天日所鑑今被孔棘之禍存亡未能的知卑職等敢
意一刻為急而皇上軫念啟路之梗阻特命兵部差官護送

此宗皇上洞燭小邦之至誠而然也但獲送之官尚未來到恐遲
延日子以此為忸且檄島見失獫兵尚在則職等啟路當取外
洋海路回遠到洵無期所齎舡糧未支教旬行徑諸島恐或
有生梗各舡之人欲買兵器以備不虞曾以此意呈文於太監望
老爺資助焉兵備道許之仍辭退往見軍門如前陳話則軍
門曰天朝貴國乃是一家情同父子凡事寧不救助當與太監
相議為之云暮太監自山海關入來大槩中朝諸將想必詳知
檄島陷敗之事而高太監兵備道諸人及他餘諸小將官輩
皆以林慶業叛攻檄島為言此必中朝之人寬仁不迫不忍

直言於臣等也或陳洪軫要護我國當初馳報沒其實狀耶
未知所以

十二日欲見太監。有故不見聞二月二十日問太監等聞外諸將
調發兵馬八萬欲擣瀋陽前往三义河而捷兵大出故不戰而
還云蓋祖搃兵子一人陷在瀋陽者當汗東搶之時潛通於
其父使之擣虛故有此舉措舉事太脫無成而退云

二十三日太監自山海關抵書於序班毛寅曰麗使有家國之
悲言之令人墮淚今思故之心既切如必待武臣之來恐未免
望眼將穿承教代題遶委似具未便且多叙俾已撥就乞

門下弘懷遠之仁護送出海一遇陳總鎮即交割取文以復朔命可也云。

五月初三日到長山島知陳都督在此即下陸往都督衙門則檄島鼓旗官呂璧先為來見詳說我國被禍之事自言初四月初九日捷兵與貴國兵未陷檣島沈都督死之我則與四五將官乘舟逃走妻子盡被殺戮云因哽咽下淚慘不忍聞都督與監軍黃孫茂太監劉姓人同坐招見臣等。滂泣曰曾聞小邦被兵而未得的報到此詳聞國家蕩敗至於儲君被執社去古今兵禍寧有如此慘酷乎都督慰諭曰當自寬抑更番

報復之策可也臣等曰卑職唯思速去得見寡君即欲起身云則都督答曰有相議事暫須下陸安頓又曰貴國王印見奪云我當題奏改鑄以還云臣等答曰果若見失則小邦當自奏請仍拜退都督令館於白副總所居副總亦極其款接與賚畫官吳廷忠同坐而都督送一幅書與賚畫受之納於袖中時出見而說與臣等乃五件事也事皆重大故臣等不敢可否皆答曰歸國之日當啓知寡君並兵機重事不可言傳願得書付吳賚畫盡許之說話之間吳賚畫墮淚曰天朝與貴國即是一家不幸天朝外有東西捷及蒙古魚皮捷屈強寇掠內

有流賊徒黨熾盛據險山西出入為患貴國被禍亦如彼時
事能不痛心乎泣下如雨大槩中朝貪風大振賄賂公行宦寺
擅權人心不服內外諸臣徒以貪饕食為事而慮謹憂國以有
高太監陳都督輩若干人而已太監今為提監軍務大得軍
情其廉潔儉素古人所罕於我國事極力憂恤陳都督詳知
我國事情而小無故咎之色每以鮮國力弱降虜非其本情為
言憂念之意盡表於言表其管下如白登庸吳廷忠諸首晉明
輩亦皆詳知我國宗情不以既往為非惟望將來之效勉
以同仇雪恥之意息而已島中兵艇大約中五百隻軍兵萬餘

人儲糧十九積一積之教幾至三百餘石而軍卒疲弱器械亦
整正矣

初四日都督送請帖招之臣等進謁都督與黃監軍劉太監
同坐設酒飯相待謂臣等曰貴國國王章服亦必見矣我有
玉帶錦段當付使臣送之又曰此後凡有奏聞之事勿為委遣
陪臣移咨於我則我當轉奏行之凡送人於我絕勿送禮卑
又曰貴國須送接待一二人留住於此則我當優給糧食而厚待
之凡自貴國奏聞事自朝廷宣布事皆自此轉相通報毋煩
使臣及欽差之往來可也乃出說帖一幅令臣等見之乃昨日吳

貧盡所言事也臣等荅曰當以此帖啓知 寡君我國殷山砲
手二名被獲於白副提方在島中蓋輸送故獲兵先到中江
見擒者也臣等以欲為帶還之意請於都督荅曰我若送人於
貴國則貴國之人皆恐懼避匿我留此二人要以為送人特傳
語令貴國人毋為逃避若欲帶去更留他二人臣等荅曰職
等所率皆經年遠來之人經亂之後各欲故訪家屬何忍留置
職等故國即當移文於沿海居人使之勿避不必每帶我人往來
都督曰然即許之臣等帶來故即交付於殷山都督以米四十
笈青布一百匹出給臣等起謝曰小邦兵亂之餘公私赤立餓茅

相續得此厚貺當啓知 寡君以救飢民晷刻之命都督又給
隨行譯官等青布各二匹從人各一匹其殷勤之意出於誠心
說帖中事原帖已為啓達故臣於事件中不復該載白副摠
輦言當初朝廷差出陳老爺要以代沈世魁鎮守椴島而世
魁居島久多有支黨為人無識恐不順從朝廷命令故陳老
爺往來諸島方為經略事未及禍先發可勝歎哉又云都督
以貴國接援事出去先鋒已到椴島而並被摧破都督進
無所據回軍於此云夕寧遠護送舡追到陳都督又出兵舡三
隻將為護送前途云辭還舟上

初五日移舡退洶浦口風勢正好而長山島護送未及出來故
留待午時散舡暮到石城島撥島餘民逃在長山者其數
甚多見臣等之來爭相聚會切齒而睨視曰高麗殺我父母
曰殺我妻子兄弟泉或有涕泣者此屬曾以必殺麗使以復深讎
之意稟於都督而都督聞諭嚴禁之若非護送欽命又無
陳都督臣等幾不得免呂壁等潛言於臣等曰石城鹿島
亦有撥島遺民慎勿輕入云故臣等到石城不敢入浦退泊
洋中長山護送舡落後不來

丁巳十一月謝恩兼冬至正使瀛昌君沉副使沈梓書狀孫萬雄

十二月初一日夕抵盤山堡城荒落人家稀少無察院宿閩家灣上
軍官洪萬翼出外請聞胡歌清人唱一歌之後惶惧失措万翼
恠而問其故荅曰此乃南正之軍思歸惜別之歌也此歌一生人心
動統赴戰者厭去在家者皆起故下令曰有渡以此歌唱者
大有罪蓋清皇之命云

十一日宿寧遠衛有一老嫗來言本以綾原大君家立史曰居二曹前
洞丙子之亂與其甥莫男被虜來此莫男之子以甲軍一去雲南
四載不歸頗有怨悶之言

十六日朝飯于鳳皇店有男女三十人以鐵鎖繫項或乘車或徒步

甲軍數人押駟而去問之則俠西人以淫奔事得罪擢站寧固塔云
六日夕抵沙河驛自孤竹城至此四五十里之間田畝之中閭巷之側
養植條桑有若五穀之種而歲輒刈取殆無經年之條問之居
人則春採葉而養蚕秋刈枝而造纸蚕絲之利得以俱全云
十九朝飯于榛子店闕王廟有盲人連絡於道裸身衰絺以
屨名提膏，郗赤黑問之則乃乞人亦可想其生理之艱苦也夕
抵豐潤宿漢人李天棧家儀容秀美頗解文辭上令譯軍
傳語以文字相酬酢語及吳三桂事答曰方在湖南上臣於清
有大志而之能成大事位因敵我北方民庶云

昔日拓五田宿漢人查玉浦之家豐玉兩縣古稱多文之府庫
而唯見蠢蠢之俗絕無徇誦之弊習俗之移人一至此或以京
買頭下三哥未見且問曰以清國之兵勢胡不擒吳之桂耶
荅曰吳廷方在長沙而據大山隔大河兵勢日強智勇如神
自前清兵有敗無勝然吳廷亦堅守而已如無生來之理
曰言其子以甲軍南征四載尚未知生死云且且問清馬之去
南邊者多致斃云然召荅曰壯馬之習南土勢自然也
共留館門將親見上使：：給面幣致說語問曰問吳三桂
事荅曰我曾陞南征陣中前月始還吳廷方在長沙而頭髮

已長衣冠皆漢制。雖擁百萬之衆，率多雜烏。今太平而但
於手下有五三千敢死之兵，即以謂苗奴。且齒齧赤脚，白布裹
頭，其目深而黑，其劍長而廣，其勇如飛，其戰無敵。且於江邊地
高之地，埋伏大碗炮丸，如秦觸春盡碎。遠者雞之其勢不可
與，多鋒也。清人四親王十大將率性八萬之可，此犄角而上年則
一糧道之絕，至於人相食之境，猶得復鹿。至其毛而嘖之乎，宜
考易，易謂若雞地，鳥報之，其則自王帝命兵部姑勿添兵，徐待民
力之稍蘇。云且曰，然則且三桂終之可擒耶。答曰：是地險兵利
聖歷之生，今無奈何。言完，諫身感顛目，得單密聞兵部置

簿則自甲寅以後南庄之兵至數百萬之多而將之臣
時存正戎者兵餘百萬云

戊午正月初一日儀仗具冠帶入京華又於大明太宗之靈
龍以次及之於回祿者約百餘萬金於橋左在五橋皆鋪以
到後旁以石欄之等天白玉柱之柱青石兩獅子對立於御榻前
橋盡而為天安之系皇明之始矣又云內座之三故手天柱一
贊而東有宗廟西有社稷庭畫而為殿瑞之左右長廚各之十間
於中平官皆侍漏格以直官軍坐便殿於西越殿之前而坐
下有十五人聚坐殿後冠言語與清人異耳坐至瑱瑒至

紅索猪目鰲面狀白奇恠使通官刃之則云是西方於勒大獾
子似是蒙古之別種也僻在距京師萬餘里之地經六月始
到此而地產則貂皮黑狐皮橐駝犍馬云外儀既整天色
漸明門上小鍾之拜撞之七絕若干儀仗列立於午門之外俄
而清皇乘黃屋生午門在庭者皆跪坐別無俯伏祇送之
禮而乘馬隨後者不數百多皆是輟之類也問所處生駕云
則通官軍或云焚香於太祖之廟或云鄧將軍之廟主知
孰是霎頃清皇還未儀仗之盛倍於去時而以七象加金勒
金鞍隨其後而右俄引東西班由午之右肱而入一名五鳳門之

制尤瑰麗門內有五大石橋即禁川橋也玉河經其中源其太
液池自宮中延身達于潞河者也橋頭有太和殿之
正門也明朝殿稱皇極殿門稱皇極門而今改之矣殿凡三層
十二間至階凡三級每級輒繞以玉欄干縈回屈折錯落周
遭觸目眩煬雖可也諸王則由東西門而入直上殿也其餘官多
則分庭左右列坐於儀仗軍之後者殆過數千而漢人居四之三
三蓋清人在南正者還者尚多故也通官軍引使臣坐於西班前
行之下又其下坐蒙古之使日上數竿鳴鞭之下清皇出御太
華殿使禮官呼唱致詞於前似是賀正之意而莫之詳也

先朝東西班官多紉三跪九叩頭之禮次朝我 國使臣紉禮又
其後朝蒙古使臣紉禮蓋示門外次等之意也通官導朝正
使臣沉入坐於殿內諸事之以副使臣捧及臣坐於殿外西階
上蒙古使一人亦坐於其下望見清皇以坐則榻高至矣飾以金
朱清皇看紅弁衣黑縮裘銜面瘦峭如看瘦甚之色生未嘗
之則為荒淫以致云云謂慢者進茶於清皇後次及於在庭
臣僚而負後革亦預焉警蹕數拜清皇下榻回乃宮中殿
深上得了了也

初二日留館目譯官下爾輔得見直報滿漢一時謠言曰款知

天之寧不寧只在閣老明下已九月十四日清皇陛下海上得乘
帖之中寫此語清皇覽後問明珠此言果否爾乃面奏明珠上
疏言臣雖愚昧而知盡忠言豈有必意汝想多違逆此福言雅
間之下暗害之良臣敢多言唯皇上如怒察清皇始寬免
明珠著令刑部後察謠言之人云明珠多情人云吾多老云
初四留館目譯官李汝濤見下也九月直拔則云三桂改國號周
啓重興四年籍重興直寶雲南貴州四川漢中湖南諸邑俱
經使用云

初五留館目譯官下甫輔得見直拔二度其二則下已九月初首

吳三桂遣其姪吳大器三領精兵二十萬自雲南貴州至漢中漢川
百里設一方營五十里設一水營聯絡一路相望不絕攻取陝西又
得泗川云其一則同月十九日吳三桂遣將軍十九負自雲南陸續
發紆前進湖南移駐岳州云

初七留館目譯官卞爾輔得見直抄丁巳九月十三日湖廣督撫密
疏據差戶部尚書戶工部郎中各二人所性江寧亦遣烏復六
十隻沙奔如三百隻限以速完勿違軍期多李一善之妻父妻
仲日考即被虜人以與軍官軍說話間自言吳三桂據大山滿大
河多年持久勢難進攻故清國方多造戰如於洞庭湖明年三

鳳下海道警一於勝百三

和百留館自譯官中前輔得見自款下也九月二十日自京都送
目今兵餉告匱無以為計請開事例以增軍需事將各議參
議室有情願入監者他銀二百兩後與文生一體入觀鄉試而
他銀一百兩者賜進士同月初七日又奏議如有急於進者則
貢監他銀五百兩廩生他三十兩進士一百兩後秀他二百兩
書吏他一百兩為後考補雜職道任路文武官多各他一
千兩以助軍餉而該率宜為急便上云
初九留館因譯官奎芬得見直報下也四月二十日奉閱牛帛

奉旨進入廣西指揮爲運將軍孫廷珍以沙帽圍鎮
賜牛朶除以總兵之職牛朶受廷珍殺怒毒殺牛朶云

一日留館員譯官下爾輔得見每劫下巴月云七日滿州將軍
穆占奉旨南征後胡廣江西巡得滿漢兵數十萬自去安有前
進長沙見安親王商議渡江臣勸事王曰公曰吳廷善用方
砲智謀如神臣恐身處重地其計一穆占臣臣想欲局以三程已
偵探甚多有用術應言事其以之營密遣水兵壅塞山以爲程口使人
識者江中淺深回響言江水只深馬肚程口大喜意謂天助不顧
兵越江將難江幾百里三程以大砲強弩率兵迎擊手穆占不敵

還至江口三柁被焚燬燬頭法上流江水暴漲十萬兵馬盡為
淹死安親王以船隻救之數百人僅得生還報至皇帝大
怒命為穆上與三柁被通鎖合拿穆上以杖京獄後重科罪之
十卷日留館因國譯官前乘舟輔河見通報下已二月二十日清
兵鎮岳州與吳三桂交戰而三桂乃在陣後俟大衆七十隻
衝賊紅衣大炮殺者鐘之除吳兵公獲軍退以大眾載砲衝
入陣中清人之打死者萬餘人重傷幾死者又不知其數大敗
而還云

二十日留館因譯官前乘舟輔河見通報下已二月十四日康

親王顥本也山賊朱統錫率偽總兵鄧珩帶敕遠將軍印一顆自稱故明後裔寇陷閩中臣領兵撲勦生擒朱統錫及其子朱義致義遷等則賊兵三千餘人自來投誠而但渠輩既稱故明之後裔姑為加留竇旨正刑云白皇帝旨曰俱為行刑斬闕破寨云

二十三日留館因譯官卞爾輔得見通報丁巳九月十九日陝西湖廣江西各處兵機甚緊急以清字密奏皇帝覽奏發怒召兵部官責以爾部逐日發兵逐年發兵而未聞一城收復不見一處回兵多以虛報少以實聞其假冒之

狀朕早已知道爾部與出征將軍都統內外作孽虛哄
朕實痛之爾部即行各省發兵多少及征戰勝敗兵馬
存亡之數立限三箇月據實查奏如復有遁同虛誣隱
漏軍機則爾部罪當全族仍自起足踢兵部尚書色塞
黑退出云

二十四日留館因堂上驛官于爾輔得見通報丁巳十月十
二日吳王桂興師發兵前進福建廣寧問罪耿高二王曰
初既同叛今乃背盟投降清國爾罪當誅乃與交戰吳
兵敗還云。大通官張孝禮來言前年三月自南邊押送

著紗帽團領者二人至今拘留於刑部云似是吳三桂管下官
負笑

二十七日留館同驛官卞爾輔得見通報丁巳十一月初一日
吳三桂密遣副將夏國柱潛往福建廈門勾合海寇鄭
金舍復犯閩中云

二月初十日朝飯于塔山所自望海店至此皆傍海作行而
不見一隻舡泛海問其由則漢人顧泰谷曰四五年前自朝
家為慮海寇鄭金海中大小商舡及漁採舡並以自嚴
禁使不得往來云

辛酉九月謝恩正使昌城君似副使尹增書狀李三鋹
十月十二日止宿于杏山堡間舍夜招主人問之則乃古明朝永年知府
之子也頗知文字將書問之則吳三桂已死其孫世蕃只有雲貴兩省
而勢將朝暮且降且三桂之婿馬寶素稱智勇之將而陷於姚襄之
術未竟就擒生致北京終不肯屈膝康熙問曰何負予叛耶荅曰吾
以敵國之將不為事就擒則豈云叛耶聲色不変磔而殺之云
二十九日留館吐魯番來館于玉何館門外提督廳已有日矣聞其
國在崑崙山外與西陽國相隣道路復遠自其國上年九月發行今
九月來到北京云矣所貢千里馬二匹而一匹則病死於路中云其國

產項以葡萄及苜蓿而項以葡萄則如小黑豆大而於痘疾最是
良藥上年皇太后身染第痘患之時千金求購而終不得之今番魯
番有持來者相與新貨得云故行中負譯亦有買來者矣
本月初一日留館往庫倫之蒙古地方大雪厚至七八尺牛馬諸畜盡為
凍死日無吃食夜無宿地極難達于十家王子盡棄舊寨率領諸部
落搬居于虎鈕口外遍野札之窩鋪其衆將至百萬餘戶口外人民
多被搶掠戶口寡少亦請得地方而安肆肆仍要進口內皇帝以銀貨
四十車緞布四十車糧米累鉅萬石遣貝勒及內大臣前往虎
鈕口外賞給予賚達子令各王帶領老幼復歸本土各王不肯

至請地方番進關內朝儀給以滿漢官民俱依驚駕俱皇帝面諭
諸王貝勒及大臣等院會同議奏又諭兵部調發官兵護守關
口以此觀之則其悲恫兩達之說果不虛云

初三日留館在燕京老成謀國來拜於前頗辭我國之語恠而向之則乃
長湍官吏之子向學中報慮入來累度赴戰年今六十三仍令坐之
詳聞鄭錦之事則鄭錦方為入據于海島中周圍以百餘里寨
錦三十餘萬海中諸島皆屬焉其島與朝鮮日本相近有時乘舡
密來擄掠于廣東廣西等處仍即入去雖有鐵騎豈能飛渡而
捕勒乎是故距海三萬餘里居民徒內盡為清野漁採之舡亦令

不得出去洋中沿海數千里之間陸則人烟斷絕海則無片帆之影云云矣

初六日江撫幕天顏題報六月望夜一更時空中有黃紅白青黑五龍往來相闖官民皆聚見至五更量散去後天鼓連响三次人民驚怕變異非常曾於吳三桂起兵之時二龍相闖空中今五龍又出而闖之人心頗疑懼云矣

初七日首譯等自門外入來傳曰雲南捷報昨暮來到吳三桂孫世蕃番義第國柱乃於城陷之日皆自殺云矣某爾孤城久在月暈之中外無來援內竭糧餉度終不能免焉相與自刎而死城中

士民開門引納清兵言天世蕃大行國社殿身避外國云而來
的某某國也

初十日留館左僉都御史張吉午請追崇正學先儒故則方孝儒文正
尚書羅欽順光祿寺少卿顧憲成兵部尚書高攀龍都察院都御
史馮從吾都察院左都御史劉宗正六臣從祀于學宮兩廡以爲風
化第一件事皇帝特令該部奉旨議奏施行帝王之道必以重
道崇儒爲先而明朝之未及表章闕典乃行於今日則其崇祀正
學之誠亦足可嘉矣

十二日留館皇帝設齋親行祭于天壇是日乃冬至日也亦通官引

臣等詣儀于鴻臚寺蓋為明日行朝恭賀禮矣琉球國吐魯蕃諸
使者亦皆進參琉球國使者擗髮而以黃絹裹頭服黑段長衫
吐魯蕃則所着衣服畧與蒙古同其擗髮之習腥膻之臭亦與
之同矣

十九日留館皇帝御筆親題欽賜手卷于巡撫于成龍曰秉性惇樸
廉介夙聞朕心嘉賴俾與節鉞保釐畿輔惟能激濁揚清始終如
一廉潔之操白首彌勵茲來陛見爰賜以詩用示教勵之義且以
風有位焉詩曰自昔宗庶詔勤思吏道澄郊圻三紀始鎖鑰重臣
膺政績聞留贖風期素飲冰勅裁貞晚節廉命日欽承共期

見於塘報中者也

二十日留館皇太子所居之宮前後房殿皆用琉璃磚瓦當用銀一十九萬四千一百八十餘兩云其務盡窮奢不思惜財之意可知也夫此又見於塘報中者也

二十六日大通官衙驛寺罷漏時來到館門外言曰今日當捧方物平明時待令付方物一時載運云云平明首驛以下領方物進去示闕下各樣方物一一照數無弊捧納琉球國使臣亦為進納方物而詢其所納物件則乃螺匣及綾段大匣枝三等物云矣以冊封奏請使出來彼曰該國之喪君今過累年而今始奏請何也答曰喪三年而

後漢人為出塞而為取精忠所俱選為公去今始出來云、

二十七廿留城中多有寺刹鐘磬之聲遠近相聞此南朝四萬八千
寺之遺風也粵自明朝至今今日而極矣

二十九日留館以後使首譯寺密探朝政得失奏考于糖報大小之官
庶恥全沒貪黷成風除拜官爵之際雖曰并用滿漢人才而滿人
專管裁決雖有過失漢人不待輕加論劾至於輔政大臣明珠之
者則雖有庶稱稟性弛緩索額希乞者則辯辭有餘而貪黷無
李爾爾則早有庶潔仁厚之稱而為是漢人無所建白苗海之
既成雲南之切爵至封侯更能手釋政柄此其最優而以此論

之則亦可見將此之人也

十二月初二日留館首刑部送報資一封于銀主處云云惟而扣問緣
由檢行中首等財嘗於己奉等朗原君之行也有一馬夫之
宗之者犯國之禁偷奸良漢的女是投於人怨其現茲路以五十金矣
其漢文為分利者所許欲下于該部一行檢於出事多費用金化其
漢則以誣訴受賂之罪竟至行刑至於宗則幸免犯杜之罪出送
俸之有該國沿之其兩賂之銀准數徵給今此送銀乃其時當徵
未盡徵之餘數云云情亦我對國按法至嚴恐因如索宗之絕法於
他國者略加刑罰終不為集示將何以懲敢乎日後哉

初六日留館禮部取中舉人一百六名第一名王元介孫大名府人其餘順
天府永平府保定府河間府真定府順德府廣平府人也策對
五道第一帝王治尚第二治民第三農食第四士君子立身砥行第
五經史要道也此見於塘報中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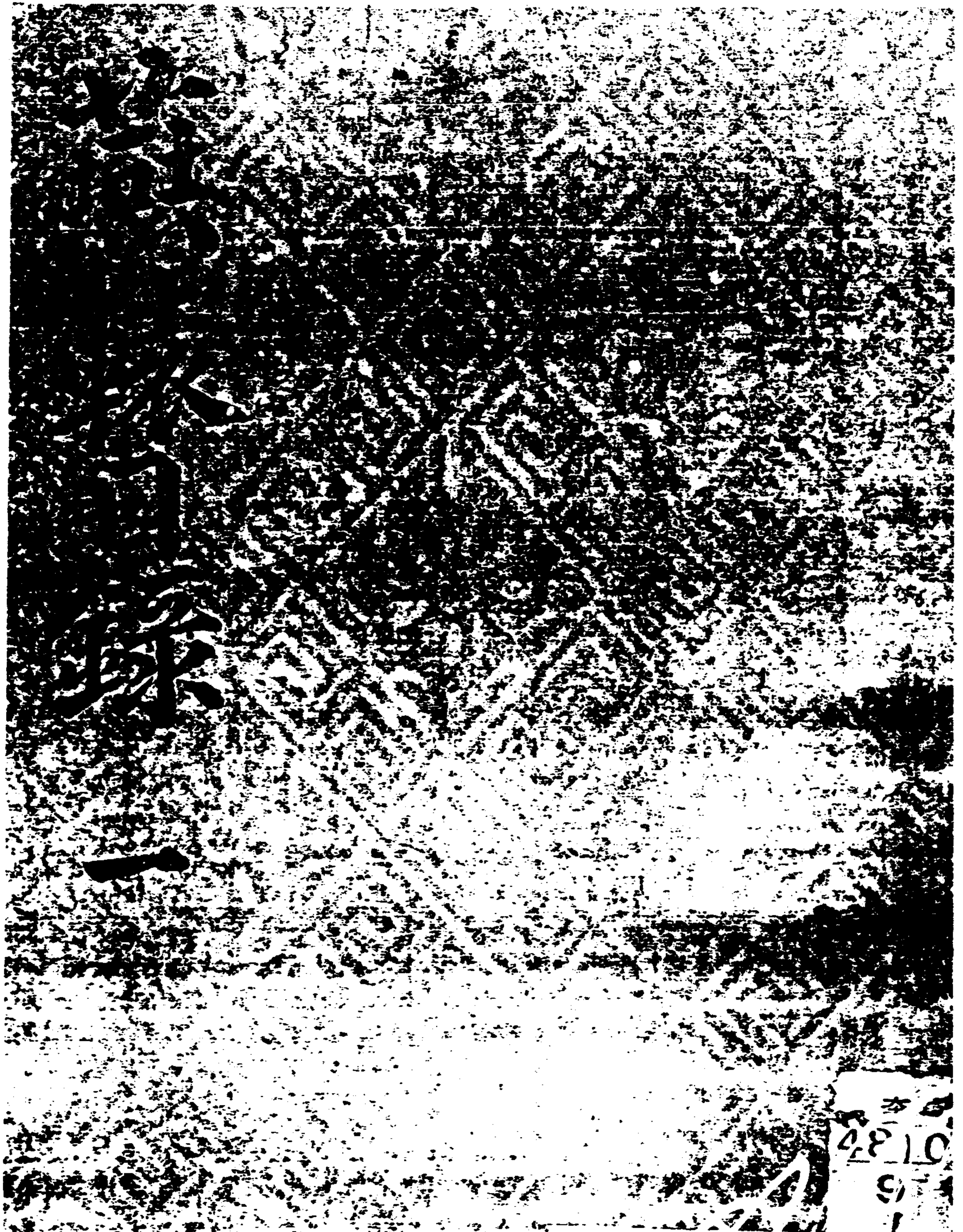
十三日投宿三河縣夜遇隣居老中軍從容探問則今番皇帝打
圍喜峯口也或山或野馳突無常不由正路故無橋樑道路修
治之事乎沿路州府亦無支信之事乎夜則設蒙古帳幕于野中
必露處府內人民身不知皇帝往來之樂云

二十二日宿于東陶行六十里路遠二十餘車載生松各帶三運水

天... 卷九十五

... 卷九十五

卷九十五



4810
9

奎章閣圖書	
部	分類記號
	圖書著者 7520
	一部 9
	內列番號 1
서울대학교	

燕轅日錄卷之一

戊子十一月十三日晴暄高陽四十里宿

當日整頓行李拜了家廟辭了親戚午後出敦義

門望慕華館少歇于大廳到申牌時候三使始辭

朝而出因為查對後查對即考舉火而行至高陽

郡宿于官所

十四日晴暄而西北風起坡州四十里宿

朝食後自高陽起程行十里至惠陰嶺之路冰滑

馬難着蹄幾乎跌倒者為數四矣未候至坡州留

宿官所

十五日晴和長流四十里中火松都四十里留宿
平明自坡州離發行二十里至臨津出臨湍關門
至江邊日候尚暄猶不合冰催艤而渡已候至長
湍午餐訖復起行申候抵松京登望月臺周覽古
跡愴感而回官府

十六日曉雪至明止因風寒青石鎮三十里秣馬金
川三十五里中火平山三十里宿
既明自松京離發已候抵青石鎮秣馬仍為登程
未候抵金川喫午饅因催行前進至金川前江
水淺且冰馬遂驟馬而渡暮抵平山府二倅即故

知也相與握手相歡談笑度夜

十七日晴和葱秀三十里中火瑞興五十里宿

平明自平山移蔭午後至葱秀山水明麗峰巒競
秀為海西第一勝區如蜀中山川故糊獠過此而
啼云巖上刻明時朱之番畫像而白雪普覆不得
尋焉余歎曰山川不改舊顏色而世事翻換如一
奕棋也豈知余三十餘載之後重到此地而猶如
昨日也因嗟惋不已復起行暮抵瑞興留宿

十八日早陰午晴剏水四十里中火鳳山三十里宿
平明自瑞興起程過車踰嶺渡西山驟川午後至

釣水午餐訖後復登程暮到鳳山郡止宿

十九日晴和黃州四十里宿

平明自鳳山起程行十五里至洞仙巖二上等一帶長城橫亘西北關防東南為海西咽喉即我國之萬里長城也有一座關門扁曰洞仙關巖之前後各為十里而巔嶄巖峻急危乎高絕昔日則喬松參天老檜陰翳四無傍逕僅通一路最可畏者有三曰帝與盜也及宜行人若遇着其一則斷難得活故稱爲三畏今則不然滿山童濯自無帝盜之患然但舉目蕭瑟觸物生感惹出客子之懷因出洞

仙門外拜叩了神堂暗祝一行之太平往回因上
馬復行下了巖來又行五里出新南門踰小洞仙
巖去新南午後到黃州次于東軒入夜後使官吏
設舖陳燈燭火把于月波樓與兩妓登臨扁日月
波樓又扁曰湧金亭湧金者每於秋七月望日月
光射于湖面鱗鱗金波隨風蕩漾如萬度金蛇游
泳於波浪之間成了個一區金色界斤斤如湧金
之狀故名焉非此日未曾如是其理誠難測也樓
壓飛堞之上城倚絕壁之巔千尺危欄迥出雲外
一帶清湖週流城底作為天塹山水樓臺之勝無

與為比於海西一路矣已而月上東楹雪色交輝
雖無金色之波換做白玉之界况值天朗氣和夜
色倍加清新也遂使兩妓并唱江湖之詞聲清韻
奇山鳥驚噪於澗水之間野鶴飛舞於雪汀之畔
余歎曰奇哉聲韻之美也雖古之樊素小蠻無以
過也二妓謝曰妾之所唱乃山野農謳豈敢與議
於古之絕唱乎余遂吟一絕曰一炷名香一顆珠
黃崗素稱鳳凰雛好將雙美藏金屋婀娜裙邊任
歡娛二女笑曰情之所牽不管好歹何必金屋余
亦笑曰儂言是也原來一娥名綠珠年十七一娥

名雲香年十六生得丰姿艷冶如花似玉才貌雙
全真個是一雙奇貨也余甚奇愛又吟一律曰笑
蓉生在澁那可染紅塵姣妖蟾宮魄丰茸王府人
眸凝秋水滢眉牽遠山春相對如蘭麝依倚洛水
神吟罷二女笑曰妾等素解文字願釋義而教之
余因逐句釋明而聞之二娥微哂曰妾以村野陋
質生於遐方但以脂粉欲買笑於人而不得者也
豈敢當尚公之盛譽哉余曰你是一塊生香玉一
朶解語花也若向花間立遊蜂錯認真者正謂你
兩人腴腴旖旎之態也豈有過譽之理乎二女又

笑曰尚公勿以瓦石為寶玉烏鵲為鳳凰也因相
與大笑左右進夜饅遂與兩妓喫完了又進清茶
茶罷出欄頭放睛四眺月色如畫山色如畫令人
不覺心懷洒落矣余雖餘興未了然無奈參橫河
傾曉寒襲人遂回寓所查對狀啓便付家信

二十日早陰午雪中和五十里中火平壤五十里宿
平明自黃州起程歷藥果巖二石累二層疊俱是
方解完如藥果之形故名馬行數里細雪亂舞已
而霰雪又大下驟馬前進至永濟橋日色迫曛薰
炬而行穿過長林至沮江之頭雪雖止而雲陰斑

駁夜色昏黑不知江山之勝樓臺之好但聞江聲
之嗚咽而已遂催艤而渡入大同門次于練光亭
矣入夜後諸妓來謁其中丹桂素暎兩娥年皆十
六而才容無備素補花湏西者也余愛如掌珠執
手撫之我的女孩何如是出類拔萃耶兩娥亦歡
悅遂呼爺亡而分坐膝前嬌聲柔語相與嬉戲如
嬰兒之頑耍因使諸妓輪唱歌詞以消永夜余因
吟一絕曰溫柔生香玉嬋始解語花輕盈何所似
秋水映朝霞

二十一日晴和留平壤

當日查對罷後巡使大設宴樂於練光亭盡歡而
罷狀啓便付家書是夜三更天氣和月上東
嶺影落江中水天一色上下交映真個是難描難
形的畫裡世界矣有時乎白雲灘邊棹歌亂起玉
流屏下漁火燐集遂與丹素兩娥橫坐于欄頭并
唱步月之詞不知夜之將曉矣

二十二日少陰而弛順安五十里中火甫州六十里
宿平明後自箕城登程由七星門出路逕冰滑
馬不能着蹄未候至順安郡午餐訖復起程行三
十里至冷井站日已昏黑熱炬而行三更候僅到

甫川府止宿人馬俱極困苦矣

二十三日早陰午晴和安州六十里宿

平明自甫川起行日候漸益清和遠山霽雪皎潔

可愛午抵雲巖站所即揆也少歇于店中復行至安州

此州卽朱蒙古國乃滇西雄府也兩行長林連亘

於十里之餘可知細柳營之形勝一帶澆水縈回

於重城之外便是清南北之界限曾聞柳氏五世

六帥於此敦篤詩書無愧斯文而鎖鑰關防鞏固

西州威名素著也可謂千年壽曲傳衣鉢百代純

緜撼戟門矣余遂與從者數人登百祥樓其在子

城西北盡棟朱欄縹緲雲際俯臨清江崢嶸雄傑
甲於諸州而地接邊荒朔氣浮空瘴烟迷目但觸
動旅懷而已遂感慨而吟一絕曰層欄俯壓大江
前野色蒼茫落照邊回憶七僧東渡事興七千古
思悠然因悽愴而回諸妓來謁而此日卽余清齋
之日也身在殊方心馳家鄉迢遠之痛感時之懷
紆鬱於中不能自裁遂屏去妓娥獨凭旅窓瞻望
南天不覺潛然出涕余歎曰古人之所云心逐南
雲去身隨北鴈來者豈非我之謂歟因傷感不已
焚香默坐而守夜查對狀 啓便付家書

二十四日清和嘉山五十里中火定州六十里宿

平明自安陵起程出北門至七佛寺乃高句麗時

所創也隋煬帝遣數十萬軍東下至清川江望見

有七僧前渡水不沒膝信而為淺長驅大進水忽

驟至大軍俱沒于江中七僧至此岸

此岸即達寺之處也

立

化為石佛遂達寺而名曰七佛寺銘其事于鍾焉

行至江邊水漸奔騰寒聲嗚咽朔風凜冽砭人肥

骨極目蕭條矣忽望見西北上群巒蒼翠涵碧於

半天之外其鍾英清秀之氣看了又看奇了又奇

這是寧邊妙香山一名藥山海東第一名山也古

人所云九峰嵐氣繞空翠四郡江聲落海濤者也
四郡即安州寧遠介博川也遂催艤而渡行數里至細浦
也江登冰而渡又行二十里至博川界候吏迎謁
少歇于店舍復行到津頭江又登冰而渡日已過
午驟馬前進未候到嘉山郡午餐訖復起行至納
清亭日已迫曛熱炬而行過月川橋又渡五龍浦
橋至定州時已三鼓而舉火而行者為四十餘里
矣一行俱困余歎曰騎者尚憊况步趨者乎

二十五日早陰午晴和郭山三十里中火宣川五十
里宿

平明自定州發程三十里之間有十三峙大峙東

南有林海山中有藥水距郡東北有凌漢山城而巨巖斗起峯壑深邃可謂凌漢也午候至郭山

午餐仍為啓程行二十五里至東萊川橋以橋半

分界西南宣川東北郭山界催馬而過至梅五峴

日已暮矣舉火而行人定時候始抵宣川次于東

軒夜設宴樂觀泛舟戲次觀項莊舞此是宣川之

所著名於諸邑者也諸妓分管其職扮演出各樣

來或為項王沛公或為張良范增或為項莊項伯

分賓主坐下項籍與沛公飲酒范增舉玉玦而視

之者三項籍不忍加害增乃陰囑項莊托以釵舞
殺沛公莊入為壽於項籍壽畢曰軍中無以為樂
請以釵舞籍曰諾項莊因拔釵起舞項伯亦拔釵
起舞曰豈可獨舞乎請對舞常以身翼蔽沛公而
若少有空隙莊輒挺身來逼釵銑直向沛公頭上
項伯如飛的以釵迎開如是者數回張良急至軍
門見樊噲曰今項莊拔釵舞其意常在沛公也噲
曰事迫矣即帶釵擁楯直入軍門左右攔阻不得
遂披帷而立瞋目視項籍怒色愕亡無半星兒嬌
妖之態凜亡乎其不可犯矣項籍曰壯士賜之危

酒彘肩左右卽與危酒以刀尖刺一片猪肉而予
之噲張了丹唇開了皓齒口接刀尖之肉而啖之
籍又曰壯士復能飲乎噲曰臣死且不避危酒安
足辭夫秦有席狼之心殺人如不能舉刑人如恐
不勝天下皆反之懷王與諸將約曰先入定關中
者王今沛公先破秦入咸陽封府庫籍軍民秋毫
不敢有所近還軍灞上以待將軍勞苦而功高如
此未有封爵之賞而聽細人之說欲誅有功之人
此亡秦之續耳竊為將軍不取也其辭氣亢厲威
風烈上真個是畫出一偉活樊將軍來觀視者齊

聲喝采項籍憮然不答因此退項莊等領史沛公
起如廁召樊噲從間道而出留張良使謝項籍鴻
門之宴遂完了諸妓相與分班舞劍上光閃爍寒
氣射人非比他邑尋常之舞也蓋於演時其為項
籍沛公張良范增雖屬容易至於項莊竊隙項伯
遮護委的是難况樊噲之一場施威者乎以若嬌
滴上的二八美娥粧出雄赳上的武勇健兒少無
難色毫不錯謬幾千年鴻門宴事况如目擊非憫
且熟焉其誰能焉安州雖有此舞便是俱體而微
者也豈可同日而語哉宣川之戲獨占第一者良

有此也三使遂厚賞焉

二十六日晴而風和鐵山車輦館五十里中火龍川
良策館三十里宿

平明自宣川移舘歷清江坪二十里至清江由橋
而渡南有席山二勢雄傑延亘數十里未候至鐵
山車輦館午餐後復催行前進行二十餘里日已
昏矣舉火而行至龍川良策館止宿

二十七日晴和義州所車館五十里中火濟府三
十里宿

平明自良策館移舘行十里歷紫浦院十里馳馬里十

梅骨隅里^{十里}石橋川^{則十里}夏^{行舟}又行十里至所館中
火灣妓迎候午後復起行二十里歷葛雄嶺又行
五里至蓮峯隅又行五里至熱門嶺但見遼山
增屹朔氣彌空令人心楚不覺出塞之懷搖^二于
中矣因驟馬而進又行五里歷梧木浦又行五里
由南門而入至衙中止宿陪持便付家書

二十八日晴和夜西風留灣府

已候查對罷後設宴樂觀^舞余因事務之冗劇
早歸寓所吩咐匠工整理行具買辦紬帛裁造衣
件鎮日家無少個閑隙查對狀啓便付家書

二十九日早寒午和留灣府

盡日催督各樣等具。𠄎唱唱關。𠄎熱。𠄎迫暮始
靜入夜後諸妓齊來相與歌唱吹彈以慰旅懷

三十日晴早寒午和留灣府

朝食後又設宴樂午後而罷黃昏後府妓真紅彩
鳳軟玉等相繼而來或唱歌調或談時事歡。喜
喜頓忘客愁之為如何也

十二月初一日早雪午晴留灣府

以行具未完又終日汨擾一連打到夕飯而止少
焉兩娥來謁一名粉紅一名國香恣態嬋妍體肢

袅娜真個是一對名花余甚竒愛戲之曰你是風
流班頭艷色領首想必斷了多少人痴腸矣兩娥
微哂曰妾等每欲斷人之腸而人腸不為我斷我
腸還為人斷他的腸頓頑韌而妾之腸反為柔軟
而然也韌軟自如是矣尚公何出此曖昧之言乎
余拍膝笑曰我腸還為人斷之說便是斷腸處也
人腸不為你斷伊誰之斷自古男兒之腸太脆往
往易為色斷人於花柳中能有幾個腔壯者乎越
越的使人腸斷兩娥但陪着笑臉俱稱不然而已
夜深後告歸

初二日晴和留灣府

清晨起來督理各樣等件一已裝好了因倚枕少
憇妓娥香春與真紅衫鳳軟玉妍香等諸娥笑嘻

嘻走將來問候畢皆曰明日即尚公渡灣之日也

故妾等欲拜餞而來也余亦笑曰誠難得你的費

心也諸姬因輪流歌彈已而左右進饌非我朝饌

品皆是中朝製法也每在渡灣之候灣尹別設此

卓要教行人先嘗此味以知中朝之製也乃灣府

舊例也遂與諸娥喫完了復使歌舞吹彈至曉而

初三日大風寒九連城二十四里宿

渡江狀

啓便

當日午時到鴨綠江邊狂風大作塵沙彌天人馬
難進江水初合不能直渡而沿上流逶迤而行十
餘里始登冰風打水滑三步九顛僅渡鴨江行一
里又到小西江雪覆冰合不知甚麼為江甚麼為
地矣又行四里渡中江行五里過方陂浦又行五
里渡愛河愛河即三江也復行數里至九連城乃古之鎮
江府也有九城相連故名而今無存焉又稱婆娑堡城
又行二里過恒頭河子又行四里始到九連城站
即高麗內城舊時露宿而或中火之處我曾於此
地鋪毡於荒蘆亂草之中喫午飯處也昔日則但

見樹木陰翳野草平蕪只是一區無人曠郊矣今則柵市移設於此人烟注集塵肆櫛比蹄曰外柵門皇城大賈分居交易比昔迥異焉自離京以來日寒初酷一行喫了半日寒苦人馬皆困倒難振矣鴨綠江一名馬訾水色如鴨頭故名源出白頭山流數百里繞咸吉道界又過關西江界昌城至義州分三派其一南流為鴨綠上流稱九龍洲又稱龍濟故稱義州為濟府者此也鴨江西至九連站數十里之地不見田野原林但見川渠砂磧而已余怪而問諸濟人則曰今夏大雨連綿潦水漲

溢三江合流渺茫無際田疇邱原化為碎石之場
而民舍亦多湮沒也余歎曰桑田碧海復更改者
誠不誣矣

初四日晴寒留九連城站

朝食後重整行李召趕車的給車費三十兩銀子
使之趁曉來待

初五日晴寒午後少弛溫井坪四十里中火柵門四
十七里宿

平明自九連城始乘車而行過蝦蟆塘馬轉板至于
金石山卽康世壽舊院處也山明水麗洞壑幽邃

無愧隱者之所居矣又行過了中衙門至湯池子
卽温井坪昔我入北時露宿處也路傍有温水而
水常如湯故名湯池子午餐訖復催車而行過了
乾浦細浦柳田至湯站卽湯山城或云明時所築
今頽廢矣又行數里至葱秀與我國葱秀畧同心
頗怡然又行一里過魚龍堆至車踰獐項乃山谷
小路而如獐項故名遂踰獐項過了王八石上龍
山至柵門沿路往口有幾個人家而且官途坦
比前迥異雖無行役之苦只是山野童濯沒了箇
一株之樹半席之陰但見得滿地白雪任風亂滾

極目蕭條而又況柵市移設在九連城站民舍荒
涼塵肆掃如無復舊時之繁華矣余嘆嘆曰國初
封疆時自鴨水至柵共百有餘里之間不許人住
居又不許耕種為兩國隙地故參天之松連抱之
杉翁翳周匝蘆葦荆榛叢茂縈迴僅通一路而野
水迷漫瘴烟晦曖毒氣縱橫於路側山魈嘯於
林梢不無其憂余曾於溫井露宿時四圍熱燎衆
皆搖鈴以為警夜之具矣怎麼這幾個年間變成
了一區赤光_二冷清_二的蒼茫黃砂之磧吁柵門
之內人烟撲地百貨輳集自古盛稱大都會矣而

今安在哉信乎其人間一瞥不知多少春秋也大地山川固如是一場夢幻沈草露之浮生乎宜其渥然丹者為枯木黧然黑者為星口我非金石之質豈不磨蘊於消長之間耶因喟嗟不已下車而歇于于姓家

初六日早雪午晴和四台子五十一里中火黃家庄
五十四里宿

開東時候自柵移發歷安市城古址又行數里由舊柵門至鳳凰城下行期甚迫不得入城催車前進渡三义河午至四台子中火又起行踰麻姑嶺

至伯顏洞此是元伯顏駐軍之處也又行十里至松站店肆櫛

比甚是殷富又策驢而進逾小長嶺大長嶺山谷
縈迴委折亂石橫斜層疊車轂或傾而陷或攀而
筭雖坐卓中還不如徒步之為便也又行數里至
劉家河今夏秋之交潦水漲溢幾萬頃良田化為
一黃沙磧矣因回首喟嘆而過暮抵黃家庄宿

初七日晴小寒通遠堡三十五里中火連山關五十
五里宿

未明起程至八渡河二流委曲一水八渡故名八
渡河縈迴數百里還入其鄉故又名還鄉河宋徽

宗見此水之還鄉嘆人不如水也巳候到通遠堡
午餐訖又催車前進踰分水嶺高家嶺俞家嶺亂
石堆積山路崎嶇日又迫西而明日欲早到狼子
山故越連山關宿站又前行五里至旅店買飯喫
而宿于宋姓家

初八日晴和甜水站四十里中火狼子山三十里宿
鷄鳴後起行至會寧嶺已黎明矣間關踰嶺渡甜
水河至甜水站道路之崎嶇峻險為東八站之萃
一也巳候又起程捨青石嶺大路由帝狼谷出青
石嶺下路而行迺回者為二十餘里此是青石嶺

之太險故也申量始到狼子山關以外一帶地方亦皆為潦水之所浸三農俱荒而路上沙土則盡為漂流空餘沙磧極目布滿車轂亂歎亂竽車中坐的似篩中之米粉如盤裡之滾毬東歪西盪前衝後撞殆同戲場上一個傀儡也下車而入炕中則心神眩搖如坐緯車之上殆不能自展矣宿于王姓家

初九日晴暄王寶臺四十里中火迎水寺三十里宿平明自狼子山起程行二十餘里至摩天嶺名雖摩天乃一座小嶺也又行數里至王祥嶺此是孝

子王祥之古址也。嶺下有兩三家山圍而溪抱地勢稍得平廣以桑麻為籬雜以白楊鬱然成林又有數頃田種兩麥黍秫之屬于仁然不饒不薄的。一個村庄儘無愧於孝子之居矣。因躡蹻而欲問往日卧冰得鯉之事。古老皆無在者矣。從何而得問耶。但回首瞻愴而又行一里至石門嶺比摩天更小而崖石犖确勢甚峻險。因驅車前進至王寶臺中。火午量起行至高麗菑。乃丙子校虜人多少之所耕作處也。美田俱為今年潦水之浸漫茫茫一沙塲而已。因行至遼東城下由東門而入。屢肆兩行相續自東

城底至西城底而止毫無間斷旗旋百隊弄風耀日物盛人阜為盛京之副矣一直向西而行五里許至西門遂出城而至

關帝廟通辭先詣廟中言於廟主而內外三門及正殿門已為洞開矣外門乃牌樓而左右又有挾門下車而由東挾而入至中門乃一座中堂也步上九層階級只見多少懸板俱在其內乃一直向北而至正殿又由東挾而入近處之民相携相呼亂嚷亂擁圍繞圍匝使通辭呵噤而行四拜禮因瞻仰聖像冕冠綵袍玉帶牙笏龕內左

右有兩個侍童榻下右有關周二將軍左有趙王
二將軍而趙將軍則白鬚也龕室左邊北壁下又
有一龕安

聖像乃金身也而前有二位配將右邊北壁下又有
財神亦有二位配神俱行禮畢出正殿由階沿
而下至東廡乃是張桓侯也又轉向西廡乃常
山趙將軍也又皆行禮而退管廟的又引入一殿
亦安聖像綵袍青巾兩臂俱活動矣又四拜叩
頭而退一廟門催車繞城而行望見路左有一
白塔乃尉遲敬德之所創建高數十丈雄傑殊甚

無奈日已迫暮不得一翫遂驅車疾馳望迎水寺
而來左右旅店多為潦水所漂所餘幾家極目蕭
條又行至太子河乃燕太子丹之亡走處也因捨
迎水之站前行五六里至車卜旅店買飯而喫宿
于賈姓家

初十日曉雪朝止午晴寒爛泥堡二十八里秣馬十
里河二十七里中火白塔堡四十里宿
平明自迎水寺起程至烟臺河堡以空心之致入
店肆買喫菜湯炒肉燒餅之類後催行十五里至
十里河堡不八午站直向夕站而來至毡匠浦有

關聖廟而不得展謁因奔馳而暮抵白塔鋪留宿
十一日晴極寒永安橋五十里中火神農店四十五
里宿

平明起行寒候甚酷人皆呵凍行十里至渾河乃
是舟楫所濟而淺且冰焉如履平地又行十里至
瀋陽乃盛京也正門則皆有甕城甕城左右皆有
門二樓則俱是三層而城內有南北廛旅櫛比相
連極目華侈因入南廛旅憇于廛炕因趕車的之
遲留不能即行拖到申牌時候以餅湯果肉等物
点心後始登車日已向西驅車前進出城外數里

乃願堂寺也。外有牌樓而殿閣重疊。思欲一翫而
前站太遠。遂策驢奔馳。越永安橋。午站。直至大方
身日已黃昏矣。行中諸人皆在此店歇宿。而余獨
不應。一連催促。而驢子亦不肯前矣。因鞭打幾下。
僅得起程。帶月前進。雪月交輝。渾是玉粧世界。然
無心看翫。一直催行。三更候。始至神農店。車不傳
轍。馬不停蹄。一氣奔馳者。為七十餘里。而路程甚
遠。與我境百里相同。云遂宿于廬旅。

十二日晴。和新民屯四十八里中。火白旗堡四十二
里宿。

平明起程行十餘里至孔家子雖有幾個店肆而甚荒涼焉又行十餘里至周流河堡有一座小城向南而門開因捨城循河而走又渡五道河至新民屯這是一個大市鎮也戶口為萬餘而屋肆連亘數里各樣貨物俱全頗為開熱因午餐訖又催行渡柳河溝至營房日已西沒乘月色而行至白旗堡店宿于張姓家

十三日晴和二道井五十里中火胡家窩棚三十里宿

平明起行二十里至一板門卽半拉門也市廛

兩行綿亘於數馬場亦為阜盛焉又行二十里至
二道井乃場日也人馬雜當道路擠塞僅入廬旅
午餐訖因催車前進行三十里至胡家窩棚卽新
店也遊宿于店裡

十四日雪午後止中安堡五十里中火廣寧店三十
八里宿

平明自新店起行至十里杠子雪花亂飛冒雪而
行五里至烟臺這是威繼光之所設備而自此始
焉又行五里至小黑山廬肆之盛民物之富有勝
於新民又行十里至羊腸河雪始止而日色晴霽

登冰而渡又行十八里未候至中安堡北距三十
里有北鎮廟安鑿巫閭山神乃明時所創極為壯
麗今則東頽西歪上雨傍風僅存棟樑滿目淒涼
云而又因行程之促迫不得一覽遂催喫了午餐
一直奔馳至舊店里北去十里許卽廣寧縣有李
成樑牌樓而忙未能往因宿店旅主家有花草一
盆長可五六尺葉似竹而厚枝葉俱青如梳子樣
問是甚木則荅云柳桃也桃枝接于柳者也
十五日晴午後風間陽驛四十里中火石山站四十
里宿

平明自廣寧店離發行十數里至常興店二肆富
盛稍勝於前午到閭陽驛店肆亦是櫛比午餐訖
因復起程越十三站而至禿老婆店日已向西而
大風尤起塵沙散漫不能前去因留宿于禿老婆
店

十六日晴和雙陽店五十里中火杏山堡四十一里
宿

當日鷄鳴時候自禿老婆店起行至大陵河天色
已明矣行十數里歷四同碑已候到雙陽店午餐
復登程行數里過小陵河堡渡小陵河橋至松山

堡店肆稍盛於前矣又行十八里至杏山堡店肆
比前大勝矣

十七日晴寒連山驛四十八里中火寧遠衛三十里
宿

當日平明自杏山起程行八里至十里河店肆比
前凋殘極目蕭條矣因驟車而到河邊河水雖冰
尚不堅厚而且鬆車轍陷馬蹄沒僅二渡了又行
十里至高橋堡屢肆羅列旅店櫛比大勝昔時又
行十里至塔山所山形如露積焉又行十數里至
二臺子店肆甚為富盛又行六里至連山驛店肆

撲地人烟，麩集乃是一都會。而又值場日，車轂擊人，肩磨雜貨，舖地連亘數箭之地。因午餐訖，又登程行十餘里，至乾柴嶺。雖無一株之木，頗為險峻矣。因催車而行，至寧遠衛。繞城而進，至廛里小憩。後徒步入城，觀祖大壽、祖大樂牌樓，更加讚歎。因歸旅次宿焉。

十八日晴，小寒。沙河所三十里，中火中後所四十八里宿。

平明自寧遠衛登程，過七里坡、五里橋，午量至沙河所。城雖小而厚完，遂入城裏。至店中有頑耍二

童一兒着青衫青袴一兒傅粉渥丹插滿頭花朵
着拖地紅裙手執檀板相與唱^曲個曲兒要討錢鈔
矣遂午餐訖復催車前進過半投店望河店東關
驛二臺子三臺子皆有店肆而不阜獨二臺子三
臺子為盛焉行至六渡河橋上則以糖秫杆鋪之
連渡二橋中量至中後所城市殷富產絨氈駝毯
氈帽等件宿于廛里

十九日晴暄滿井舖四十六里中火中前所四十一
里宿

既明自中後所起程過口魚河口亮水河午量至

滿井舖午餐復起行前進皆是殘山短麓石磔舖
滿車轍東歪西仄撓且等焉困苦難堪間關前進
踰大小松嶺申量至中前所城市頗殷富因宿于
廛里此日卽大寒節候而日候尚和如春焉

二十日晴暄八里堡二十七里中火紅花店十六宿
平明起程行十七里過王家庄由間路向南而行
十許里至姜女廟廊廡頽落階砌歪仄甚是荒涼
正殿安姜女塑像乃秦時人也其夫范七卽藪姜
於長城之役不得生還沒於邊塞姜女姓許名孟
姜無晝無夜登家後巖石上望焉石上足跡完然

後來聞其夫死許氏往海邊哭而投海因聳為石
佛至今在於海濤之中不能辨明焉後人立廟於
其家居古址名其廟曰姜女廟名其石曰望夫石
石北面勒曰振衣亭是六隅而基址尚存乃明
時所建也正殿龕室額曰芳流遼水其聯曰千古
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常後柱聯曰栢葉一
生常自苦梅花終古不知妍東邊額曰而變國俗
其塑像回首有淒然含淚之狀矣有兩個小童左
則女童手持玉帶右則小童肩荷小傘余不勝傷
感徘徊淒愴而出殿後又有一殿中有一榻設蓮

花臺安創廟時皇帝金像左右榻上亦有蓮花臺
臺上安金神不知是為何也庭西立大石碑三坐
乃萬曆間記事也周覽訖出廟乘車行數里有一
寺額曰文殊廣法寺仁在高阜遂下車步上三門
雖關而夾門開焉向北而入左右各有丈餘石臺
臺上有樓左鍾右磬正殿左右皆有廊廡有幾個
小沙彌出觀焉正殿扁曰大智洪慈榻上安三佛
正中是文殊佛仁前有小佛小神數十位左右邊
北壁下卓上各有主佛與小佛皆是金身而逾黑
無光極其淒荒文殊佛背後安其時皇帝金面塑

像身着黃袍而金光粲然耀目因趕車的之所促
忽亡而出復登車而進不上四方臺直抵山海關
由甕城門入體城門向西而進又入子城門又行
至四牌樓入虹峴內由南虹峴出向南而進出子
城南門由大路向南直向十餘里將近望海樓壑
山為路極其平夷以其土築於路右壘內築臺
為瞭望之所壘盡處橫築一城由城門而入又有
一重城門一直向南而入至望海樓下左右設砲
臺乃萬斤大砲而安於磨盤車上其製樣排置極
精極巧難以口舌補也城堞皆有砲車有重兵鎮

守這都是昔時所無者也其費不下幾百萬金矣
因入東邊小月門又入一門涉木階而上樓乃是
新營者非舊時所在者也昔有望洋亭題額矣今
則以御筆代以元氣混茫外面額則澄海樓也因
放睇四顧則海色蒼茫水漸橫亘但一望無際日
已夕陽始下樓催車而行乃是捷徑間路一大川
無沙渚而渾冰是磨石渚也車路嶮燈雖窄坐而如
磨碾篩過之狀其苦誠難堪矣行四五里許僅出
石路策驢而進暮至紅花店宿于呂福家

二十一日深河驛五十二里中火撫甯縣四十里宿

既明發程路途甚險無異東八之站催車而過范
家庄大理營至王家嶺之路尤險間關踰嶺午至
深河驛雖有小城而如土壘午餐訖不由城內自
城外南路直下乃是捷徑然還為坦夷行數十里
至一山麓上有一古寺乃下車步上山門但有
一個小童而已東有鍾架由鍾邊過東廊至正殿
額曰彰善癉惡榻上安一尊金佛左右安十王雖
問童子而不知寺名也因出寺復行數里路北一
箭之地有一廟堂將欲下車之際有一女年可十
七八而面如花朶眼若秋水騎驢睇視而過衣裳

雖是村婦其咨容真是拔萃者也乃緩步而至廟
前三門牢閉而挾門半開因入裏面正殿以金字
額曰協天大帝乃是聖廟也乃開門入則又殿
內額曰英風如在仰首瞻視則冕冠黃袍左右有
侍童配位四將西則關朱東則趙王塵埃彌滿因
拜於甍輓塵土之上復出廟門登車催行又至一
庄甚為繁萃庄前石上有兩個兒女踞坐而抱兒
頑耍容貌秀麗肥膚瑩映非比村女言也因驅車
至撫寧縣城東門外寓於秀才翟謙家裡日尚未
晚乃徒步往路北白衣寺殿內安聖帝塑像東

西邊北壁下各安一位佛像左右安六位配位因
拜了又拜出後門又有一座殿閣正中額曰苦海
慈航左額曰南海慈航右額曰蓮臺上品因開門
而入寺名雖是白衣榻上安七寶粧嚴觀音尊像
東西安十二位尊者左右北壁下各安金佛周迴
禮拜小沙彌一人持杵兒一拜一撞鍾拜訖因給
清心丸一丸出廟門轉東則有一高臺上有丁字
閣額曰山海笙歌以金書之四無階級末由上下
問諸行人則此是倉氏戲臺云因回來轉入城內
行十餘步街北有孫氏貞節門以石為之而勒於

石者也又有一旌乃齊氏貞節之門而以木為之
朱漆而金書者也街邊又有一旌乃李氏之貞節
門也而亦以石為之者也一直向西而去則左右
屢肆頗為繁華行一箭之地有一牌樓大書額曰
提督六鎮門楮又曰兵部尚書翟鵬俱以金字書
之前後皆同由牌樓門又向西而行則有二層四
牌樓乃十字街也四面皆有屢里乃一大都會也
因歸旅次與主人翟生叙話此人即翟尚書之十
一世孫也頗聰明識字年二十一兄弟為三人其
一弟年十四名祥二弟則十一歲而亦聰敏翟祥

讀孟子天時不如地理地理不如人和之篇云

二十二日晴和雙堃堡三十五里秣馬永平府三十
五里中火沙河驛六十里宿

鷄鳴起程由撫寧縣東門而入過牌樓與四牌樓
出西門披星帶月而行曉色蒼茫朔風蕭條趁人
肥骨因下門簾子不知所徑之為如何而至雙堃
堡天色始明寒氣尚酷不敢開了門簾子但催行
至永平府循城而南過青龍河至店中午餐訖復
起行過鴨子河道路渾是細沙風吹則如烟而起
白晝昏蒙過范家庄堃夫臺又行二十里至野鷄

屯店肆不殷居民亦鮮小因驅車而過了張家庄
至沙河驛次于顧姓家之東路之北有一廟名
曰三皇廟正殿額曰保合太和榻上安三佛之前
羅列着許多神位東西壁下各安四位神像榻
之左右北壁下各安大佛像殿後又有一座殿閣
正榻上安三佛之後又安三皇金像不知是何時
三皇也問諸主僧則亦糊塗矣

二十三日晴和榛子店五十里中火豐潤縣五十里
宿

平明發程午後到榛子店城門外有石橋名曰青

龍橋之北有關廟正殿額曰欽錫英烈祠
左額曰英靈赫濯右額曰德祐生民前殿曰萬古
如在右額曰忠扶漢鼎又有一額曰浩然流行中
安聖像冕冠黃袍王圭因拜謁於甍上塵埃之
中乃瞻翫左右則東西壁渾是畫圖左右配神六
位因給主持一箇清心丸出廟門行數十步又有
一廟乃西向正門而向西一殿安佛像非金身也
殿北又有一閣亦西向也中安張桓侯塑像榻前
左右有一隻華表柱上蟠着青龍張牙舞爪向
空騰躍完然如生因詣拜謁于塵埃之中出門仰

視則額曰澤潤生民因出廟門徒步而入城門
雖設而無城堞行了一息又有一門又行一息又
有一門這三門內是榛子店也行出門外數十步
有一官舍額極宏傑門上大書灤州營又行數十
步入廛里午餐時乃未初也店裏有李文蘭古跡
而今無存焉自撫寧縣至榛子店往北設土幕有
幾個人守之粉壁上大書西去榛子店為幾許里
自榛子店至豐潤縣相去數里許亦設土幕大書
豐潤縣筭幾鋪合有十有餘鋪以流丐十數人持
兵器守之這是响馬賊故也昔日則往北有留養

局留養流丐也今則破其局而移其流丐於舖中
也因起行催車前進過牛欄山小鈴河五里臺至
豐潤縣繞城而南寓於劉振聲家仍入城南門循
城底而東至文昌閣即城之東南隅而二層六
隅閣也管門者不在不得看說又向東門而去則
城下又有一樣文昌閣額曰天下文明因循街
而行因出南門回寓焉

二十四日晴暄沙流河四十里中火王田縣四十里
宿

平明起程歷張家店還鄉河至一村有一廟因下

車至廟口名三官祠前殿安三位塑像左右亦有
配神無題額殿後又有一殿安佛尊左右亦有侍
立尊者外門東邊有二層鐘樓以甍為之看了一
回出寺門催車而行數里至沙流河城門上石面
額曰沙流河鎮因入城內厓里午餐訖復起程至
東八里堡有一寺口門額曰勅賜萬壽興隆寺入
寺內東西各有方臺口上以甍為樓東樓懸鍾一
口正殿額曰佛光普照照曰講法雨霏花洞開覺
路揮慧雲覆笈普渡迷津殿內龕上額曰神靈默
佑正門上向北額曰慧日延暉榻上安三佛左右

亦有配位尊神榻之東邊北壁下有一小龕口中安

聖帝塑像綠袍青巾額曰萬古一人因伏地拜謁由後門而出則庭際廣濶又有一殿額曰毘盧真世殿內龕上以窓戶開之使之開窓則蓮花臺上安金佛左右列着小金佛龕內後面安 皇帝塑像亦金身榻前立一牌書 皇帝萬世 萬世龕之東面北壁下安一位金佛 前列安着小金佛幾至五十位因周覽訖出寺門行不幾許有一橋以石為欄橋名亦青龍橋過橋而西不上幾里

有一祠以金書之曰藥王祠因入寺門則亦有壁
臺鐘樓四座殿閣自東亘西一字向南而東茅一
殿正門額曰霖雨蒼生左門額曰雲行雨施右門
額曰膏澤濟衆門內龕上額曰德徧羣黎龕之前
左右樑上額曰陰雨及時中安神位左右壁下安
配神八位殿之西茅二殿額曰大光明藏安金佛
佛前又安黑大佛白眼睜視而倚坐不知何佛也
左右壁下亦有八口異斂俱馱著蓮花臺其上安
一尊金佛又殿西茅三殿額曰胎我景福內額曰
康阜生民左額曰安瀾永慶中安尊神三位左右

安配神八位北壁下安佛像又葦四殿額曰捍災
恤民左曰蟲錄潛踪右曰螟蟲悉界龕上額曰昆
蟲毋作左壁額曰誠然靈應榻上安藥主着金盞
金甲上以七寶粧嚴左右有配神八位因出祠門
不上幾步又有一祠名曰真武祠額曰金殿龕上
額曰德配元氣榻上安金併左右橫着四五株櫬
所見凶慘因出祠門不入王田城內寓於何姓家
二十五日晴和黃山店五十里中火邦均店六十宿里
平明自主由起程行八里至八里堡城由東門而
入屢肆類殷富矣過了十字牌樓後又過了

一產牌樓出西門而行至大小枯樹店這樹不知
為幾百年長枝木而常無一葉之生而但其枝條
潤茂故名枯樹也此地若大有則葉生云矣今則
無大小一株故問諸土人則死為幾年矣余歎曰
自古盛稱此樹者久矣令我重来而不可復見噫
胡為乎物不如此乎因回首略嘆而行過柿子山
至鱉山店午餐復登車催行過雲田寺而不得一
翫又行翠屏山全勢秀麗翠壁聳立真個如翠屏
之鋪列也又行五里至漁陽橋下有四虹觀即
向北之路也捨橋而西至薊州東門甕城二匝且

無城樓由甕城而入正門向西而行一箭之地由南街而行有一塔左右家坊極其宏傑所經諸處中為茅一也又轉一曲向西行里許至西門內路北即卧佛寺因下車步入則正殿三層高樓上層額曰觀音之閣下額曰具足圓成由殿後門而入龕室主壁後面安一產假山佛榻即南海落迦山也有青龍盤旋於其下觀音大士粧嚴七寶而跣足蹠坐於榻上左右有小童侍立右邊木叉童子駕雲而文因循榻右而前至佛前當中接觀音丈六法身金面而粧嚴七寶前有一榻安一尊金

佛左右有二尊者侍立額曰普門香界聯曰琳氣
近神畿慈雲廣蔭法筵傳古跡寶月常新遂由右
邊層榜而上至中層又由層榜而至 upper 層始見佛
面頭上光明之中化出九位小金佛因叩頭拜謁
遂下榜而出後門左邊有六隅甍屋中立著一尊
神位向北合掌而立向南又有一殿安金佛一位
左右有二尊者侍立龕之東邊北壁下又安一位
金佛殿後又有一殿龕壁下安一位金佛又前安
三位金佛東壁有甬門因開而入則北壁下安
闕帝冕冠絳袍二配位侍立左奉印右持刀矣因

急忙伏地拜謁復由甬門而出又由西邊甬門而
入則有一金佛醉卧於卓上世傳以為李青蓮而
前有酒臺盃樽矣因回身出寺門復登車而出西
門乃二層門樓亦兩重甕城矣行過徐家庄至邦
均由城門而入無門樓左右廛肆連亘數里而開市
者不過幾處而已因出西門外有門樓行里許宿于
廛里

二十六日晴和棗林庄四十六里中火通州六十一
里宿

鷄鳴後點檢行李登程漫行至白澗店天始明踰

段家嶺行十五里至潯沱河口。水淺且狹，馬由橋而渡。此是漢先武履險處也。左右俱是沙場，且村落頻遠，雖有兩三人家，決無臨亂安堵者矣。馮異之麥飯從何得來？想必有軍中餘下的些少之麥，急炊而進者也。行不數里，有一廟而無人管者，廟門常闕而前有高臺，臺上有閣極宏壯，此乃倉氏戲臺然如此。荒野那有觀翫者乎？距此五里有三河縣城郭，而不由此路取徑而行，至棗林庄。昔日則雖無成林之棗，徑口有幾株繁茂矣。今無一株，只有短柳與白楊而已。過了庄，入於廬里，午餐訖。

復起行至夏店。肆頻盛矣。又行二十里至燕郊堡。卽塲日也。別無他物。都是猪也。人衆喧嚷。捱擠。唱道。前進至白河水。河水甚淺。而石橋橫跨。其是昔時不見者也。渡橋而至通州城外。左右屋肆綿亘。絡繹。牌號雜錯。金碧交輝。總牖奇巧。浮貨漢物。色。形。眩煌。人目由甕城門入外城門。內雖無門樓。真個鐵甕之城也。左右屋肆更勝於城外。人衆尤匝。車轂相擊。僅。前進至子城下。二層門樓。有數三題額。而坐。在車內。且衆人圍雜。不能探頭。仰者。直入子城內。亦與外城一樣規模。一般奇貨。

遂入于北廬里寓於于姓家黃昏後遊徑至習衣
市這是北方舊規也各廬坊內點著羊角琉璃諸
般燈火光輝玲瓏燦若星影翫了一回兒因歸于
寓所

二十七日晴早寒午後少弛至河館五十二里宿
平明離館至八里堡渡永通橋此橋下有虹蜺大
艇往來其下而今則冰不得行艇馬自通州至皇
城皆石路而葦确嶺磴車轍等磕誠極難堪行三
十二里至東岳廟口在朝陽門外數百步宏敞侈
麗殊非沿道所見廟寺之比元延祐中初建明正

統時廣拓增修康熙庚辰三月災諸像盡燬左邊
通院存康熙特赦內帑并令京外大小官負推助
閱數歲始成其後雍正乾隆亦屢帑修改云正門
前東西南三面皆有牌樓扁一曰永鎮國祚一曰
三清上界一曰太虛洞天皆以綠琉璃甃等成其
璀璨絢爛殆難正視樓南則用白石架成加以金
碧尤極奇麗正門扁大書東岳廟三字門內對立
兩簷鍾鼓樓過此又有一門左右有夾門自此至
正殿前可百餘步而皆築石為庭石皆白絕無點
塵庭中有大金爐二坐一刻大明萬曆造也一爐

尤大上有蓋如屋刻嘉慶十年長明香燈老會敬
獻正殿為簷兩重覆以青瓦扁曰靈始化育殿中
安一塑像卽東岳大帝也具袞冕威儀甚嚴左右
侍衛仙官共二十餘人幢幡器仗件件整勅殿中
央懸大琉璃長明燈卓前昔有大鐵釜可容數十
斛盛漆其中點着一炷如腕大的心兒晝夜不滅
矣今無存焉正殿左右附以翼閣屬于左右月廊
二二各四五十間其北頭折而屬于正殿旁翼屋
者為十餘間其南頭折而屬于門之兩旁者又各
十餘間廣可百餘步周以石砌其高及有正殿月

臺皆長可數十步減半為廣其南畔置一香爐高可三四尺月廊每間亦各置一爐前面皆築戟門楣各揭一扁書某司某司皆真官之號而善惡報應昭著每室各安二位神像左右列着侍衛神像冠帶者抱冊操筆各書人間衆生善惡而皆一一判決焉使為善者有往生之樂造惡者有刑戮之苦六道輪回歷歷可證有抽腸刮目之慘有斬頭解肢之苦有剉燒舂磨之酷善者見而聳肩惡者觀而縮首焉庭中石碑森如林立不可盡記正殿後又有一殿扁曰育德之殿中安二位塑像一位

冕冠黃袍一位凝粧盛飾是東岳大帝兩堂云自
前殿甃石為路屬之後殿月臺高與前階等廣亦
如之而南北詘三分左右亦有廊屋其中皆有塑
像後殿之後又有一帶高樓二層正中一樓
扁曰玉霄宮安

王皇上帝塑像王面王圭被袞垂旒上層諸樓皆安
神像樓下安數十位娘工塑像粉面凝粧十分精
彩完如生活座榻之前各有一株小牌各書某娘
娘稱號這都是降福生化之理也其中一位娘工
座下有數個孩兒繞膝而坐這是主生產之神位

也廟前卽朝陽門外大路殆有磨穀擊衽帷汗雨也廟外有牌樓彩墻間井市肆之盛為大世界矣今則廟前牌樓崩頽欲重建而盡毀牌樓繞建穀三十丈無穀層梯而已因驅車而入外城門行火許始入朝陽門歷東四牌樓又迤而南由城根而行十餘里至玉河路口南有三簷城樓極其巍竅此是崇文門也逶迤而西渡玉河橋至館所沿路之富麗瑰竒不可彈述也

二十八日晴和留玉河館

當日寅正 皇帝動駕于 太廟三使臣俱公服

入天安門內抵迎後因入侍于保和殿。皇帝因賜宴，宣醞於皇榻前，賜三使賞緞各十匹。正因為退朝還館，裡朝食後三使臣率任譯詣禮部呈表咨。文明時我使到燕窩，接於禮部近處。順治初為設此館，以處我使，以其在於玉河之傍。故名，或稱南館。乾隆壬辰賜名會同館，尋為鄂羅斯人所占。其人性悍難制，更設我一館於乾魚衛。衛名曰西館，此則古都正之宅。正有罪被戮，其家人多自殺。故其中多鬼祟，但屋宇敞麗，勝於玉河館。俄羅又移占之，以故我得復留於此宸垣識畧。

曰在東安街者曰北玉河橋在東江米巷口者曰
中玉河橋在東城根者曰南玉河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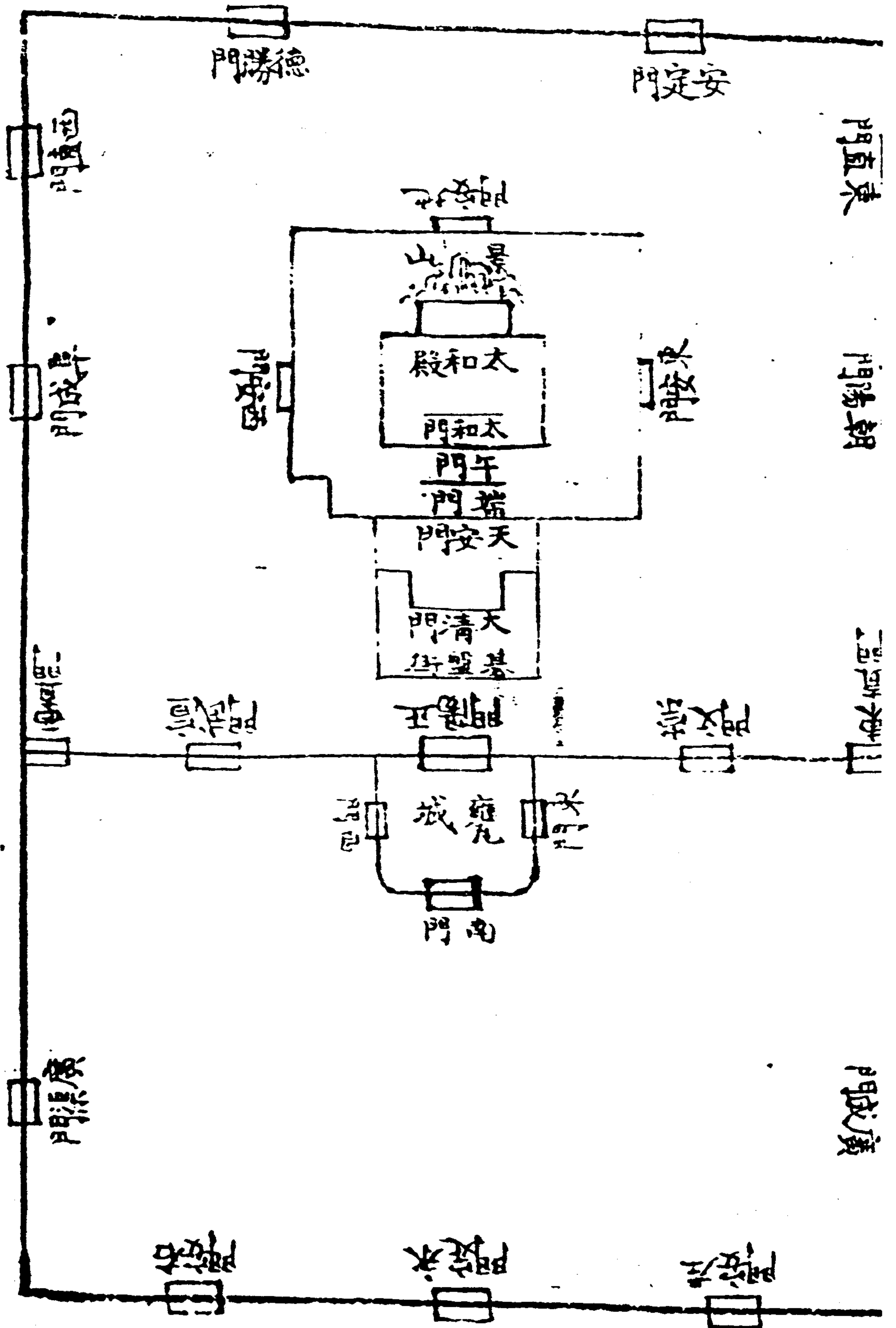
二十九日晴和留館

午後三使臣詣鴻臚寺演禮而還此日卽除夕也
異鄉客愁自不覺淒然遂兀坐達曉國俗晝夜放
砲二卽紙火筒如火箭筒而小者也先以地火小
簇火連繼於繩子而間以紙火筒隔之先點繩頭
火線則次茅點着連二炸簇其聲咕喇不休至大
簇火處則一聲轟烈其火筒直上空中以是終夜

附
皇城圖

皇城全圖

卷九十五



燕巖目錄二

奎
4810
9
2

95
—
二九七



奎章閣圖書	
部司	分類記號
	圖書番號 4810
	一書冊數 8
	內別番號 2
서울대학교	

燕轅日錄卷之二

附沿路事實

康世爵荊州人其祖霖從楊鎬東援我國死於平山
父國泰官清州通判萬曆丁巳坐事謫遼陽世爵
年十八隨父在遼陽明年大清陷撫順游擊將軍
李永芳降經畧楊鎬分遣諸將摠兵杜松出開原
摠兵王尚乾出撫順摠兵李如栢出清河都督劉
綏出毛嶺國泰父子從焉清伏兵從陘中出大軍
前後不相救劉綏自燒死國泰中流矢仆地世爵
日暮得父屍埋谷中聚石以識之時我國大元帥

姜弘立副元帥金景瑞障於山上左右營將障於山下世爵投元帥陣明日清兵擊我左營無一人得脫山上軍望見皆股栗弘立不戰而降清圍弘立軍數匝搜明兵之竄入者反縛驅出皆斬之世爵亦被縛坐大石下清兵忽忘而去世爵目我兵乞解其縛我兵相睥睨莫敢動世爵自以背磨於石稜縛繩斷遂起脫朝鮮死衣服換着之擯立我兵中以得免遂走還遼陽及熊廷弼鎮遼陽招世爵使復父讎是年清兵連陷開原鐵嶺詔逮廷弼以薛國用代之世爵仍留薛軍中及瀋陽陷世爵

晝伏夜行抵鳳凰城與廣寧人劉光漢收遼陽散
卒共守之未幾光漢戰死世爵亦被十餘槍自念
中原路絕不如東出朝鮮猶得免雉髮左衽遂走
穿塞隱金石燎羊裘裘木葉以咽之得數日不死
遂渡鴨綠江遍歷關西諸郡轉八會寧娶東婦生
二子年八十餘卒于孫蕃衍至百餘人猶同居焉
遼東城在漢襄平遼陽二縣之間秦曰遼東復八衛
蒲漢末為公孫度所據隋時屬高句麗契丹稱南
京金稱東京元置行省明置定遼衛今陞為遼陽
州移城距二十里為新遼陽此廢稱舊遼東城周

二十里或謂熊廷弼所築也城古卑狹廷弼聞清兵至今夷城清兵怪之不敵逼及謀知改築引兵至城下新城峨_二一夜而成後廷弼去而遼陷清忿其城堅難拔毀其城以得勝之兵十日而毀猶猶未盡焉天啓九年三月清既得瀋又移兵向遼經畧袁應泰方議三路出師以復撫順未行而聞清陷瀋陽又將向遼遂太子河注水於濠環兵登埤清陷瀋五日至遼陽城下奴兒哈赤即清太祖也自統左翊兵先至明摠兵李懷信等率兵五萬出城五里而陣太祖以左翊四旗擊其左洪台特

我東所謂汗也即清太宗也引精銳請戰太祖不許太宗堅意行遂留二紅旗伏於城傍覘視太祖亦遣正黃旗鑲黃旗助太宗衝明陣之左四旗兵至明兵大亂太宗乘勝追擊六十里至鞍山方其戰時明兵自遼陽西門出城傍所伏二紅旗齊起邀擊明兵奔回入城自相蹂踐搃兵賀世賢副將戚金等皆戰死詰朝太宗率貝勒左四旗掘城西開口以洩濠水且令右四旗兵塞城東進水口自引右翼布楯車列于城邊囊土運石以壅水明步騎三萬出東門列營相距清兵方欲奪橋水口壅

過將洄四旗前隊渡濠大呼掩擊東門外明兵方
力戰清紅旗二百白旗一千進擊明兵死者填濠
遂奪武靖門橋分擊守濠兵城上發火咒連綿不
絕清兵奮勇衝突樹柝登城因奪西城一面驅斬
民衆城中擾亂是夜明兵列炬拒戰牛維曜等繞
城亂遁翌朝明兵復列楯大戰清四旗兵奮勇登
城經畧素應秦登城北鎮遠樓督戰見城破焚樓
而死守道河廷魁率妻子投井死監軍道崔儒秀
自頸搃兵朱萬良副將梁仲善叅將王豸房承勳
游擊李尚茂張繩武都事徐國全王宗盛守備李

廷幹等皆戰死御史張銓披擒不屈太祖命賜死
以遂其志太宗惜銓欲生之婉諭再三終不奪不
得已縊而葬之乾隆己亥上為全韻詩詳載陷城
始末且曰明臣之不降者我祖宗尚加恩而燕京
君臣漠不相關功罪不明其不亾得乎

熊廷弼才識氣魄睨一世守遼而遼存去遼而遼
亾可以想見其為人嗚呼明之末運用捨顛倒功
罪不明其視熊廷弼袁崇煥之死可謂自壞其長
城烏可免後代之譏乎

駐驛山在遼陽西南初名首山唐太宗征高句麗時

駐驛於山上數日勒石記功改為駐驛山

開雲山在奉天府西北萬峯環拱衆水朝宗即清之
永陵也 鐵背山在奉天府西北上有界蕃二城
天柱山在承德縣東晉史稱東羊山清之福陵在焉
隆業山在承德縣西北即清之昭陵也

十三山在錦州東峰有十三蔡珪詩云閭山盡處十

三山溪曲人家盡幅間

閭山即鑿
巫閭山也

渤海在奉天府南盛京統志云海之旁出者為激遼
東延袤二千里其南敦海

遼河在承德西即句驪河一作柁柳河漢書水經俱

作大遼水：：左右即遼東遼西所由分唐太宗
征高句麗時泥濘二百餘里布土作橋乃濟

太子河在遼陽北源出遼外永吉州八邊匯渾河遼
河為三义河世傳燕太子丹出亡至此逐斬之以
獻秦後人哀之名其水曰太子河

小瀋在承德南自東関觀音閣發源入渾河水也曰
陽瀋陽之名蓋以此也

關廟在舊遼東城門外有石橋：：邊石欄製極精巧
康熙五十七年所築也對橋百餘步有牌樓刻雲
龍水仙八牌樓而東有大樓扁曰摘金左有鍾樓

扁曰龍吟右有鼓樓扁曰虎嘯廟宇壯麗複殿重
閣金碧璀璨正殿安聖帝東廡安張桓侯西
廡安趙常山侯又設蜀將嚴安不屈之像

渾河一名阿利江一名小遼水源出長白山合沙河
繞出盛京城東南與太子河會又西河合遼河為
三义河入海

瀋陽城周十里門樓皆三簷護以甕瓦城：：左右亦
有東西對門通衢等臺為三簷高樓樓出十字路
轂擊肩磨熱鬧如海市夾道彩閣雕窓金扁碧榜
相與映射瀋陽本朝鮮地漢置四郡為樂浪治所

扁曰大政殿太清門東有神祐宮安三清塑像扁
曰昭格康熙御筆也又題曰玉虛真帝雍正御筆
也行宮也 瀋陽

聖慈寺崇德二年戊寅創建殿宇深嚴宏麗法堂臺
高一丈周以石欄殿上籠罩吳恩有株古松交柯
互枝蒼翠滿庭窈冥陰森有二碑一是太學剛林
撰後面滿書一是皆蒙古西番字而前後無一漢
字主僧喇嘛居之殿中安五百羅漢長總數寸個
個精妙康熙手造小塔數百大如瓊陸刻鏤之工
奇巧八神浮屠高十餘丈上圓下方通刻獅子

矣元魏隋唐之時屬高句麗今稱盛京奉天府尹
治民奉天將軍副都統管轄八旗又有承德府知
縣設各部佐貳衙門對門有照牆門前皆以黑漆
木义立為欄將軍府前立一座大牌樓焉城內有
朝鮮館乃是 世子大君寓所也 丙子後

行宮門外周設紅木柵正門扁曰太清前殿扁曰崇
政又扁曰正大光明殿左曰飛龍閣右曰鳳翔閣
殿後有三簷高樓扁曰鳳凰樓有左右翊門二內
有甲士數十人攔路不得入遂於門外遙望層樓
複殿疊榭回廊覆以五色琉璃瓦有兩簷八角屋

萬壽寺在瀋陽西門外康熙五十五年丙戌重修殿閣凡三重第一殿扁曰普濟安三位大佛第二殿安一位金佛左右各安小佛第三殿亦安小佛有一座牌樓扁曰萬壽无疆今無存焉其殿宇之壯麗過於聖慈寺而但無滿庭松陰矣正殿額曰遼海慈雲康熙御筆也香鼎寶爐及他奇玩不可殫記有喇嘛居之

願堂寺在瀋陽西門外五里許一名寶勝寺清太宗之願堂也前有三座牌樓右書雲月左書慈雲傍以滿字書之殿屋皆覆以青黃琉璃瓦其制度宏

麗八大門十餘步又有一門：內兩傍各立兩鬼
像大可百圍高十餘丈見之可愕門內左右各有
兩簷鍾鼓樓又有兩碑閣左碑書蓮花淨土普勝
寺崇德三年戊寅立右碑書滿字兩碑之間有大
銅爐香烟裊裊即正殿前庭也庭左右有翼室皆
安許多佛像多積蒙古書冊字不可解歷月臺十
餘層八正殿扁曰海月常輝押印章乾隆御筆也
卓上安三位大佛上下左右繡彩絢爛殆不可名
狀東西壁作二層龕安二十八佛其餘滿壁抵棟
無非佛像甚至有小或如一指長金刻龍螭鸞鳳

之狀璀璨眩耀不可盡述矣正殿西有二層高樓
不許登覽不知何故或云乾隆御真所安也其北
有殿安諸佛又其西有一屋主僧蒙古喇嘛居之
寺東十步許有行宮制度甚小不過數十餘間而
雕窓複道皆以沈檀飾之此是幸瀋陽時晝停所
云自願堂寺前進途中望見西北諸山出沒烟靄
中蒼翠鬱然此則大清光陵所在熱河記云開雲
山在奉天西北萬峯攢空衆水祖宗大清永陵也
鐵背山在奉天府西北上有界蕃二城天柱山在
承德縣晉東牟山是也此是福陵也隆華山在承

德縣西北卽昭陵也云而未知是否

永安橋凡三虹蜺以青石造就極其堅壯廣可三丈
高可二十餘丈兩傍設石欄前後兩頭皆有獅子
對蹲刻鏤頻工兩頭接路處築短墻如八字形以
防車馬之橫逸

新民屯題壁詩天涯淪落又驚秋欲抱琵琶消舊愁
誰是多情白司馬夜深燈火到江洲其下書桂香
題此是過去女子手題而辭語淒惋筆體妍妙亦
一季文蘭之類而今無存焉

周流河一名巨流河一名遼水口東為遼東水西為

遼西源出沙漠入長城南流會渾河及太子河入海其三水合處謂之三岔關亦名三义河

月峯在新店之後小阜落然於曠野之中名曰月峯遼野盡於此而就中特峙於正北雲靄之間作一大障者鑿巫閭也回首東望大野七八百里之間紆斜曲直之勢盡入眼中有非王寶臺初見時漾漾莫測之比

烟臺自土井子始至於山海關其他關隘如古北口紫荆關等處亦皆有之蓋戚繼光所作八百臺是也

中安堡人家壁上有題詩曰一春心事付南阡踏破
平蕪耕破烟莫謾田家尋樂景憂晴愁雨在久先
又曰眼前稼穡已登場茅屋時聞餅餌香別有天
倫惟缺趣作勤婦子共堪勸又曰泥_二玉露倏為
霜穡事初停歲事忙十五小姑貧作苦顏顏近日
減村粧下書陳少南題未知何人而今無存焉
閭陽驛路西畔有碑大書錦驛東界四字自閭陽驛
至三臺子東頭有一路而此可直抵遼東不過三
百里先來軍官每從此偷過自三臺子至四五臺
子產生梨六月桃紫蝦盃沈瓜而桃色黃而甘盃

如我國甘爛也

自望山堡至石山站十里之間常於天晴月朗之時
野氣空濛如薊門烟樹云而每因日候不佳不得

一觀

石山站一名十三山大數則不足小數則有餘未知
因何而名十三也此是華音石山站與十三山同
音故誤以石山站為十三山也

大陵河廣如巨流河自柵至燕凡水之名河者多矣
惟大陵巨流兩河為最每春月小雨之時他河皆
以橋而此河則必舩渡嘗多大風塵沙撩亂我使

到此尤多急風此是祖大壽四載嬰城灑血折骸
之地也沈瑰寃魄尚或有鬱結不平之氣而然耶
河之北岸有大陵河堡亂後城堞無存崇禎己巳
孫閣部承宗承命視師恢復關外七堡尋以讒去
幕府諸人茅元儀鹿善繼皆以才畧名俱廢不用
或傳崇禎四年孫承祖議築城大陵河以圖進取
城甫築清以二萬騎圍之時祖大壽堅守踰月清
遺書大壽曰孤城非不能取但山海以東智勇之
士皆在此城或者天以畀我助成大業將軍能與
我共事乎大壽心動欲出降副將何可剛不從大

壽斬之遂降畫策攻陷錦州

小陵河不知從何發源而大小陵河之間三十里無時不風霾其為古戰場而然耶西拒錦州衛二十五里北去蒙古境五十里每有抄畧之患故居民鮮少云河邊出瑪瑙以其小者為火石產鮑魚重唇魚甘同汁自此路中車馬輜重皆錦州輸去之物云

松山堡辛巳八月十五日世子大君自瀋陽發行凡六日至一橫阜望見錦州城護行人言漢將祖大壽堅守此城城外多設火砲清兵不敢近去城五

里許等夾城圍住已過一年柳琳在其東隅云行
過夾城渡二川清與蒙古共陣于山上亘十餘里
行過陣前距松山堡為七里迤山而南至清陣任
於陣後岡上清向松山城放砲城中亦放砲聲震
如雷砲丸如卵者屢落於其世子幕次等土墻以
避後移幕次於松山西十里許距城稍遠寧遠總
兵吳三桂率萬餘騎潰圍突出幕次初設之處乃
其奔衝之路此非王靈所在天地同力者乎崇禎
十一年我將李時英率兵五千入達州清劫以為
前部與明都督祖大壽戰于松山李士龍星州人

也。卽時英部下也。發空砲，俾無死傷。以明本國之心也。清人覺之，斬士龍。以徇祖軍。望見皆大哭。大壽乃書旂上曰：朝鮮義士李士龍。以風時英軍。庚辰總兵祖大壽守此城。被圍二年。壬午二月。總兵王廷臣內應。城遂陷。城中盡被屠戮。大樂與總兵洪承疇皆被執。尋降。惟三桂王樸僅以身免。明兵死者爲五萬三千七百。牲口被獲者馬七千四百。駝六十甲。甬九千三百。自杏山南至塔山。赴海死者甚衆。飄蕩如鴈鴨。而清軍被傷只八人。餘無挫。劔云松山之敗。清兵進圍錦州。總兵洪承疇率王

樸吳三桂等八負大將亡兵三十萬徃援之師次
松山清太祖親自督戰設奇伏絕其後而四面夾
攻大破明師而城遂陷總兵曹變蛟等皆死承疇
出降云官馬山有大清勝戰碑

杏山堡在原上人家稀少城郭殘夷蓋松杏之間崇
禎庚辰辛巳百戰魚肉之場也雖有村閭市肆似
不能蘇息當時屠戮之慘足可想矣

三義廟即聖廟結義之意在罩羅店後距塔山七里廟

宇荒涼焉

塔山自十三山以後餘麓散走海上路出其間岡壠

散漫而惟塔山稍開曠有數百戶世傳松杏之陷
此城守將知勢不可支率其麾下自投砲火而死
其節義可尚惜其姓名湮滅不傳而或謂盧像昇
也未至店數百步有小阜曰東峯一望蓬渤若對
几案可見日出

嘔血臺在東八里堡路東南鷄鳴山上有峯突兀名
曰嘔血臺世傳素崇煥守寧遠城清太宗引兵襲
之而我國譯官適過此入見素公二積書萬卷靜
坐一室城中皆寂然夜深後有一少將入白事公
點頭而已因我譯上小樓拓窓俯瞰少頃城外砲

聲震天無數清兵飄騰於烟焰之中蓋預埋地雷也翌日公登城歎曰殺人比多吾其不免矣清太宗僅以身免與十餘騎逃走公使人送羊酒慰之曰後勿更來已而悔曰人之冒硝藥氣者飲酒則死吾之送酒猶若誘人致死非義也令追還而不及太宗憤恚至此嘔血而殂故名焉

祖家兩牌樓在寧遠衛城內城東門有兩重而其間可里許外門曰寧安內門曰東安城皆額圮城中四街對立牌樓相距百餘步樓是兩簷而門是三馬左右門則簷小低而門亦小高可五六丈皆以

白石瑩膩如王者層層架起不容尺寸之木雕鏤棟樑榱椽窓楹瓦甍而其巧如神正門內外左右柱根畔坐以石獅子長數丈者此是祖大樂之牌樓也距此樓百餘步又有一座牌樓高可十餘丈卽祖大壽牌樓也一樣奇巧殆若神工上層內外扁皆大書王音二字芽二層刻元勳初錫後面刻登壇駿烈下層刻四世職啣樓柱前面刻儂句曰松檟如新慶善境千四世琳瑯有茶^美賁永譽于千秋桓赴興歌國倚干城之重絲綸錫寵隆銘鼎之袋一是祖大樂牌樓比大壽牌樓少遜焉最上層

內外扁書王音二字等二層前後面刻四世元勳
少傅等三層前刻廓清之烈後面刻忠貞膽智鏐
起草木禽數兵馬攻踐之狀其工巧可謂入於神
矣下層職啣左右柱皆神將之像此外兩夾樓所
書細字亦多而年久漫漶不可盡辨大抵皆頌美
之辭也

蓋祖氏遼薊世將曾祖名鎮祖名仁仁之兩子長
曰承訓我國壬辰之役以遼東總兵領三千騎最
先來援者也是大樂之父次曰承教是大壽之父
從昆身以四世將家并守雄鎮國家倚為干城乃

天下重任也百戰陵錦之間清不能窺關外者四
年功亦大矣我明史言崇禎二年十一月清迫皇
城十二月都督素崇煥率祖大壽何可剛入援所
過留兵守之帝聞之甚喜令畫統援軍清間之帝
怒遂磔崇煥于市大壽可剛大驚率衆東走毀山
海關出此是陳平間亞父之計豈不惜哉

中後所城南五里許有温井

聖廟在中後所城北路外門廡曰關帝廟內門扁
曰世濟其美門內左右有鍾鼓樓正殿扁書日星
海嶽殿內安聖像冕冠黃袍左右安諸神像其

壯麗還勝於遼東矣店後有松巖觀日出

亮水河廛市中橘柚棗梨之屬充牣焉望江臺距亮水河八里而路邊有石坊其制畧似牌樓一是周氏烈女之旌一是洪氏烈女之旌中前所城東門是定遠門城內有四牌樓西門是永望門也

永祐寺一名龍王堂在望洋亭西數百步許門上大書勅建永祐寺門內有鍾鼓樓牆面皆刻禽獸草木庭有烏銅大爐高可一丈刻云雍正四年造正殿扁書永清四海殿內安神像殿後有兩層殿下層安諸佛像上層為樓藏佛經數萬焉憑檻放眸

海色茫々可以觀日月之出也

姜女廟在八里堡野中陡起一小阜土石相半石色
蒼潤廟在阜上世稱姜女祠正門外築甃為路夾
以石欄雕鐫甚巧而門路亦然路北有二碑一書
止此石三字一是字頑不可知門內亦有三碑一
是萬曆丙申立一是康熙己酉立一是萬曆甲午
立張棟撰其文曰世傳貞女姓許氏名孟姜陝西
東官人也嫁范七郎蒙恬築長城范即隸役死于
六鰲山下夢感許氏貞女手製衣件獨行千里探
其夫沒憇于此望長城而泣因化為石後人即其

地立廟安貞女塑像左右兩童子侍立左者持傘
右者持帶兩童卽貞女之子而傘帶等具像范卽
所帶服而貞女持耒者也正殿安貞女塑像村姿
純素顏色淒然若含淚之像殿扁書芳流遠水乾
隆御筆左壁扁曰而變國俗道光壬辰宗室翔鳳
書前柱有聯曰千古無心誇節義一身有死為綱
常乾隆御製皇三子書後柱有聯曰栢葉一生常
自苦梅花從古不知妍乾隆御製果親王書龕之
左右各有一碑右碑康熙時立忘其記左碑萬曆
壬子立大刻王致詩曰出塞將軍汗馬勞偶耒風

雨濕征袍聲傳檄外奔封豕羽入雲中看落雕鴨
綠晚舟通屬國鵝黃新酒醉詩豪行營列炬歸來
晚城上烏啼月正高其下有序曰關外二舍許海
洋中有立石一殊有人形又卧石三皆相枕世傳
為貞女墳其下又刻詩曰海上雙亡擁翠螺傳來
姜女壅迴波千年不轉心如石萬里相牽淚濕羅
拍岸濤聲頻助咽窺人鳶鳥摠成魔弭流砥柱應
如此把酒臨風期不磨筆畫甚蒼健殿內壁上有
詩曰姜女祠前秋草黃姜女祠外秋風涼高原突
兀望夫石遠看海水自茫茫乾隆癸卯皇十一子

題又曰松老頽垣見古祠崩城凄女事堪悲紫砧
望斷成竒節環珮空餘識舊姿石洒淚痕當日恨
水流嗚咽後人思振衣亭上淒涼甚猶憶凝眸綠
蔓滋乙亥皇三子籐琴居士題其餘題不可殫記
殿後又有一殿安佛像殿東北十餘步有石盤院
長可丈餘廣可七八步中有三四痕微凹世傳姜
女望夫時上下足跡也傍刻望夫石三字太原白
輝題又刻作如是觀四字內閣修撰賀正佐書又
刻振衣亭三字蓋巖上久有亭今無云又刻詩曰
淒風禿樹吼斜陽尚作悲聲吊乃郎千古無心誇

節義一身有死為綱常由來今日稱姜女盡道當年哭祀梁下一句漏又曰當年抗節適門風悽慘孤芳付海東一点靈犀通溟漠恁他好合兩心同又叢祠舊等海山邊善哭偏因姜女詩全鑄應嫌范蠡蠶繭墨胎可比伯夷賢蕭風枯樹哀絃瀉明月清風古鏡懸路便一臨緣何義訂偽意已具前篇戊戌御製久有桂聯云秦皇安在哉虛勞萬里役惡姜女未亡也尚有丘石流芳傍書宋文天祥書而今不復見殿南墻外平地有藥王廟安十座神像隔壁小殿又安一神扁曰保艾甬後左有鍾閣

石柱長數丈，縣曰暮鼓晨鍾，驚醒塵寰，名利客經聲佛號，喚回苦海，夢迷人。

八里橋在通州城西八里，故名。一稱永通橋，長四十餘步，廣可五軌，左右設石欄，二頭皆坐狻猊，刻鏤之巧，如圖章，細紐橋下通舟楫，漕艇由此直達于皇城矣。

通州秦時屬漁陽郡，漢時置潞州，隋唐時廢入涿郡，縣旋為潞縣。五代及遼金時，陞為通州，取漕運通濟大意也。大明因焉，城周二十里，殷富瑰麗，勝於盛京及山海關，跨大街，建兩簷高樓，亦有一座白。

塔高聳雲霄繞城之水曰白河一名潞河元郭守敬所鑿以通東南漕路者也源出塞外徑密雲南至牛欄山與潮河合至通州繞城而流濱河有三座倉廩制如城樓以設踈窓以洩積氣墻壁垂穿傍穴以疏濕氣引水環窓以備火患大小舸艦泊于河岸上下十餘里樯頭如簇蓋天下解運之物皆湊集於此燕巖所云不見白河之舟楫不識帝都之壯者卽此也城外人家亦皆臨水茶房酒樓暎帶如畫城內花舖多養佳菊白者曰通州白紅者曰通州紅其餘黃青黑皆倣此雄黃之產此者

爲品好也

盤山一名盤龍山薊州西北三十里有上中下三盤
或云韓文公送李愿歸盤谷者卽此也未知是否
蓋山在太行數百里外則其所謂太行之陽者已
誤矣山頂有大石搖一輒動上有石龍潭下有潮
井鉢泉之勝昔純陽祖師常飛劍斬黃龍禪師
於此仙鈞尚在於上盤有亭阜之自邦均北行二
十里至下盤有行宮在其東或云乾隆時有御
姊早寡賜修鍊曾居此或云皇親中凡寡居之
女必皆住此或云皇帝先陵在於此麓每謁陵

時駐驛之所未知孰是繞宮而隨山勢高低廣築
墻垣二簷三簷之許多亭榭羅列隱見於墻內峯
巒松石之間宮門常闕不許人入循墻後而漸進
山色益奇巖壑蒼潤磴徑盤院白石層疊如級
乾隆時開拓為輦路云滿山松杉間以桃李雜樹
林木之美泉石之奇遠藩以後為第一也墻後門
內有彩亭翼然滿目蕭洒其北白石平廣石面飛
瀑溜下如張素練下匯為潭深碧涵泓傍刻百尺
雪三字又行少許墻內有石如臺可坐數十人刻
貞觀遺跡四字世傳唐太宗東征時駐驛處也又

行幾步竒巖陡起蒼古刻蘿巖二字其外復有仙
巖等處也又行數里磴路益峻險乃下馬而徒步
及至中盤路傍巖上有刻詩曰中盤向北為少林
展轉之間卽殊觀鎖逕薜蘿闢巖扉排帽松栢謾
濤棧梵宮數曲崇之陽憶我庚子曾泮澳爾來三
十有餘年瞥眼何殊今昨換壁詩丁未重一省繼
念民間曾浩歎未申之秋幸屢收茲未遥慶豫民
宴曰憂曰慰紛吾裏調節堂上坐而案其下書已
酉御筆押乾隆圖章又行數百步有少林寺上在
山之西正中背山俯野淨寂幽雅素中郎盤山記

稱八景曰紫蓋峯騰雲峯仙石嶺搜甲石投閒橋
帳房石菱角石紅龍池也寺後多怪石紆曲為迳
上盡有石臺甚廣建彩閣十餘間眼界極敞俯瞰
行宮位置歷上南通薊野烟樹無邊隔溪東崗有
一白塔八面十三層上各懸磬隨風蕩響如奏笙
簧塔下有池刻紅龍池三字北望山頂有五六小
塔萬松寺雲照寺石鈞寺俱在其下山路益艱攀
躋尤難未窮上盤

薊州按禮記曰武王克商封黃帝後於薊其後嗣絕
成王更封召公于薊以有燕山故以燕為國名秦

漢時為漁陽唐時為薊州大明因之城周二十里
其南門為三重茅三門為簾樓高埽瀋陽民物殷
富卽京東巨鎮也城內十字街有樓一面書古漁
陽三字一面書京東鎖鑰四字其西邊有三座牌
樓石礎皆高壯刻鏤甚奇巧非比於他也滿城居
民皆隸軍籍見其街上往來者皆豪勁可怕漁陽
突騎自古無敵故彭寵祿山之叛皆在此也城外
數里有府君山一名崆峒山黃帝問道於廣城子
卽此山也其西有魚山李長吉魚山寺迎送神歌
亦此也又有五山曰五龍山上娘仁廟又有

玉皇廟此處飲食最稱可口而红柿葡萄山查甜梨尤為絕妙也

獨樂寺在薊門城西門內一名卧佛寺以有卧佛故名也虹門兩層內有正殿三簷上磅曰觀音之閣其下書太白二字世傳李青蓮筆也下磅曰慈悲大士殿內有立佛即觀音變相也長六十丈全身作披錦狀設色精巧垂左手執瓶舉右手持數珠當骨完如活動殿西複壁中設板榜向北上數十級又轉而南上數十級始抵上樓空其中環設欄檻佛身竦出其上有與檻齊而頂柱屋樑頭

四圍附有十二小佛眉眼悉如大佛在下瞻仰未
覺其絕長至此始知其壯且嚴也自有以上猶有
二丈許世傳佛立處古有大槐樹其大十圍僧徒
卽其樹而刻焉樓之南北皆設窓櫺窓外有欄二
甚危絕放睛一眺一城表裏如睹掌握寺南數百
步有一塔正與樓對峙其高可推也左右月廊皆
十王殿後有四角亭二後又有一殿二後炕屋櫛
比皆僧之所住也亭前稍西有別殿榻上側卧一
位金佛如人醉睡昔日則膏以下覆以錦衾今則
無有矣頭邊半倚金粟冠制如我國隱頂冠是謂

李青蓮像也後有一老婦像憂愁滿面卽李青蓮岳母恨女婿之不勤讀書日事沉醉也

翠屏山自薊城南門東行五里至漁陽橋又行五里至小橋口傍有翠屏山不甚高大而山勢如展翠屏故名水滸志所謂楊雄殺潘巧雲處也山下有兩石人乃楊雄石秀之像而刻法甚朴只像面目而已

甬山寺自山海關西羅城外循城而北初行人家中俄而無路散行邱墓田壠之間約數百步得樵筵自關至此約八九里路益峻急又行數百步有一

紅門扁曰扶桑觀日自此鋪石為級如階坳又行
三里有一間屋當路此於山為三分之二俯視關
之內外膏懷爽濶又上二三里有六面亭卽遊于
止歇處也扁曰翫芳亭此於山為三分之二又上
數百步至寺正殿不甚大正門左右廊屋不過四
五庭有四碑東兩碑弘治萬曆所立西兩碑康熙
所立也遂從山石間至絕頂其上平周可坐數十
百人俯視關內閭閻撲地屋肆碁布東南二面海
水接天登萊地方似乎可見而但恨眼力所不及
耳西南諸山近海特秀似是昌黎縣近處諸山也

北望長城隨山委曲粉堞隱現於疊嶂之間看到
此地令人不覺塵念掃如壯志浩蕩而已自絕頂
東去十餘步卽長城也城高不過丈餘以雜石等
之一如我國城制而但女牆以甃為之其絕險處
則徃口不得築城口外山麓高處皆置烟臺深谷
暗壑無所不矚若使賊來無潛身之處其設備之
壯且周有如是矣

寧遠衛溫井在於寧遠城南門外東南五里許古寺
之後望見煖霧靄口彌滿空中繞井而甃石為檻
援檻俯視井深可四五丈泉源滂口熱氣騰口乎

不可近西檻下穿一孔以䟽下流往二甃石為踞
啖洗濯之所其流入于寺之後墻內又流出寺外
有墻繞之卽皇帝所浴而行宮在其傍蓋井水極
熱故卽其下流而方可洗浴明武帝幸溫泉命宮
妃王氏製詩手自書之刻于石曰塞外風霜凍異
常水池何事煖如湯溶二一脈流今古不為人間
洗冷腸

北鎮廟在鑿巫閭虞封十二山之時為幽州之鎮夏
商周秦皆因之唐開元時封鑿山公廣寧公遼金
時始加王稱元大德中封貞德康寧王明洪武初

只稱北鎮鑿巫閭山神歲時降香祝有天子姓諱
國有大典遣官告祭雍正皇帝為諸王時奉勅降
香既祭之夕宿齋廬夢神人予一大珠亡化為十
歸登大位遂大修廟宇以為願壺報其神賜也廟
在山下後擁羣峰右環滄海前左大野廣寧城在
膝下蓋其地形卽一陂陀之圓阜高而不過數丈
而俯仰天地無所涯畔日月昇沈風雲變幻皆在
其中東面而視尺吳寸齊皆在指端而但恨眼力
有窮耳廟貌壯麗與東陽門外東岳廟相伯仲門
前有一座大牌樓渾石架起不資一木高可五丈



餘結構之工刻鏤之巧殆非人力所及兩傍對立石獅高可丈餘門左右月臺及砌高與外砌同而墻在其上塗以丹雘入外門而又有二門其砌高與外砌同而但無月臺兩門之間有兩簷鍾鼓二樓左樓之左有五佛像庭有兩碑一曰萬壽禪林一曰萬古流芳兩樓之間又有三門二內有五碑皆御筆也覆以彩閣其後為層階高可數丈繚以石欄二左右有碑林立皆明清間重修告由祀典祈福及御製詩而其最久者宋延祐碑也其一碑乾隆戊戌御製鑿巫閭山四詠曰廟西峙立翠雲

屏凝眸雖能擬色形一石丈餘大方廣補天兩字

出何經右翠屏聞道深山是隱淪與居木石桂松隣

誰知潛志樂飢者原是攬身逐鹿人右道隱谷列峯隨

落水明簾隔斷塵氛靜且恬多有朝鮮人泐白箕

疇文化至今漸右鍾山堂此日已為亭眼底平陵

碧海溥應是遠王斯書處至今秀色蓄眸青右廣觀

其後殿凡四重茅一殿排列幢幡儀仗茅二殿扁

曰資始神區殿內安北鎮鑿巫廬神像具王服左

右安玄冥帝君海嶽大神諸像皆冕冠佩玉威儀

奕嚴茅三殿關帝聖像茅四殿扁曰資始靈區

安北鎮神變親神像乾位是珠冕王笏坤位是鳳冠珠帶儀飾甚盛殿皆三楹覆以青琉璃自門至殿筭石為路殿之前左右階三面皆有陞降之級階上對設大石壚高各丈餘又有大鼎高六尺餘雕刻千神萬怪前置漆缸可容十斛為四炷晝夜長爇自外門至茅四殿可一箭有半之地凡墻欄階礎皆石品瑩膩刻以花草蛟螭圍繞廊廡階城達于前殿自前殿連亘曲折至于後殿望之皓然一塵不動後殿西角門外有蒼壁高可數丈刻補天石明廷撫張學顏筆又其傍刻翠雲屏三字其

下一穴洞開世傳有腰痛者從出其中則有效云
古所稱呂公石會仙亭覓之不見惟有覽秀亭登
其上鑿山盤鬱積翠之勢可一寓目而盡得之矣
桃花洞在北鎮廟西五里許滿谷盡是桃樹故名自
洞口沿溪而上路皆鋪石為級勢頗峻急僅可騎
馬溪北有數級石砌其上有浮屠踐石磴數里至
觀音窟下仰見絕壁橫張高廣各十餘丈石色皎
潔如張素幕上有小城虹門有觀音庵今廢傍有
一穴廣可容數百人其中懸名宦我東人也絕壁
下有甘露庵矣今亦廢焉西邊虹門外桃李交柯

僅通人行循壁至觀音洞入洞數十步有大石立
路右鑿為龕刻觀音像過此十數步又有一大石
刻遊目天表四大字又行數十步路有兩歧一迤
南而轉山腰其盡處為平臺有塔此為甘露庵白
帟也又折而北上路峻且狹又過了數十步巖壁
十餘丈對峙如門刻北鎮明山到此石路尤極險
峻便成一巔遂踰巔而漸入地却平廣方可數十
畝遍栽桃樹別一世界也又東行數十步有巨巖
陡起半空高聳數十丈南面刻廬山茅一石東面
刻壁立萬仞巖上有觀音閣循石砌四十餘級登

其上有小虹門扁曰白雲關佛殿崩塔猶有萬曆時文林郎李蕡所撰碑其文曰遊斯閣者必心清步健聳壁仰霄有遊仙之志方能登臨其體厚形痿心懷慙縮之人鮮不可中止云其後累石為梯回轉而上者凡八折仁多者二十餘級小者七八級級盡而始至觀音閣其地高懸絕下視白雲關猶數十仞而大觀音甘露庵皆歛入于幾百仞之下西南諸峯羅列如兒孫東面野色蒼蒼而平蕪漸海可掬霄漢如摩自此還下白雲關又北行百餘步有清安寺桃樹夾路涉兩石梯共四十級入

小虹門至佛殿，雖小而迢遞絕浮埃也。從其東又出一門，有兩折石梯，登昆盧殿，坐此正對觀音閣。後面石勢益危峻，望見西南峯，上有娘口廟。其下稍南有三官廟，而娘口廟西兩峯之間有十數丈瀑布。又東踰一崗，過小澗，數十步路。左有輓筭虹門，刻棲霞洞。中北壁刻桃花洞。又東行數十步，有潛谷精舍遺址，即皇明處士賀欽所居也。又沿東行五六里，有小觀音菴。自此距北鎮不過數里，而蓋此山東西兩麓，向前環抱為谷口，兩麓之間又有四麓合兩脊，為六重，故或稱六重山桃花。

洞特其一麓也東麓盡處為大觀音菴西崗盡處為

關廟關廟與大觀音菴正相對峙其間不過十數里而橫筭一城中間虹門使一谷之水皆從此而下清安寺正當其中其餘王泉寺琉璃寺滴水寺雙鳳寺靈山寺雙泉寺望海寺皆在此山之中而望海寺在於最高處不獨望海而已蒙古地方亦可俯視耳

廣寧城在北鎮廟東南五里許又是錦州屬縣古遼西地也城制如北京有外郭其周築埒瀋陽城堅

完甲於關外以與蒙古地方相接為要衝故也內城南面有兩門餘三面皆一門外城東西南各有
一門城中街路極廣大小巷口皆對立石柱高五六尺雖僻巷皆然此乃古里門之柱此則他處所無其設置之整密猶可見矣天啓三年王化貞以撫臣守此城是時遼陽已陷清兵渡三岔河至沙嶺下離此一百五十里叛將孫得功入城中疾呼軍民意劓頭歸降一城開然爭奪門而走亟將江朝棟聞之急入化貞臥內化貞方起親書朝棟急拉之曰事急矣化貞始趨出所騎馬已為賊竊去

以兩駝載行李疾馳走閭陽熊廷弼自右屯引兵
至謂化貞曰六萬軍蕩平遼東竟何如化貞慚議
守寧遠廷弼曰晚矣惟護百萬生靈入關勿資賊
足矣因保衆西行天下大勢自此日潰矣蓋失遼
瀋後化貞主戰廷弼主守化貞敗而廷弼亦被裒
師之律竟至棄市議者多寃之江柔謙以為朝廷
起廷弼為經畧節制三方而其進退俾隨化貞化
貞實操節制之權而廷弼則未也稟成則無權坐
罪則有主安用此經畧哉斯可謂劫中時病也世
傳廣寧古箕子國有箕子廟有像儼然矣燬于兵

火云二

寧遠伯李成棟碑樓在廣寧城中十字街迤北數百步純石構成如祖家碑樓而稍小其雕刻之精巧殆過之上層大書世壽二字中層橫書天朝誥券四字下層又橫書鎮守遠東總兵官太保兼太子太保寧遠伯李成棟二十字其北又有一樓與寧遠牌樓相埒而惟礎石高丈餘而餘皆木耳東門內菜園中尚傳寧遠伯舊里而有一古碑卽寧遠所建也碑額橫書總督府將碑身作兩截而記之上截記寧遠出處履歷功烈下截列書總督府兵

官之職姓名年記共數十人而以李成標為首次
書李如松李如梅麻貴等名皆在馬東門外數里
許有遼東總兵寧夏侯李如松廟蓋如松甲子征
捷子陣亡明朝為立祠以旌忠節神榻記以同死
將領八員後堂有夫人及侍立了髻像廟東有其
親寧遠伯生祠云

千山在遼東城南望遠山青翠秀麗插入雲際者即
千山也去遼陽南門過二里庄八里庄又東南而
行踰一土岡行谷中谷盡而轉一隅為平川廣疇
自此向東行遠望山氣重亾若霧露與蔚俗傳此

山有九百九十九峰故名爲自遠陽至此爲三十餘里又行六七里渡一溪水自東來卽乎山水也溪上有廟堂及人家自此行十數里之間皆清曠可居所過多藍田其土沃可知也山下有大路此自東八站直出十三山之捷徑也先來亦由此而行云乃截大路而南至山脚之下問路而入一谷路有轍跡而夾路皆梨樹又入四五里不見人家山漸峻而路漸窄東踰一麓洞府寬曠卽山之北也路窮矣還出大路至一村口在山之東北隅至此峯巒見者益多自村迤南行數里入山口循溪

西折望見石塔出林表又行五六里始至祖越寺
皆崩頽而惟殿後大石壁刻合澤宣氣又刻獨鎮
羣峰其畫大盈於尺岡南有平臺可置屋似是昔
日巡撫廳基而惟石塔峙焉卽谷口所望者也又
一塔在於溪南有大石如鼓而刻太極右三字循
岡脊巖間上百餘步有王皇殿舊址四望羣峰
愈竒行不知勞復上數百步立一小碑而地始平
夷有音喜閣或稱觀音閣道士數人居之再上數
十步有羅漢洞石戶穹然如屋中有羅漢十八軀東
北有巖灣曲如虹門洞前有碑其文曰唐之貞觀

東征駐驛于此云二東望高峰頂上有一小屋縹
緲如畫自東望北有絕壁鑿石為磴口盡處望見
東北間有大巖壁立上刻振衣崗三字一字之大
如張幘真天下壯觀也其巖高可數十百丈形如
甕立未知何以著手而刻也遂還過祖越寺渡石
橋行里許涉一溪折而北行路右多浮屠山勢稍
開亦無樹木但黃茅靡然而已少前路有歧右去
龍泉寺左上西嶺而始入之路只隔一嶺矣遂右
行至龍泉寺距音喜閣為三里也寺在奇巖疊嶂
之間門內右壁刻漱瓊二字上有石砌數仞佛殿

僧寮皆在上峰傍有瀑冬夏不斷又有十六處山
景七座寺刹乃龍泉大安祖越中會香元雙峯永
清等寺而香元大安為勝其餘平常自龍泉還出
山口二十里到大安又西嶺邊十五里到香元也
又行幾里至昆盧殿夾路多梨樹踉石梯十八級
而上殿後大石壁刻國符應生四字畫大如椀來
粗細其左十餘步即龍泉寺也自此逶迤過祖越
寺至音喜閣後過羅漢洞東越一壑綠峯不見路
往_上有古屋址昔日寺刹之盛可知也復行一里
許有巖對峙狀如箭筈有石梯三十餘級上盡而

有小虹門入門又有石梯千餘級頂有小屋曰無
量觀自此從谷中直下至谷口取大路東南行有
一溪自西谷中來緣溪而入則可至香元也自龍
泉至此可八九里自此至香元不過四五里舍大
路迤入西南谷中路險僅通馬行一過數里北折
從山腰而轉地勢已高羣山皆在脚底而路却埋
夷少行路左有土地廟又行百餘步至大安寺僧
言唐太宗於此地屯兵三年云寺東有薛仁貴白
袍菴舊址寺西有敬德菴明月山玉箭射唐帽山
御駕親歸英路菴雙鳳并立山門外小靈山夏月

浸水金剛山古人修行許多景致難以枚舉殿前有碑曰故老僧唐太宗貞觀十九年伐高麗駐蹕於此命鄭公尉遲敬德造達云自此還過土地廟望見青會兩巖如在眼底而遠不可辨也又火行舍來路從右邊路轉山腰迤南行四五里所過多楸木椴木到嶺上此乃大安之右岡也下嶺行五六里始有村此去帝狼谷為四十餘里村南有大山蓋千山後麓也自此田野廓如左右挾山路道傍迤又二十里有大川自南而來是千山隨體水自此沿流北行十餘里間更無人家但隨車轍而

行出一路自西而東北乃先時所過之路也狝子
山距此不遠矣蓋千山之脈自南而來向東抽三
条茅一条為大安寺來路迤南四五里所到之嶺
茅二条為大安寺後嶺至香元而止茅三条為龍
泉祖越後嶺此两条長不過七八里而表裏皆重
峯疊嶂茅一条最長而無峯巖但逶迤起伏東而
北而西為數十里茅二条三条皆在其環抱中
其狀如也字形所謂千山卽其餘氣所結遼陽城
亦從此支而分落脉于平野可知其風水絕好龍
泉香元之水初皆東流旣出山口却轉而西蓋隨

芽三條而行故也此山盤據之大莖如三角而高則不及若其鸞鳳翥翔芙蓉削出亭二秀媚之態不但三角之可比雖金剛之秀亦未易言也更其峯巒之外竒巖傑石層現疊出徃二如智巧者雕琢而成如龍泉寺西閣前立石大安右岡三峰恐我國無可比者但所欠者水耳若以閭山比之相為伯仲而此山則尤極精粹而有神韻且喬松茂林蔭濃蒼翠此其勝也

鳳凰山在都司城東三百六十里上有累石古城可容十萬衆唐太宗征高麗時嘗駐蹕於此古城者

卽安市城也山在鳳凰城柵門之間環山底有小
路蓋為捷徑也由此而行仰見疊嶂聳立千仞關
內外二千餘里惟昌黎縣文筆峯畧相當云而在
我東如道峯金剛清涼月出諸山雖以竒峻名視
鳳凰之叢疊峭拔如植萬炬烘_二然熱炎騰翥者
恐反有所遜耳東南四五峰尤竒特素華浮空真
如初日芙蓉甚可愛也由東南小路迤行數里至
山下路左有山神廟_二左有短碑遂步上山峯巒
益峭且削正所謂青天削出金芙蓉也往_二有白
石方數丈又行里許左有十餘丈壁累石相承橫

張如屏廣可三十步路出壁間僅容一馬此乃石門也門內平道可方軌又西南數里有大寧寺自石門至此兩山夾洞峯巒競秀移步換面愈出愈奇又南四五百步至岡巔回望數十奇峯尖銳如卓筆而寺觀甍簷掩映於其間直北有峯特立去地數十丈倚壁有小屋如燕巢蜂窠乃觀音窟也西北峯下有朝陽寺二之左麓迤至觀音窟前陡起三四丈上有藥王殿娘二廟皆架空因叢石為墻壁蓋此山專以峯巒著勝上頭忽成洞府萬石林立絕無峽山頭態儘可謂莽一觀也自鳳凰城

上山為二十里自山至柵為二十里峻嶺幽壑亂石巖從險路危筵委曲不下於蜀道矣山之南有清涼山距鳳城為一百七十里峭壁攢峰秀麗清竒亦可一翫云

安市城在鳳城之南是古城而世傳以為安市城或云東明舊城一統志曰安市城在盍州南北七十里距此遠矣自柵北行五里有城基東西北三面皆石壁巖絕山脊上往有累石為城之基一面稍平舊時城門也其中居人不過數十戶皆草屋蕭條漸入數百步陡起一峯其高數十丈號稱古

將臺一石刻攢雲巖三字傍刻雲門龍井用卿書巖
西頗有林壑之勝且杜鵑爛開輝映於巖壑之間
誠塞上一絕也北山凹裏有路通人是北門也蓋
此城周不過十里乃彈丸小城而因山為固不費
防禦者八九里外險內平可容數萬人雖當久旱
水泉常溢乃天險金城也。想唐太宗以天下兵力
攻之數月雲梯距闔終不得施其功不特守將之
材器過人必以地理因之以制也此其安市也無
疑哉

皇城卽順天府也有內外城內城四面各十里周四

十里外城亦然合周六十里形如日字正陽門為日字之中畫 皇宮有四正門南曰天安北曰地安東曰東安西曰西安景山為祖在地安之前神武之後而太和殿居於神武之南俗所謂一直向南有太和門午門端門天安門大清門而前有棋盤街也月臺內城正南曰正陽門北曰安定門德勝門正面無門正東曰朝陽門正西曰阜成門正陽左右又有門東曰崇文西曰宣武城之四角各有東西直門外城正南曰永定門東曰廣成門西曰廣渠門永定之左曰左安門右曰右安門北其大畧也

己丑正月初一日晴和留玉河館

丑正 皇上詣 奉先殿行禮寅正堂子行禮辰

初 慈甯宮行禮辰正 太和殿受賀三使臣參

班行三跪九叩頭余亦隨班行禮 上還御 中

和殿受禮巳初 大高殿 壽皇殿行禮午正詣

乾清宮八宴 太和殿少頃破朝仍還館

初二日晴和留館

初三日晴和留館

初四日晴和留館

卯正 上升 中和殿看版巳初出 乾天宮由

景運門進協和門出午門太清門正陽門進天
壇門入齋宮用膳畢仍由舊路還宮禮部呈進
春山寶座順天府呈進春牛圖

初五日晴和留館

初六日晴和留館

初七日晴和留館

掌儀司奏十一日祭奉先殿

初八日晴和留館

初九日晴和夜雪幾至二寸有餘留館

初十日大風寒迫暮晴和留館

寅正三刻 上至 太廟行禮卯正升 中和殿
看版巳正至 紫光閣宴筵蒙古王公奏樂演戲
仍賜醞正副使干 皇榻前午正罷朝

十一日晴和留館

掌儀司奏十四日 奉先殿親行禮節

十二日晴和留館

掌儀司奏十五日早晚祭 奉先殿載瀛載津行

禮 清早余往正陽門外 聖廟 觀音院燒香

十三日晴和留館

午正 上宴宗親

十四日晴和留館

卯正 上詣 奉先殿 壽皇殿行禮

十五日晴和

卯正 上至 大高殿 壽皇殿行禮 辰正
保和殿筵宴 賜醞正副使于榻前清早余詣正
陽門外 兩聖廟燒香食後復出正陽門外由東
街門外荷包衚衕往琉璃廠人衆喧嚷道路擠塞
車馬難進各樣貨物布滿左右而或乘車或徒步
的娥娘頭戴花朶身著錦繡三三五五絡繹相望
或頑耍於市或燒香於廟如萬花之爭簇於春園

也街東有娘口廟因入廟內只見唧宰內春雲集
於正殿之內余遂轉身而出遊翫於街市迫暮而
歸

十六日晴和留館

十七日晴和留館

掌議使奏二十一日祭 奉先殿

十八日晴和留館

十九日晴和 食後出宣武門行五六里至白雲觀
洞口車馬塞滿男女成林賣茶果糕餅之肆左右
絡繹花朶翫好之市前後櫛比末由看脚實難進

去徘徊盤桓僅得鑽入外三門內這是三座虹蜺
而上有單簷之樓茅一重殿閣扁曰紫虛真氣內
扁曰靈虛境榻上安 玉皇天尊冕冠黃袞前垂
黃錦寶帳左右懸曰上極真靈掌宇宙而遍化至
大無為權橐籥而補尊乃黑質白書也自龕室之
左右北壁下橫亘委曲而至東西壁下皆有座卓
而上安十六位帝君塑像乃是三十二位而俱冕
冠紅袍前立一牌各書某帝天尊正殿香卓左右
各安二位尊神而西班茅一位乃六臂之神也茅
二重殿閣扁曰老律堂內扁曰葆素含元龕之額

曰琅簡真庭龕內安一位金像左右各安一位配
神龕外左右亦有二龕俱安三位神像左右聯曰
入真門秉真心叅透真玄真自在來妙境達妙理
展開妙道妙神通茅三重殿門扁曰丘殿內扁曰
福佑生民榻上安道尊塑像龕內左右各安一配
位榻前左右亦各安二配位神像左右聯曰萬古
長生不用餐霞求秘訣一言止殺始知濟世有奇
功龕之左右北壁下大書凌雲二字茅四重殿閣
乃二層簷而扁曰虛無縹緲內扁曰四御殿其左
額曰鴻慈廣被右扁曰神威普佑左右聯曰及其

無窮也又云廣厚尚亦有利哉載統形生榻上安
位牌左右并安二位尊神正榻左右聯曰千秋大
節完忠赤一代神功照肝青右龕之西又有一龕
榻上安聖像左右各安一配位殿之西有一門
口內又有一殿扁曰子孫堂聯曰昭天保赤感仰
聖慈其傍又有土地廟扁曰土地府又有一殿扁
曰五祖廟聯曰誠求必應廣渡迷津又有一殿扁
曰后土殿安后土神像又前有一門扁曰洞府長
春內扁曰派衍長春自子孫堂至此為五座殿宇
而因日暮不得一口觀看回至四御殿卿宰內春

尚留燒香矣一直向前又由丘殿之庭至老律堂
之前則人衆之匝當一如俄間無異矣庭之西有
石橋口是左右虹蜺而四圍環以石欄垂一小青
帳於左右虹蜺之口其內各有一僧叅禪而坐於
卓上終日儼然不動號曰生佛左右虹蜺之前地
方四面各三間許當中置一小凳口上安周尺二
尺餘銅錢樣的圓盤錢雅中掛一箇如鏹子樣的
小鍾兒佳娥美娘環橋而立貼膏於橋上石欄之
上將手俯擲銅錢期打小鍾若撞鍾則如願成就
云諸女相與笑嘻口不惜錢兒儘力爭擲錢如雨

下須臾之間錢滿於地環視者如堵誠一可觀也
翫了一回又走至北牆之下有兩扇後門而男女
雲集鬧熱喧嚷仍挨擠出門則是平原大路而年
少遊俠之輩坐着銀鞍白馬叩了金鐙疾馳爭先
或乘新鮮的太平車相與驅馳以壓頭先走者為
雄這是走馬南陌者也左右觀翫者如城一般而
卿宰婦人及富豪家娥娘皆坐于好粧緻的車子
一字成行兩岸如鐵筒般一樣周匝真個是一座
快活世界矣余顧謂從者曰今日以後始知皇家
之壯而白雲觀為北京之第一大觀也從者亦點

頭兒連聲道是余再三讚歎曰驅車向西行數里
至天寧寺里門扁曰覺路禪關遂下車而入有一
塔巍然特立乃是八面而三層石基亦如之下三
層長丈許又二層之長稍減於下而皆以玉石鏤
刻物形極其精巧其餘并以瓦為簷重二疊二者
為十三層共計二十一層也非以遠東白塔比論
也塔之南有兩簷之樓形如鍾樓後簷額地極目
蕭條矣因怡悵而入其閣則閣中安一位丈六的
大鐵佛金色俱退滿身鏤生尤增愴感遂回轉身
未至一處乃一座大園也土宇共四重每宇各長

四五十步廣可三四間餘而前面渾是明窓茅一
重土宇窓內一字兒擺列着許多花盆以不粗不
細之木條縱橫相聯作為籠架嫩葉新蔓延絡于
架長可丈餘或大或小的青菰兒斜掛于葉底真
是一帶翠屏活畫真境矣其他各樣異花奇種皆
盛於盆上密排成林布滿宇內而其餘三座土宇
廣長一如此宇而花卉比前尤異真個是別地春
光此地回也看了幾回遂出來至後花園中登翫
花臺口高而石梯八九級臺之中央安了一座大
石床環着石凳八面坐了石上俯瞰園中地面廣

濶花木稠雜若值花辰想必有許多奇翫而恨時
之早也仍放曠四眺遠岫嶺兀野色蒼茫膏懷豁
然爽若寒門矣遂下臺而至山房乃十間淨堂而
堂內正中扁曰塩射山房桌椅齊整書畫滿壁山
房之號誠不虛誤也右壁廂有甬門扁曰聽香入
其門則有兩炕尤極精緻塵累頓滌矣因飲了數
鍾清茶欲往佛堂而日已迫暮不得看翫回轉身
來出里門之外復乘車而疾馳僅得入城歸館
二十日晴和留館 食後乘車往隆福寺距玉河館
五六里許寺中擺列著各樣物貨地無空隙男婦

混淆哄口熱口真個是一大市場也轉灣抹角至
一處以兩幅青帳遮護成門衆人圍了幾匝余給
一文銅錢於守門者進入門內則以繩子結成籬
限其內弄耍了糊猴別無奇異之伎倆省了一回
轉身出了門外再往一處則亦如前樣一般的去
處又費了二文銅錢走入裏面這是戲子之演劇
也亦無掛眼事復回身走了幾回兒佛堂鐘樓頗
為宏傑而彩瓦退光窓櫺剝落丹青渝暗階砌款
斜殿門堅閉如香火之頓絕矣又走遭菜圃中入
土宇內各樣花卉個口精緻佛手橘柚之屬仙人

掌霸王鞭之類誠可觀也因觀了出寺門外路左
渾設小市無非是裁縫餘的幾尺緞疋大小不一
各樣具備焉一直走出了巷口乘車而回館裏此
場之設乃每朔九十為期共六日云太常寺告祭
天地宗廟 掌儀司奏二十六日告祭 奉先殿
二十一日晴和留館 食後乘車由東城墻向北行
十里許至太學皆覆以黃琉璃正殿安 孔夫子
位牌左右龕上安著 四聖位牌正殿左右壁下
及四座龕後壁下卓上安列著七十二配位牌
上各書某子左右翼閣安列歷代明賢位牌林

葱二殿外四面各處碑閣羅列於左右又一隙地
庭除碑石重二疊二如林木之杳二焉因徃辟雍
乃二層之堂直書額曰辟雍右書清書而字畫如
梵書焉堂之四面環以泮水二左右周以玉石之
欄東南西北正路各有石橋堂前三四十步許立
三層牌樓以黃琉璃甃造就間以綠琉璃著紋以
製奇巧精采射人不可以形諭也看完了幾回轉
至東廡二內羅列著石碑銘以四書五經又重二
列著長凳橫案乃儒生做工處而其廣則一直橫
亘四五十間而各掛了天地玄黃字號乃試取時

每筵只許一個人交券其規條如此劫嚴因回身
出了門外不過數十步許有大宋文丞相廟遂徒
步而往正殿覆以黃琉璃殿內安文丞相塑像黃
袍冕冠顏色頗焦枯余忙拜了四拜追想燕獄柴
市之事令人毛骨竦然而心膽碎裂徘徊悽愴再
三瞻仰嘆孤節之惟久惟新羨忠貞之惟遠惟烈
自不覺潛然出涕矣且今日而後始知天朝辟雍
太學之為何如也日既迫暮遂出了廟門催車而

回館裏

二十二日晴和留館

二十三日晴和留館 辰初赴安成局請會於正陽
門外數里許東陞堂這是酒食舖重門扁曰不家
食吉四字歷數重門至後堂擺列着八仙大卓與
椅子等具件件皆精初進茶果次進魚肉菜羹饅
頭糕餅稀粥杏仁粥諸般之物而其中我國之最
難者乃蓮實湯也蓮實大如棗而啖之則濃熟如
粉甜美清香其次薯蕷湯也將山藥切片如海藻
樣大以紅糖水熬過如蓮子湯亦是清香可口而
杏仁粥能消痰開胃稀粥則和白屑如杏子粥樣
飲之其味清甜其粒膩潤真個絕品也問諸小二

則曰此乃江南所來之米云因撥床而進盥水次
進清茶罷往倉氏戲與東陞堂隔一重牆垣而
已遂登樓看戲第一戲名是回朝殷太師文沖出
征回朝規諫商紂者也其忠肝義膽直言正論如
觀其人矣余不覺感慨嗟吁第二戲是罵曹乃大
漢獻帝時禰衡罵曹操而操怒甚脫其衣冠使之
擊鼓受辱也使人不覺毛髮豎起矣第三黑風屯
茅四打皂這不甚解茅五打金枝是唐朝郭汾陽
之媳婦卽公主也於汾陽壽誕之日公主傲慢不
禮於舅姑郭駙馬乘醉而怒打公主公主愈恚不

食盡日哭泣汾陽妃驚懼勸解道老身有不肖子
至有此舉當拜而謝之因拜于公主公主急忙扯
之還禮然怒有未息汾陽王亦詣公主宮無稱罪
而猶不聽因詣闕訴於皇后_二_二訴於皇帝皇帝
宣駙馬父子入朝汾陽王俯伏丹墀叩頭稱罪上
使近侍扶起敕諭駙馬進前跪奏公主之無常上
再三勸諭使其息怒而因給尚方劍一口曰上自
公主下至宮奴如再有違誤者當先斬後啓駙馬
遂謝恩而出這一樁快事莽六是結好緣張君瑞
在普救寺請白馬將軍退了敵兵解了鶯_二之危

遂與結婚者也。茅七是楊文舉，亦不甚解。茅八是火雲洞，乃西遊記唐三藏至攢頭山枯松礪火雲洞中，妖王紅孩兒變為小孩兒，掛於松梢。袁了救活三歲使孫大聖解其縛，負之而行。紅孩兒出了個重身之法，壓了大聖，弄了神通，攝去三歲大聖，攪碎了負的妖兒。尋至火雲洞，與紅孩兒大戰。紅孩兒本是鍊火的妖精，噴了滿天神火，燒了大聖。大聖大敗，往南海請觀音大士收服紅孩兒者。也。蓋戲子之諸般粧出來的，完如真境，無異目擊矣。日已昏，而戲亦完了，因下樓回館裏。

二十四日陰而甚和融夜雨雪交下至明而止
順天府奏京師得雪二寸餘

二十五日晴和

天成局請會于同興樓飲讌而道路泥濘不得已
乘車而赴焉這舖亦是正陽門外南大路邊也其
拱具之節稍減於東陞堂而亦清淡可嘉也茶飯
畢欲往觀倉戲而以國忌徹樂不得演劇云因回
車入城還了館裏

二十六日晴和

未初 皇上至 慈寧殿行禮升 太和殿受賀

二十七日曉雪午晴和

掌儀司奏三十日及來月初一日祭 奉先殿順

天府奏京師得雪三寸有餘

二十八日晴和

巳刻 皇上至 壽皇殿行禮天津般路便付家
信

二十九日晴和

掌儀司奏初七日祭 奉先殿

三十日晴和

太常寺奏派致祭昆明湖河神廟早朝余出正陽

門外 兩廟燒香而來午後往東陞堂赴讌飲會
諸般等具一如前樣暮而回館裏

燕城目錄
三

燕轅日錄卷之三

三月初一日晴和留館

初五日 皇上升中和殿看版掌儀司奏今月初

五日 皇太后歸政于 皇上 余於清早往

闕廟 觀音院燒香

初二日晴和

寅正 皇上至 社稷壇行禮

初三日晴和

卯正三刻 皇上至 慈寧殿行禮畢升 太和

殿親故受禮

初四日晴和

辰初 皇上升 慈寧宮行禮畢升 太和殿受賀
初五日晴和

午刻 皇上升 太和殿筵宴

初六日晴和

清早詣正陽門外 兩廟燒香回路。玉河館邊詣
五聖廟燒香 廟甚窄只單楹卓上安五位神像
正扁曰五聖神祠左扁曰如在其上右扁曰真靈
其邊又有一小閣扁曰神光普照安二位神像龕
內左右安一小位因燒香回館裏

初七日早陰已候細雨下暮而雪始下至夜深而止
寸得寸餘而大風起連曉不止

掌儀司奏十一日祭 奉先殿

初八日陰寒而風午後風定夜則微月矇矓

初九日晴寒夜同

初十日晴寒夜同 食後出崇文門外遊翫各處塵

肆櫛比物貨豐阜件件俱備與正陽門外無異周

迴了幾多衲衲入假花舖中四壁廂皆是三層琉

璃障滿掛了許多花朶五彩交輝製樣精巧奇花

異草滿目燦爛真個是別地春光也着了幾箇舖

中廷暮五回籜裏

十一日晴比昨少弛夜風起

掌儀司奏明日祭奉先殿

十二日清冷留館

卯正皇上升中和殿看飯

十三日晴和

寅正三刻皇上出順貞門神武門地安門至

闕帝廟焚香由舊路還宮食後看戲二十餘人擔了幾箇木桶盒兒床凳之類來到館中安排了訖演出各樣伎倆來先将木几如拳大的兩個

執在兩手又將小碗口來的筆包兒係在腦後將一個木丸兒祭在空中俯首鞠躬趨進而承其丸落在筆包中其聲甚烈觀視者無不驚駭又將一個擲空而以左手拿出筆包中丸兒如是換擲換承至于數十度而一無落空弄完了一回兒再將如砧杵粗細兒的木杵一個放在地上兩手各持尺許的細枝梢掀揭了那木杵兒祭在半空中以木梢承接落下来的杵兒又擲又承如是者數百度而亦無破綻衆皆稱奇而個中尤有奇處者何兩梢承接理固然矣只將一梢任意擲承沒了半

點空兒這是奇中尤奇也少頃完了再將紙條兒
照貼數百尺捲在數尺許的木梢頭攬之又攬解
將出來紙條兒盤旋于地上完如遊龍一盤滿地
周匝一不著地左右無不喝采弄了一回兒訖再
將床兒放在庭中又將無底的兩個木桶兒安在
床上以帕覆其上說話了幾回擺弄了幾回以左
手掀揭了覆帕一面以右手探出各樣東西來或
飛禽或蝴蝶或花卉或菜果或水盈口的魚缸等
類再將那件東西還拋在桶裏照前弄了舉桶示
之乃是空桶一無所儲雖是幻術亦是叵測也又

有一人但持帕前進跪坐于庭中將帕兒鋪于其
前以右手捏其中舉之以左手入於帕內將身子
漫_二起來怕隨手而舉轉眄之間將帕掀翻拋在
一邊左手擎出水滿_二魚躍_二的大盞盃來衆人
無不稱奇那人將盞盃送于他人拿去後更以帕
如前幻出三層魚缸來高可數尺而幾個金魚遊
泳於缸中水波鱗_二真是可愛那人向前大聲見
能觀者莫不目瞪口呆矣一人手持雙刀而出晃
了一晃將刀尖兒齊入口中因信手刺入至柄而
止刃長幾至二尺而皆沒入口內只餘刀柄而已

觀視者莫不愕然失色不知其從何而入焉少頃
拔出兩刀來少無艱焉一人又上塲來將高足床
兒放在庭中又將一床置安于其上高可丈餘踏
凳而上兩手托了小箕兒盛粟米於其中翻筋斗
跳將下來立于庭上無一粒落個空兒如是數度
又將五個茶鍾安於箕中聳身登了床上又如前
翻下來五個茶鍾一無差移左右齊聲喝采因拿
出床桶等件再將紙條燒火而投入口中如嚼吞
之狀如是者四五度再將箕中盛的粟米兒以手
掬取一連納口以指筭入數升之粟殆盡焉兩頰

將起來如澎鼓樣那人只將兩唇囫圇盤桓于庭
中將口嚔出青烟來四面亂噴烟薰觸鼻如是者
少頃矣際中一人向邦人之前以手探邦人口唇
之間拿一條赤緊口的東西來長可數丈而乃是
紙捲的条兒這不知甚麼幻出的衆人又齊聲喝
采那人盡情吐出了紙条兒叉手向前又大聲自
道奇異了因賜清心丸幾丸又有一人牽出一個
黑熊來以大鐵索係其頸將槍兒釘兒圈套兒放
在熊前以長柄鐵瓢盛了幾個糕餅高舉頭耍了
那熊立起身來如人行住張口舐食其狀愚而且

蠢誠可觀矣那人向熊說了幾個話那熊持鈎舞
將來一回兒完了又把鐵槍托在頭頂上以前兩
足打轉盤旋良久又仰臥置槍于後足掌上亦為
盤旋這尤可笑弄畢後立起來將圈套口在頸上
弄一弄撓頭四顧諸般伎倆無非出於愚頑也衆
人不覺失笑了上判事馬頭告完了戲例給銀子
五兩幾把扇子幾丸清心丸幾卷紙屬云

十四日晴和

掌儀司奏十五日祭奉先殿皇上明日卯正
至慈寧殿行禮畢升中和殿閱視冊寶

十五日晴寒

皇上明日辰刻升 太和殿恭進 丹寶畢至

慈甯殿行禮○清晨詣正陽門外 關廟 觀音

院燒香

十六日清和

皇上明日辰刻升 中和殿受禮 太和殿受賀

○午後德盛局董庄來相與往教坊諸處吃茶回

十七日晴和

一會後詣琉璃廠看玩了許多眼鏡舖而回

十八日晴和

午後出正陽門外看戲迫暮而歸
十九日晴暖午而風

已後與數友同出崇文門外往假花鋪盡日玩賞
而回

二十日晴和暖午後風起

二十一日晴和

未候赴德盛局請會於常興店喫點心黃昏歸

二十二日乍陰乍陽

平明詣關廟觀音院燒香

二十三日風雪乍訖乍來暮而止夜晴

二十四日乍陰乍陽而風

食後與二三友同往教坊吃茶果迨暮回館

二十五日陰而風冷

午候與同伴四五往同陞堂喫點心歸路看戲

二十六日載陰載陽而風

二十七日晴而風大起

皇上明日巳刻至南海

二十八日晴而風

掌儀司奏明日祭奉先殿

二十九日昨同

皇上明日卯初還宮卯正二刻入座吃肉畢還海
午候出正陽門外聽戲後與同伴入酒肆高樓
軒豁俯瞰城市膏襟爽然余雖不飲酒各樣羹饊
無不佳口者

三月初一日晴和而風

皇上明日卯初進宮卯正二刻至坤寧殿吃肉
畢還海清晨詣闕廟觀音院怡親王廟
五聖廟燒香

初二日乍陰乍陽而大風刮地迫暮而止

皇上明日至紫光閣演耕籍禮

初三日陰至巳後細雨始下午後蕭口至暮而止

太常奏派祭天地宗社掌儀司奏十四日告祭

奉先殿○巳後詣正陽門外打磨衙觀音院

燒香

初四日載陰載陽而風

皇上明日用膳辦事召見後還宮卯初升中和

殿看版畢還養心殿少座更衣後卯正二刻出

乾清門至奉先殿壽星殿行禮畢還海○食

後詣打磨衙觀音院裡與美命的彭生叙話

因請美命後又察氣色而回

初五日晴而大風刮地未後止

皇上明日卯初二刻出西苑門進西華門出午門
太清門正陽門至先農壇上祭扶犁畢由舊路至
南海

初六日晴和

平明詣闕帝廟觀音院燒香

初七日晴大風自朝起刮地而迫暮而止

初八日晴午後風

掌儀司奏初十日祭奉先殿
要翫西山海甸
當日黎明出西直門逶迤行十餘里至一處遠望

見一產石榜陡起于曠野之中問看車的則荅云
小盧口橋催車前進下車而行數百步乃海甸湖
岸上大路也其橋橫跨于湖口而橋脊高聳如尖
字人字樣自橋至脊上幾至五六丈而渾是石榜
左右以玉石雕刻為欄水門則不是虹蜺而乃大
方穴也真是橋而非橋樣也似是屋而非屋脊也
余因緩步而上踏過四五十層石榜始登其脊放
瞬四眺則湖面平濶碧波任風蕩漾溶々有聲而
東南一帶乃是御路長堤和石灰而墜等連亘
于幾里西北一區正是層巒疊嶂蘊玉胎而特秀

崔巍乎半天而山之下水之畔幾座石臺聳出水
面臺上各有一座彩樓遠望如一幅畫圖矣余又
走下那邊石榜距橋十步許有三架牌樓制樣極
其精巧着了一遍復回身步上橋脊迨口乎浮埃
絕矣颯口乎颶風猛矣凜乎其不可久留矣將欲
舉步下行之際風勢益猛幾乎飄揚僅扶石欄而
下沿堤而行至十七虹橋之畔這是一座長橋而
橋下水門乃十七虹蜺故名焉可知 帝力之壯
矣橋之左右繞以玉石之欄口頭皆鑄獅子精極
巧完如活動而橋口有兩簷八角亭扁曰廊如亭

縹緲乎迥出雲霄丹青耀日這是回祿後始營建也臺下四圍周以朱欄正面各有一門亦有守者由南門而入過了四五級石階始登臺上入于亭中則軒豁寬敞眼界無涯但長驅萬里之風而已者完了一回兒還出欄門至虹橋之上眼無掛碍膏無滯碍混々然如入幻境之中矣佇立良久不覺歎了一口氣遂過橋至牌樓之下這是五架重簷覆以黃琉璃瓦玲瓏可愛而門內左邊有一座殿閣聳出於畫墻之內墻門上扁曰勅建廣潤靈雨祠仁門之右有一角門亦西向也遂入其門內

望見飛樓迥出牆外扁曰月波樓墻門扁曰西垂
花門轉而北庭除軒暢東有一高樓即洞庭留賞
也西有一樓即鑑遠堂北有一樓即涵虛堂開其
左右角門則門基與水面高可六七丈而碧波漾
々來衝脚底不覺寒噤矣又轉而東出小角門有
一座石臺上有飛樓沿石梯而上數十級石面始
平樓門堅鎖但周繞着翫真個是絕頂也俯壓滄
波迥立半空杳靄晴嵐掩映於飛簷之間風籟水
韻琳琅於畫棟之下雖龍眠之妙手難以逼真也
因由舊路下了石臺繞臺而東始知此臺以太湖

之石壘口等就向東正面石上刻曰嵐翠礪其左
右邊皆刻為聯左曰列岫展屏山雲凝罨畫右曰
平湖環檻鏡波漾空明聯之左邊有一石窟遂攝
衣而入石路崎嶇分左右而左窟無通亮處裏面
混黑右窟尤為深邃因步口踏上漸進漸高而漸
明始至其路窮處則向南有一方竇高可一尺許
廣可二尺許而刻石為窓以通陽光此窟亦非天
成而乃人巧也因出了窟外口口臺基亦有一方
磯聯基而直入水中乃是釣臺也蓋此一塊地面
四圍水鄉惟一面十七虹橋連陸而已余曾於丙

辰四月始觀此處則瓦甍甍輓渾是五色琉璃光
華射人今則不然雖是一新營造乃土瓦土甍而
但金碧丹雘燦然曜目而已又虹橋以東則滿種
芙蓉極目葉嶼今則想必不然矣因回身轉來過
橋而至湖之西南隅以烏銅鑄成一隻牛蹲伏于
石臺上頭角崢嶸有若活動焉遂沿湖而東行里
許至湖之東南轉灣處有一座石臺如四方城子
門上扁曰文昌閣有飛樓迥立其中四隅各有一
小亭甚是壯麗管門者適他而不在焉但讚嘆而
過行了十里許至西山碧雲寺過了兩重里門復

行至山門外下車步行過了山門里門山門渾是石虹蜺也門內鋪磚路多不平步履極艱行了里許始至寺門寺在大山之中洞壑秀美龍虎相抱一大村庄櫛比於里門之內外朝應於前真個是名山寶刹也透入寺門內茅一重殿扁曰佛日增祥茅二重殿扁曰能仁寂照茅三重殿扁曰濟世活人茅四重殿扁曰普明妙覺其內扁曰勝業慧因四重之內各有左右兩廡各安諸佛諸仙或羅天大會不一其像炫煌難狀而殿閣幽邃寂無一人余大著膽兒獨自進去遇佛拜佛一上者翫了

一會再往西邊來即佛日增祥與能仁寂照之窟
左右夾門外庭除稍濶又有一座殿閣乃是五百
羅漢殿也從殿之左夾門而入廣可數百間許而
五百金身尊者行_二列立形貌無一相肖氣色嚴
畏余尤抖擻精神獨進裏面周匝一回兒始至一
處見三位粧嚴金佛立于堂中而無蓮臺寶榻但
有丈餘大銅爐一座於佛前而已余因拜了四拜
又周一匝兒殿內頻曠陰風颯_二余少無懼怕自
覺心神踴躍暗想道余有何善緣而得到此地叅
見羅漢拜過了佛尊麼這福力真個不少了因自

歎自語回來客堂之中吃于一鍾清茶一碗點心
再走出來復入普明妙覺之殿內從佛榻後門出
了裏邊乃一塊後庭極其廣濶有三架玉石牌樓
向南齊整于三級石基之上前有一隻石獅蹲坐
于石臺上可丈許而制度精巧猶若生活因入牌
樓門裏左右有兩層碑閣上簷圓而下簷乃八角
也又其北有七八級石臺上上有三架玉石牌樓
門內又有一隻石獅子牌樓之制獅子之形尤極
精巧有若神造矣其北又有石梯數十級上有三
層石臺上之前面開一虹蜺門上內下廣而漸尖

圓而高可四五丈其中安一位金佛虹觀之右又有數十級石梯上盡處復折而北又有十餘級石梯其上平濶周以玉石之欄中有一座大塔下層如方城高可數丈四圍各安三位佛乃是陽刻而如活立石面也其四角之上各安一小塔形圓而上銳中安數三丈圓塔亦上尖下廣如覆盂之形此塔乃是下層開虹門安佛尊之上頭也自地平共計為數三十丈左有二塔右有三塔各為十三層而臺上塔共為六座臺上鋪磚皆是玉石其上之精物之鉅非以筆舌語也塔在主山之下兩峰

之凹而自北欄下視則香仁乎如在半天裏矣不覺心清神怡如醍醐灌頂東望西張應接不暇自歎自語恨不早到此地也轉瞬之間日已向西只得沒奈何下了石臺回到客堂吃了一盃茶謝了主管的催車而行將近十許里路左有四方之垣每面長幾至數里垣內則似是空虛無一樹一屋之越見者行至垣盡處乃折而南為東垣也自東垣外縱目而望則想必向南有門而遠仁見幾座高閣迥立那邊矣問諸馬頭則云是皇上動駕時行宮也思欲一翫而恐為城門之關閉不得已

催了入城乘月色而回館裏

初九日晴而風

皇上明日卯正進宮至孝貞顯皇后聖容前行禮
畢還海

初十日晴而風

巳候出正陽門外詣書籍舖檢玩了許多奇書買
了幾函冊子而來

十一日晴而薰

十二日風雨自子後大作連曉而來至平明猶霏
至辰刻而收始晴涼

掌儀司奏十四日祭 奉先殿（）已量余步出崇
文門轉而南出大路遂折而向東行里許有火神
廟方重修焉遂入裏面庭除宏濶而前殿扁曰炎
帝司衡榻上安一尊全身冕冠黃袍榻之右又有
兩扁一曰慶雲化玉一曰德炳肅明北壁下亦有
龕而安金像遂燒香而出由夾門出後庭有一二
架牌樓入其門內扁曰清音雅奏右扁曰妙舞左
扁曰過雲向南又有一殿自牌門至殿前乃是高
樓之下其高可數十丈而雕窓飛檻左右暎帶完
如東陞堂邊戲樓之樣想是遊翫歌舞之地也上

有重二扁額曰乾坤正氣曰至尊無上曰義著乾
坤曰息公好義曰神人以和曰保衛東方曰昊天
寶閣殿內安一關聖塑像因焚香而退管廟的請
吃茶因飲了數鍾辭出廟門遂向東直下折而北
又轉而東逶迤而行三里許至蟠桃宮在東便門
外濠南高阜處宮門向北臨濠而開扁曰護國太
平蟠桃宮由右夾而入有向北一殿扁曰蟠桃殿
左右有兩廡右是接賓之所也扁曰客堂管廟的
迎開殿門內扁曰坤貞普育右扁曰聖恩默佑又
曰靈光顯佑左扁曰普沾慈恩又曰慧雲普護龕

內安金母娘二金身七寶莊嚴榻上羅列繡幢寶蓋仙童仙娥二侍立龕之左右北壁及東西壁下共安十二神金面冕袞壁上安無量衆仙塑像心目眩搖不能盡述可知蟠桃之盛會也因焚香拜了幾拜出了殿門循殿之西而南復乍折而東乃殿後南庭蓋殿之北向故也向南又有一殿扁曰斗母寶殿二內安斗母娘二金身遂禮拜而退左右亦有廊廡右扁曰妙果圓成中安諸神佛左扁曰南極長生中安七位神像又有一廡扁曰三宮中安三尊神位一二拜過了管廟的請入客堂

裡面坐于椅上乃是三間華堂卓椅齊整圖書滿
壁幾盒絨花套以琉璃羅列左右清洒幽雅極有
精致因供香茶余舉手向管廟的連稱幾句好緻
面又再三謝其厚意而無物相贈只以清心元謝
之因辭出宮門不由舊路沿濠岸向西而上往
見白鴨成羣游泳水面無一個黑綠之鴨或有舉
網捕魚者或有垂竿釣魚者余緩步而且看且行
復由崇文門回館裏

十三日晴和

皇上明日用膳辦事召見後還宮 宣醞紫光閣

掌儀司奏十五日祭 奉先殿

雍和宮記

雍和宮在安定門內大街東里許喇嘛僧主持乃

皇家願堂也侈麗宏傑甲於北京門扁大書昭泰
門三字門內左右對立碑樓丹雘鮮新樓內左右
對立青銅大獅子無數廊屋連亘相對僧徒所住
重門大書雍和宮門內對立雙竿金彩絢爛又對
鍾鼓樓八稜兩簷高與竿齊閣前有大銅爐高數
丈安爐於一座烏銅床其雕刻甚奇正殿在其後
扁曰雍和宮三簷高聳覆以黃琉璃柱身刻龍亦

鬚鱗甲真如活動層砌雕欄皆以白玉石為之閒而各色琉璃瓔光彩瑩々互相映帶蓮臺繡墩上安三佛高可數丈精巧逼真神工莫測佛榻後有一假山峯壑深秀樓臺城池人物類形雕刻神異細如秋毫所以像須彌云東西兩壁下皆安佛像殿扁曰永佑殿安三位金佛階上安大銅爐色深綠刻鏤神巧其後又有一殿扁曰法輪亦安佛像榻前置金鼎二刻一童子及雙龍鼎前又設一卓奉金屋琉璃龕羅列金佛燃長明燈於前其後又有三簷高閣乃觀音閣也各簷各揭一扁上書百

福二字中書淨域慧仁下書圓觀并應左右聯曰
慧日麗璇霄光明萬像法雲垂玉宇安穩諸方閣
中安觀世音塑像高與閣齊一指之大幾至十圍
項帶念珠顆大如甕繞垂流蘇飾以珠貝左右壁
下設三層胡梯攀登上層尚未及佛肩拓窓放眺
萬里山川平如一掌殊恨眼力之有窮閣之東西
又有重簷高閣東曰延綏西曰永康接三閣而通
人行也去地可三十丈許人皆眩暈重足疾行不
敢下親左右兩閣內設機輪二層八面每面各有
窓初見不知為何及引機轉之左旋則依舊閉藏

可謂竒巧之甚閣後又有一帶長閣重簷疊楹皆
虛無人西墻外有關聖廟制不甚大而極蕭洒
東炕掛觀音畫像傍書唐吳道子瀉世稱竒寶云
國子監記

自雍和宮西北行里許當道立三座大牌樓外扁皆
書國子監三字左樓內為國子監中樓為太學右
樓內為辟雍也自此歷太學至辟雍門墻堂室正
方不踰繩準凡內外學舍通計為五百八十
餘門其餘講堂典司廚房浴室鐘鼓樓土地之祠
又不知為幾百楹別有堂一楹扁曰保安以處監

生之有疾者也

太學記

左國子右辟雍而太學居其中皆一墻而間之正殿
三簷兩楹棟宇穹崇墻壁塗以紅漆簷楹施以青
綠又以黃金刻雲龍外簷設銅絲罽月臺高丈
餘以白玉為欄干上下階砌皆刻花草華麗宏傑
副於太和殿云外扁大書大成殿三字旁以滿字
又釋之內有五扁曰聖集大成曰生民未有雍正
御筆曰萬世師表康熙御筆也曰與天地參曰聖
協時中乾隆御筆也柱聯曰氣備四時與天地鬼

神日月合其德教垂萬世繼禹湯文武周公作之師又曰齊家治國平天下信斯言也布在方冊率性修道致中和得其門者譬之宮墻其餘不能盡記東西廡明倫堂一如瀋學之制夫子位版之龕則等黃輓為之其餘用青甃明瑩之色如玉無異庭中有黃瓦重簷碑閣六皆御筆也啓聖祠在正殿後今改名崇德祠大成殿前中門扁曰大成門門左右各有夾門左曰左戟右曰右戟兩戟門內列置石鼓頂刻十干別其次序即周宣王蒐岐山之陽劉石以記其事石形如鼓故名高四周尺徑

二周尺其書史籀其辭風雅所以歌頌田獵之功
車徒之盛如車攻六月者也門外又有新石鼓十
枚大小與舊鼓同以篆字移刻其文乾隆時事也
旁立兩碑一是乾隆御筆也石鼓文重刊序也一
是張照所書韓昌黎石鼓詩也筆法奇屈勁道西
墻有夾門曰持敬門內庭廣殆過千餘間立碑
如林不可勝計也

辟雍記

辟雍在太學之右大門內又有碑樓外書環橋教澤
內書學海節觀樓後對立鍾鼓樓左右各有兩

碑閣皆御筆也堂中有正堂古所謂泮宮也四簷翼如門上揭扁曰涵泳聖澤堂中設御榻上扁曰雅酒於樂堂外四面引水為環澤畔繞以石欄所以節觀也澤外東西連延為長廊共一百二十四間每柱刻十字文一字以別其次茅東廊有三堂一扁曰繩愆廳二扁曰率性堂三扁曰誠心堂西廊亦有三堂一曰博士堂二曰修道堂三曰廣業堂其餘諸廊列立白石石碑摠三百七十二座廣可五尺高可二丈制皆相似以隸字刻十三經文字大如我國大板通鑑旁多凳床高可以

踞以供讀經者之坐皇居規模孰非宏大而至石
經尤可見其壯也堂北有小行宮即 皇帝親釋
菜時齋宿之所也殿內有三扁一曰福疇攸叙一
曰文行忠信一曰振德育才庭左右皆有八碑皆
御製也前有三簷牌樓以黃琉璃甃造就其制度
之奇巧鏤刻之精妙殆非人力所暨也

文丞相祠記

祠在府學東南隅一墻此地即先生成仁之所柴市
也門扁大書文丞相祠外扁曰仁至義盡內扁書
浩然之氣旁題道光六年八世孫桂書桂乃進士

出身曾經吏部即以文學名世云正堂外扁書萬
古綱常乾隆御筆也內扁書古誼忠肝柱照刻正
氣常存俎豆至今尊帝里孤忠立極精靈宜近接
黷堂榻上安塑像元時塑以儒服明正統十三年
順天府尹王賢奏改塑宋時冠服其旁又有一塑
像頗渝損而是朝家祠典故人不敢私修蓋自永
樂初每歲春秋中朔天孫遣順天府尹行事爵二
果五帛一羊一豕一云旁立一碑細刻丞相像蓋
文山就死之日有人高其節慨然嘆曰不可使此
人無傳於後遂拔所佩刀就石上傳神因以文山

自贊詩句刻其上孔曰成仁孟云取義惟其義盡
所以仁至讀聖賢書所學何事而今而後庶幾無
愧又有雲麾將軍二碑翁覃溪一碑皆坎之東壁
西壁有一碑刻崇山李世德詠文山詩正堂東壁
外有一碑刻丞相本傳祠中淨掃無塵人不得無
時出入可知其崇奉之至也祇瞻遺像雍容有儒
者氣百世之下令人起敬自古辦大事殉大節者
未必粗猛而能之也

隆福寺記

自文丞相祠又東南行數里至隆福寺口在大市街

西北而一名大隆福寺明景泰三年六月工部侍郎趙榮董工至五年四月寺始成跨街立三座牌樓結構宏麗大小諸般合有數十區雍正九月重修云而今皆頽圯每朔九十兩日有廟市百貨委積為諸市之冠云

三忠祠記

祠在朝陽門外循濠而南行數里至大通橋口旁有祠即諸葛武侯岳武穆文正山安靈之所也庭有兩碑皆萬曆中所立也正殿安三像中安武侯左安武穆右安文山武侯衣鶴氅冠卧龍執羽扇而

武稷甲冑文山幘頭也

先農壇記

壇在永定門正路之右。先農而左天壇也。周可五
六里。繞以長垣如方城。壇門常關。守者牢拒自外。
望之重。正屋簷簷聳出。間是觀耕臺神倉等屋。
而其下有壇。是上辛祈穀之所也。郊祭之日。必
用辛。社祭之日。用甲。辛壬十干之終。而屬之陰。主
成物之陰也。甲乙十干之始。而屬之陽。始地事者
陽故也。

天壇記

壇在永定門正路之左與先農相對牆周十里其形正圓無曲折西向設戟門二內南牆下有神樂關是祭享時習樂之所也又過了一帶粉牆有祈年殿三層十二楹葺以青綠琉璃瓦上插金頂檐桶棟椽皆正圓蓋像天圓也殿內置一高榻覆以黃帕殿外繞以玉石欄三匝自平地鱗次漸高以作階級而欄門兩旁各置烏銅大爐殿四面垂以青瓦簷其北有皇乾殿中安祈年殿神版其東有太常寺祠祭署又南過兩重門皆葺石為路高可二丈路盡有皇穹宇中安天壇神版又其南為圓邱

卽祭天之所也。繞以周垣，覆以黃琉璃。四面各有三架牌門，皆二重，合為二十四間。分元亨利貞以配東西南北，而為辨邱之制。為壇三層，茅一層，壇濶可百餘步，高可丈餘，鋪以碧琉璃，為甃。甃以綠琉璃，為楹檻階，俱九級。濶幾二丈，亦鋪綠琉璃。甃茅二層，茅三層，廣濶漸減，而制法相同也。一統志曰：每年冬至祀天於圓邱，日月星辰分四從壇。其制三成，又正門外東西列為二十壇，以北岳鎮海瀆山川太歲風雲雷雨歷代帝王天下神祇東壇東為具服殿，又東為神庫神厨，祭器庫宰牲亭。

而為神樂觀犧牲所此皆皇明定制而今因之云
又入二重門有太和殿即皇上致齋所也北
墻下有方池冬月鑿冰而供祀焉

藥王廟記

廟在崇文門外南七八里許明武清侯李誠銘所建
也門內有銅爐高數丈嘉慶九年所造也正殿安
伏羲塑像左神農右軒轅是以世稱三皇廟兩廡
配以歷代名醫如岐伯扁鵲葛洪華佗孫真人王
叔和韋真人淳于意餘不能盡記每月朔望士女
輻湊禱禳疾疫香地燭燼堆積焉後又有一殿安

關帝塑像其後又有一殿安元始天尊北極天
 尊靈霄天尊至皇大帝庭有八碑畧曰姓孫名
 臚生平事業史不換見雖與龐涓戰于馬陵事而
 已故不知孫子精於醫理普救世人云云

元朝二賀錄

元日鷄初鳴皇帝先謁堂子見下次謁太廟次謁

慈寧宮皇太后宮也平明始御太和殿受賀因禮部知

委三使臣與諸任譯具公服即帶也詣闕由東安門

入進天安門即大清門端門天安門也至午門

三紅也各門紅觀之內長可三十餘步穹隆幽邃曉

色浸々如入石窟之中因前至太和門少憩于右
夾貞度門下左夾卽昭德門也文武千官分東西
簇擁林立而寂然無聲黑暗裡但聞步履之響少
頃自午門樓上鍾聲大振卽曉鍾而凡三十三下
終以擯點擊々漸促而止開東時候提督前導入
太和殿庭以次芽立如鴻臚寺演禮時也天色旣
明望見殿門洞開而殿內深邃不可見殿門外對
立曲柄黃涼傘一對階上對立黃蓋二隻階下對
立繡鞍馬六匹黃屋轎二座其下對豎紅黑蓋各
色燈籠各樣旗幟或以金織成龍或畫日月星辰

或畫熊虎龜或書門字皆畫龍朱杆其下又對豎
槍棒斧鉞之屬儀仗之使共數百人皆黃衣黃鑲

兩行排立威容甚肅東西班趨入仗內大臣以下
階下諸王與蒙古王階上皆序立而已 皇上從
殿後門出坐殿上殿陛樂作其音節絕不類我國
之響音然清越攸揚少無哀淫之韻想其金石絲竹
之精巧非六外國也樂止又整鞭三響鞭訖而又
樂作於太和門樓上少頃樂止鴻臚官立于階上
臚唱恰如我國之臚聲而大且清焉響振殿庭於
是東西班隨臚唱行三拜九叩頭禮一無參差亦

無喧嚷禮畢殿上有讀書聲其聲亦洪暢堪聞這
是新正陳賀表及頒詔文也讀訖樂作已而樂止
皇上復從殿後門還內三使臣因退出太和門外
見有黃屋轎四座這是例也一則衆人擔之二則
各以九馬駕之馬齋其色一則駕以大象象車之
制輪徑二丈屋高亦二丈方可數十尺上為圓蓋
四面垂以珠簾外為板階環以雕欄為近臣侍
立之所屋內方正如房設屏幃及文房茶甌車後
斜插繡龍帟大彩旗一雙欄之左設紅漆層檯所
以踞而上車也衆之歸以槐黃絲織成大組縷金

為飾嵌以青紅珠口大如拳遍絡象身鞍上加以
金臺形如浮屠觀於象車不為無助於萬乘威儀
之一端也歷午門端門而出仰見城樓高插半天
朝日盪射金彩眩耀帝居之壯有如是矣

堂子記

堂子或稱鄧廟在東天安門外玉河橋東里許帝
於正朝必先朝謁未知其何神也一統志亦言元
朝親祭而已不言何神也或稱鄧將軍而實則劉
挺死為厲鬼清人畏而祀之或云清太祖考皇之
所服用如劉裕之耕具葛燈繩履之屬所藏云皆

無所考但秘諱之中外不敢知必有所以也宸垣
識畧曰順治元年九月達街門北向內門西向正
中為祭神殿南向為拜神園殿設大內致祭立
杆右座稍後分設各六行口各六重凡每歲元朝
及月朔與國有大事則為祈為報恭詣堂子行禮
大出入必告凱旋則列燾而告典至重也月朔親
王以下貝子以上各遣一人供獻春秋二季立杆
致祭俟大內致祭後各以輪次致祭將軍等不得
預焉其儀制 皇上禮服行三跪九叩頭漢大臣
則不為隨往然則非是祭天神之處如宋之玉清

唐之高玄而有未可知也

法藏寺白塔記

寺在崇文門外東南六七里翔于金大定中舊名彌
陀寺明景泰三年重修改以今名殿宇荒廢無居
僧寺後有白塔高可數十丈八面七層以甃等之
每層各架以木椽每面十三椽中為杯心最下層
向南有一門令守者開而入其中即有層榜如螺
旋窻窻如黑夜胆吻者建縮每登一層八面皆設
窻而納明坎壁為龕安小佛像旋盡八面又登榜
級凡歷七層已各如是及到上層坎壁有一烏石

小碑刻摩訶婆羅密多心經下書大明景泰五年
十五日黃鉞施蘇忠鑄其左右東人之題名滿壁
遂從窓隙聘望一城內外皆入俯瞰有如指掌問
閭櫺比市井森羅彩樓畫閣朱宮貝闕照輝于斜
陽而景山踈峙太液平鋪濃烟瑞靄鬱已葱已真
個是皇居也外城三面極目雲樹皆墳園也蓋
北京地處平行且登高有禁故都城全面無處可
觀而惟此塔足以領畧矣

太陽宮記

太陽宮在法藏寺西半里許制不甚大前殿安三位

塑像中是紫微星君東太陽星君西太陰星君後
殿安九天星君左殿安關聖帝君右殿安釋迦
如來昔日則男女之祈禱者日以千萬矣今則不
然云耳

西湖記

西湖或稱太伯湖或稱西海或稱昆明湖或稱洞庭
湖自明時為都人遊賞之地乾隆皇帝屢幸浙江
悅其佳麗乃建宮于西山鑿湖而大之以象浙之
西湖即玉泉龍泉之所潄蓋此地最窪受諸泉之
委匯為巨浸環湖十餘里荷蒲菱芡沙禽水鳥出

沒於天光雲影之際可稱絕勝明正德間倭使至
京見湖題詩曰昔年曾見此湖圖未信人間有此
湖今日打從湖上過畫工猶欠著工夫今見湖廣
可七八里長可十五里西北皆山而水皆注之東
為大堤口廣數十步築以灰泥內甃以石循堤行
三四百步堤斷而設閘以蓄洩之間外有水田數
十頃溝塍整飭薦太廟新稻出於此遠近島嶼往
來碁置上皆有樓完若晶宮貝屋隱映於蓬瀛十
洲之間若當新秋賞蓮之時則果何如也哉

西山記

西山之脉分於鑿山逶迤數千里至此而縹緲秀麗殊可愛也燕都八景西山霽雪居其一前輩所記或曰西山在玉泉萬壽之間或曰西山明時改名萬壽山或曰西山一名玉泉山一名常山皆非也蓋萬壽山乃景山之一脉也玉泉是別山也西山記曰出都城西北行二十里至青龍橋北折八里徑回龍庵後折而西二里抵西湖沿湖二里達功德寺古名護聖寺二前有古臺世傳金元兩主之所遊樂處也或曰看花釣魚臺寺極壯麗寺西數百步至玉泉山金章宗嘗建行宮於此今廢焉山

之北麓雕石為鑄頭口中出泉潄而為池如王泉
泉上有亭泉流入湖注都城大通河為京師八景
之一自王泉南行至彌陀寺口在羊山中寺門內
有呂公洞寺右石臺上有望湖亭蓋西山王泉之
勝者即其槩耳

德勝門水關記

德勝門之西數十步鑿城為水關即西湖之所由入
城處也以大鐵牛鎮其水口頭角嶄然蓋欲殺激
湍以舒衝齧城根之患也

大鐘寺記

出德勝門北行數里至大鍾寺本名境法而以有大
鍾故名繞牆嘉木成陰淨潔齊整遊騎萃焉殿凡
四重皆安佛像最後高閣扁曰華嚴懸大鍾長四
丈圍三丈繞鍾皆刻佛像刻法絕奇鍾頂穿一小
孔旁容鷄子東西兩壁附設胡梯螺旋而達于樓
上登者必由東梯下者皆由西梯蓋欲上下之際
無相碍雜畜之患也樓上男女湊集擲錢於鍾頂
之穴以其入與不入為休咎凡擲錢者默念其願
而擲之本無定數錢盡乃已其法十擲十入者為
上吉十之七八為次五六又其次也環鍾樹柵所

擲之錢堆積其中焉

圓明園記

園距德勝門為數十里在西山之下故或稱西山是
雍正皇帝離宮也正門各對立石獅夾路左右
崇屋相望乃動駕時槐棘官廚也東墻外樹以
紅柵口外鑿湖周可數里築石為堤柵內多彩閣
層榭隱暎於林木之間而禁不得入焉帝園在圓
明園西南人家稍稀處掘地為長壙口內軌等四
壁四分其中而間之每間南北十餘步東西七八
步每東壁設一石虹門以鐵板為閘而牢鑰帝之

出入皆由是門每門外又掘地築牆制如內園而稍小每欲開門則自牆上引轆轤啓闢焉每園四牆上架以大木又以十字木橫架園上罩以鐵網口眼可容小拳鐵索之粗大如拇指而網之腹穿小缸口大的一尺投肉而飼之每日牛肉五十斤云而園之廢矣

暢春園記

自圓明園未至文昌閣依山有暢春園一統志曰地名海淀明武清侯李偉胡園周十餘里康熙皇帝到此酌泉而甘因其舊基而築宮設籓必加規度

且為編覽田疇賜名暢春有御製記以識其勝燕
記曰暢春園即康熙離宮也方繞三里墻高二丈
門亦卑簷制甚朴素六十之年天下之奉宮室之
卑儉能如此宜其威服海內息浹華夷至于今稱
其聖也三代以後君天下者競侈其居南面之樂
不出乎宮室輿馬雖畏天下議已外示節儉其心
志嗜慾終不可諱也今此北京宮室之盛明朝三
百年豐豫之所修歸居之而天下不敢議享之而
是以明得意乃違而去之居於荒野之中其去欲
示儉終始治安可為後王之法矣且示官自京城

朝出暮歸使肉食綺紙之子習勞鞍馬無敢逸豫
自大臣以下又不得乘車轎其安不志危亦可為
遠畧矣自雍正之朔圓明漸就荒廢今無存焉但
有門基與一塊石頭刻暢春園三字而已過而覽
者豈不踟躇而悵悵也哉

文昌閣記

文昌閣始創於瀋陽而所徑州縣亦多登覽皆在學
宮之傍似以右文之意其為尊禮誠如是也自耶
律基元時丞相更西數里踰一小岡有閣翼然重簷四
角如暈如鳥丹碧暉映峇窈迥立羣山來朝鏡湖

平鋪如一幅活畫矣

萬壽寺記

寺在西山之畔門內對立鍾鼓樓前殿扁曰行住坐
卧後殿扁曰慧日長暉後有重簷大殿上扁曰萬
壽下扁曰歡喜堅固安三位金佛壁面刻木填青
如雲飛形千萬盈寸之佛累二於其間若果木之
垂實附壁有三層二梯以通上樓頰合眺望其左
右各有小殿左安女佛膝下有無數童子此是催
生娘二也其後又有一殿扁曰潛心面壁亦安金
佛其後有一碑閣扁曰無量壽閣四旁為石假山

高各十數丈秀麗窈深古木蒼藤縈迴盤鬱耐能昏
日月架石為橋二盡處有石窟其傍有石室陰二
颯二不可久留峰上達三座彩閣環以太湖假山
後又有一殿扁曰一元三要其中安三位大佛庭
有白幹松四株扶疎老蒼亦可愛也其諸幾多殿
宇不知為幾區其結構之奇壯非他寺可方也

歷代帝王廟記

在阜城門內路北跨街立牌樓大書景德街三字繞
設黑柵而禁人門扁曰景德廟庭中有八座烏銅
火爐正殿外扁曰景德崇聖之殿內扁曰報功觀

德安義農軒三皇位版東一龕五帝西一龕夏商
東二間周西二間漢二居中而左南朝右北朝東
三間唐居中而左遼右宋西三間金居中而左元
右明廟之制在明初五而唐宋以下位置改定在
今清云周之幽厲漢之平桓靈晉之安帝及外此
之國見弑之君皆不與焉大明毅宗亦不得同享
似由遲憾之意也東西廡各配歷代名臣共八十
人而風后牧力分為其首廟制一如聖廟宏敞殆
過之亦盛典也廡前亦對置銅爐又有綠琉璃瓦
閣對立左右即望燎處也洪武初太祖與文臣宋

濂等議曰歷代帝王禮宜禋祀卿等訪舊制參酌
奏行乃以每年一祀每位一爵為定廟既成時值
秋享上躬行祭獻序至漢高祖添爵笑曰廟中諸
公皆有憑藉以得之不階尺土之一民提三尺取
天下惟我與公尤為難事可供多飲二爵自此惟
漢高祖進酒三酌遂為定制至元世祖位面額忽
成慘色眼眶若有淚痕上笑曰爾好痴也爾有天
下幾百年亦是一個好漢爾子孫自為不道豪傑
四起今日我到爾廟爾之靈氣亦覺有榮友作兒
女之態耶其像即收慘色上又至殿廡享諸功臣

見廡外有一塑像問此是何人劉基對曰是蜀漢趙子龍因逼國母死于非命抱阿斗逃生故點之上曰那時正在亂軍之中事出無奈遂令進入廡內又見一像站之間是何人對曰這是伍子胥因鞭了平王之屍雖係有功實為不忠故只塑站像上曰殺父之仇雖曰當報為臣辱君可乎宜逐出廟外又見張良塑像數之曰當日漢補三傑而甬不能直諫使韓信抱恨而死且踐足對信之時則有陰謀既不能致君堯舜又不能保救功臣使彼不得瞑目而甬又棄職歸山來何意也去何意也

其像垂頭下淚上祭罷還宮於路上望見諸山面
面朝應金陵真是帝王之都惟牛首山及太平門
外苑山獨無衛護上張然不樂使畫工周玄素繪
天下江山圖既成上命把二山改削玄素下殿頓
首曰陛下江山已定豈敢動移上微笑曰罷然聖
意終以二山無情還有移都北平之意遷北後亦
建此祀而但彼塑像而此木主也

白雲觀記

觀在崇文門外數里許道流所處住者數百人前有
大牌樓門內設三空橋所以踈導觀中之水也正

殿扁曰紫虛安 玉皇塑像袞冕繞殿而安三十
三天帝君皆袞冕縉圭前有三角六臂神將前殿
奉南極老人星君騎白鹿左一殿安斗母右一殿
安邱長即春邱大師乃元世祖國師也東西廊屋
各千餘間所儲錦卷玉輶克軻棟宇敦崇彙曷之
屬磊柯竒妙屏幃書畫俱係絕寶殆不可一眼接
應正月十九日即道君寶誕故每年是日大設醮
齋士女雲集矣

城西跑馬

自白雲觀歸轉一灣有觀者如堵而齋聲喝采見百

餘健兒乘駿駒佩弓矢競馳或相先後或與并驅
騰踔如飛射能及遠而矢盡乃返蓋所以習射御
也四城外僻靜處皆有跑馬場暇日練習

天寧寺記

自跑馬場行里許步至天寧寺宏麗不遜於白雲觀
蓋古刹也元魏時名光林隋時名弘業唐時天王
金大定時景安禪林明宣德中重修改萬壽禪壇
後又改天寧等畫三層高可五丈周可數里其上
繞設廊窳連延曲折中有五大佛殿鋪設齊整寶
器珍翫甚多有一大塔幾與遼東本塔等世傳隋

文帝仁壽二年正月帝過阿羅漢羅漢授以舍利
一苑乃以七寶函藏之分賜岐雍等三十州已建
一塔以藏之此塔即其一也下為蓮花臺高可數
丈而為五六層臺上建塔已高二十七丈五尺五
寸凡八稜十三簷已各懸鈴其數為百四隨風錚
已清響可愛又以風磨銅為相輪冠於塔頂光影
遠射日方中闔殿門塔之全影從門隙現于殿內
云亦可異也舊聞寺中有華嚴經障子許虞山所
寫寶塔圖障之廣優可十餘尺長倍之以細楷寫
華嚴經全部八十一卷六十萬四十二字為塔圖

字細如粟粒上自塔巔至于簷稜風鐸隨勢屈曲
無毫髮糾錯塔身所畫佛像眉眼如生衣紋袈裟
驟省之而不辨其真與畫又況非畫即書耶其奇
巧不可以筆舌論也其下書康熙辛未大興縣人
李之秀有怪疾屢年不能起家貧無祈禱之資其
妻劉氏乃習細字晝夜不捨積十年工乃成為此
圖而施之其夫之病即差云噫觀此圖者只知一
女子手法之巧而不知由其積累之誠其可乎哉

報國寺記

寺在廣安門內佛殿三區成化初為皇太后祈福創

寺也。形史拾遺曰：憲宗周太后有長身名吉祥兒，時好遊，即去其家。時太后未入宮也。久之不歸，天順中為僧大覺寺，晝遊他所，夜宿報國寺伽藍殿中。太后亦志之，忽夢伽藍神來告：「妃身在我殿中宿，妃知之乎？」英宗夢亦如之，覺而相語，遣小黃門物色之。至則小黃門見吉祥，坦腹卧殿中，遂擁以行。入白太后，帝召入，使具言生平。太后泣下，仍曰：「身為僧，何如？」皇親吉祥曰：「為皇親，何如？」為僧乃遣還寺中，厚賜之。憲宗嗣位，太后為拓報國寺，建大慈仁寺，居之，賜庄田數百頃，至今存焉。

長春寺記

寺在報國之東數里乃大刹也茅二殿中有八面十
三層銅塔面各雕刻物形中安小金佛塔重為八
萬四千斤云塔後掛一大幃畫明神宗母后李太
后影真跡曰九蓮菩薩畫法甚奇焉

蘆溝橋記

橋於燕京稱第一者蓋以橋之壯也殆無敵耳水濁
故或稱渾河水黑故或稱蘆溝取蘆反之色也其
流遷徙無定故或稱無定河今改名永定河或曰
其源出於塞外索乾山故或稱索乾水或曰蘆溝

一名深水黃河伏流自山西馬邑縣金龍池發源
流至保安燕尾河而祥柯諸水合過沁河口通石
卷口直通蘆溝繞過都城外西南東入于通州河
至高麗庄乃白河渾河霸水是其泓流也後魏都
督劉靖及子平鄉侯弘等戾陵堰以防水激之患
後人思其功稱為劉帥堰古詩所謂去年戰柔乾
原今年戰柔乾此又曰夜戰柔乾北秦兵半不歸
又曰無端更渡柔乾水却望并州是故鄉又曰可
憐無定河邊骨猶是春閨夢裏人蘇文定詩曰北
渡柔乾冰欲結心畏穹廬三尺雪南渡柔乾風始

和冰開易水應生波者即此也漢唐時為最邊絕
塞今作繁華都會之地行旅之赴燕者皆由此路
財穀之所輦輸駝馬之所往來無晝無夜隱隱隆隆
二相續不絕駕水作橋二下缸蛻凡十一而危樞
高帆皆能出入於其實雖值潦漲水不及橋波勢
兩高而中低故人稱神橋二長一百四十間廣可
十間左右周以石欄二頭刻狻猊象之屬精巧
逼真焉金景明年間始築橋兩頭各有御製碑覆
以黃琉璃一是康熙一是乾隆而一刻蘆溝曉月
四字是為八景之一也每清夜月明之時烟雲澌

靄蒼茫無際為尤奇焉過橋而有關帝廟口外
設廊廡稅官常居而治文簿記商賈車輛之數以
收稅銀云按一統志易水距此為二百里涿州不
過二舍而近焉涿州多燕古蹟西南有華陽臺舊
傳太子丹與荆卿置酒華陽館獻美人奇馬之處
也東南有督亢陂其地饒沃即荆卿之所圖而戲
秦也山之名鷄鳴而山之西有上苑苑繞城有下
苑苑即遼太后種花之所遺墟也頓長史銳詩曰
嶺雲沈日溟烟斜見說窮邊亦有花應是漢宮青
塚怨不甘王顏委龍沙以此考之燕之舊都或在

涿州耶薊州或稱燕都此以召公始受封之地故也崇禎十七年四月二十九日圍賊李自成焚城闕出阜成門西奔五月初一日吳三桂入都直從蘆溝橋逐賊而西連敗之至固關班師順治二年流賊張獻忠據四川西充縣逞殺無辜三桂與肅王豪格討殺之其養子孫可望奔滇中餘黨尚闢川中三桂因任漢中五年大同鎮搃兵姜瓖與榆林寧夏甘肅三鎮同時叛全秦振恐秦督孟喬誨師於三桂三桂倍道未破姜瓖於榆林孫可望既入滇勢復振進攻川峽三桂入屯川南可望却

下李定國勇悍剛直而目不
其可動乃取三國志為之講說斥可望以董卓曹
標明定國以武侯定國大感悟時永曆在安隆定
國入安隆奉永曆入雲南可望進擊定國定國迎
擊大破之可望奔降於湖南經畧洪承疇後入都
清太祖封可望為義王可望具言雲南可取狀三
桂欲自以為功上疏進兵雲南遂敗定國於盤江
定國走廣東聞三桂弒永曆哀憤成疾死始葬于
廣東城東後移于順天府蘆溝橋西十里胡家港
廣東初葬之地至今寸草不生行過者必拜云橋

東有一小城以護橋門楣扁曰拱極城此橋為南北咽喉崇禎中流賊窺畿南當事者議築此城設把總隸兵鎮之城祇二門通南北往來題門之南曰永昌北曰順治蓋頌之義非他也後李賊僭號改元永昌本朝建號順治門識之先兆如此云城周不過六七里亦有人家焉

怡親王廟記

廟在王河館西數百步大路之北觀其制樣一如古寺或怡親舊第或曰怡親死無後奉其神位於寺中云正殿安神位書忠誠勤恪怡親賢王之位他殿

及月廊率多空虛前炕皆賈人住接矣

白馬關廟記

蓋遍於天下而一心尊奉者 關廟是也 雖窮邊荒
徼數家村塢必崇侈棟宇賽會處潔牧豎饁婦舉
皆奔走自柵至皇城二千餘里之間無處不奉而
其在遼東及中後所最著靈異其在皇城則獨稱
白馬 關帝廟 在正陽門外西邊甕城西門內
北邊以門下宸居 左廟右社之間朝廷歲一
命祀萬國朝者退必謁輻輳者至為祇禱每以五
月十三日致祭先十日太常題遣本師堂上官行

禮凡國有大災祭告之萬曆四十三年十月命太監奉九旒冠王帶龍袍金牌書勅奉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 闕聖帝君寶誥建醮三日於正陽祠頒知于天下然仍舊稱侯也天啓四年始稱帝先是成祖北征木雅失理經潤灤海至幹難河擊破阿魯台軍每見沙濠霧靄之中有神前驅中稅刀仗儀容果然 闕帝但所跨非赤兔乃白馬也師還燕都先傳車駕北發之日一居民所畜白馬忽晨出立庭中不動不食晡時始定喘汗而食如是幾日回蹕而止事聞勅崇祀祠 廟之稱

白馬良由此也 廟中有焦竑撰董其昌書世稱
二絕我國兩廟壁上揭者即描來萬曆勅封之書
也

編者略歷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學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教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體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教歌辭原典研究』, 『佛教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냄.

燕行錄全集 95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者: 林基中

發行人: 宋錫球

發行處: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帙(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5-1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